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디자인학 박사 학위논문

노마디즘 관점에서의 장소 재해석 연구

A Reinterpretation of Place
in the Nomadism Perspective

2018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이 선 정

노마디즘 관점에서의 장소 재해석 연구

지도교수 박 영 목

이 논문을 디자인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5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이 선 정

이선정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5 월

위 원 장 채 정 우 (인)

부 위 원 장 정 의 철 (인)

위 원 박 영 목 (인)

위 원 채 민 규 (인)

위 원 연 명 흙 (인)

국문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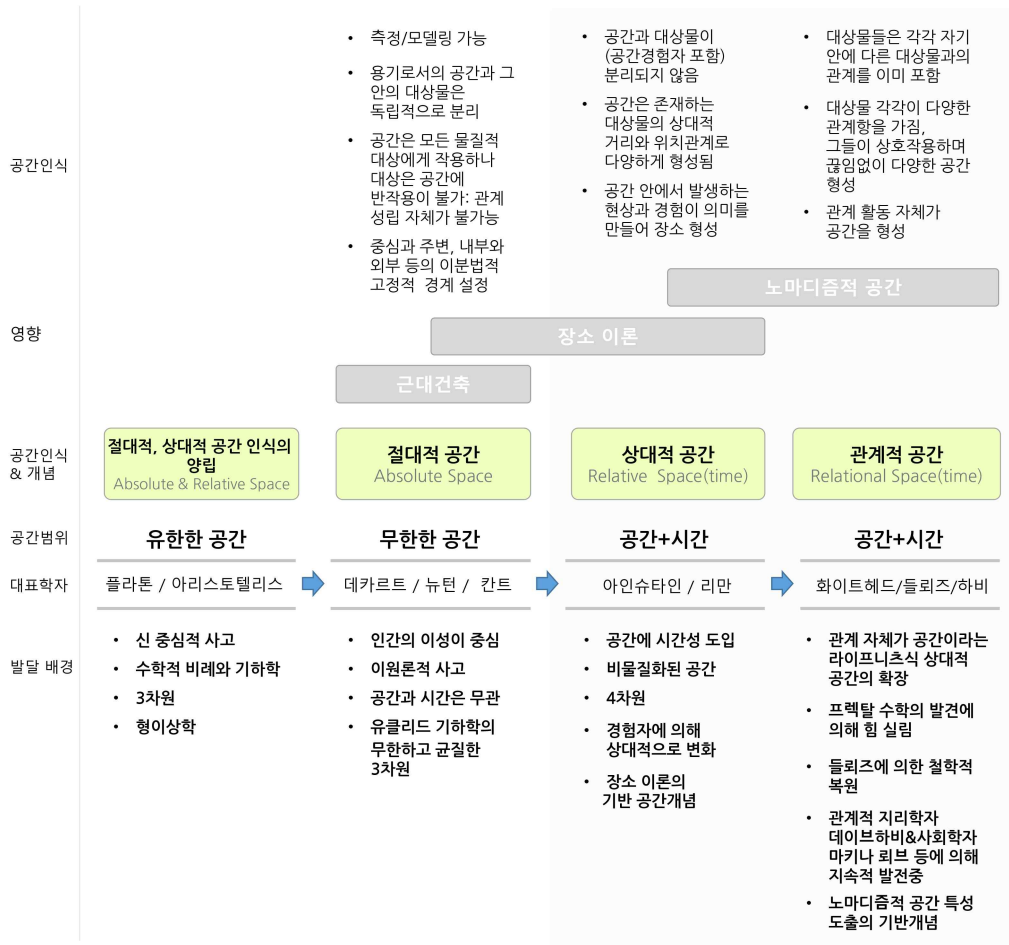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시대 사회 전반에서 볼 수 있는 자유롭고 비고정적인 상태에 대한 선호 현상을 노마디즘 관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직화한 특성으로 도출하고 이를 현대 공간 사용 양상에 투영시켜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 요건을 제안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전통적 장소론의 특성들 중 정주적 생활 방식과 사고체계의 영향을 받은 장소의 고정성이라는 한계를 보완하여 노마디즘 시대에 맞는 현대적 장소 만들기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여 정의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며 시대에 따라 그 개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원론으로 인간과 공간을 따로 놓고 공간 자체에 집중하던 시대를 넘어서면서 공간을 경험하는 주체인 인간과 그 인간의 경험을 담은 생활세계¹⁾로서의 관계를 맺은 공간이 1970년대에 장소로 개념화되었다. 이때의 장소 개념은 정주적 생활 방식과 사고가 지배하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시간의 층위가 쌓인 뿌리 내림과 소속감, 지역과 환경을 고려한 맥락과 역사, 중심과 경계가 명확한 영역구분 등의 내용으로 대표되는 고정성이라는 특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의 급격한 기술-정보,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전반에서 고정된 사상과 가치체계보다는 고정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를 선호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고정적 패러다임의 영향은 비고정적 성격을 띠는 공간들에 대한 개념 정립에 선행되어 정주적 사고와 삶에 맞춰진 기존의 장소들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 사용 양상들로 나타나고 있다.

1) 생활세계 개념은 후설이 창시한 것으로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 메를로-퐁티의 체험된 세계 등과 함께 현상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활동과 경험이 함께 관계하여 주관적인 존재가 살아가는 배경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고정적 특성을 갖는 현대 사회의 공간은 공간 사용자, 공간 자체의 영역, 공간에 적용되는 시간의 범위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질서체계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 질서체계의 정립을 위해서 본 연구자는 노마디즘의 관점으로 현대의 비고정적 특성을 바라보고 먼저 철학적 사유,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공간 사용 양상에 투영시켜 비고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사유와 현상을 공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의미와 해석이 모호한 현대 공간의 비고정적 특성을 명료하게 체계화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공간과 장소의 정의, 공간이 장소화 되는 과정과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여 공간과 장소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며 장소론이 건축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배경을 밝혔다. <그림 1>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공간 인식과 개념의 변화를 체계화한 다이어그램으로 근대건축과 장소론 그리고 노마디즘적 공간이 각각 어떤 공간 개념의 범위에 속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 1> 고대에서 현대까지 공간 개념과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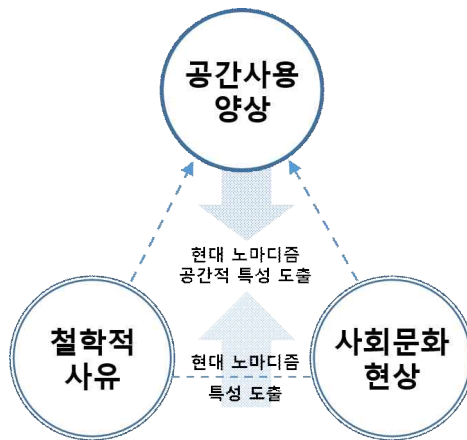
장소를 개념화한 것은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이었다.²⁾ 지리학을 구성하는 2대 분과인 자연지리학(Physical Geography)과 인문지리학(Human Geography) 중 인문지리학에 속하는 인본주의 지리학(Humanistic Geography)은 계량혁명과 논리실증주의 적인 공간 과학적 연구 풍토를 비판하였고 이러한 연구 풍토에 반(反)한

2) 팀 크레스웰, Tim Cresswell, 2015, 『지리사상사』, *Geographic Thought: a Critical introduction*(2013), 박경환 회 4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참고

인문지리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인본주의 지리학은 과학적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현상학과 실존주의에 토대한 이론을 수용하여 인간을 지리학의 중심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핵심 주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을 중심에 둔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은 장소를 개념화하였고 이는 기능주의와 인간소외라는 모더니즘 건축의 한계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을 보였던 건축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장소성으로 대표되는 건축 패러다임이 전개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장소는 건축을 포함한 공간디자인 분야의 논문과 작품에서 주로 장소성 회복이나 장소성 형성이라는 목적성을 띠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3장에서는 장소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화한 인본주의 지리학을 중심으로 장소론을 연구한 학자들의 저서를 통해 장소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이론을 분석했다. 이장의 핵심은 이들의 이론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장소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이는 장소론에서 말하는 장소의 특성들 중 비교정성이 시대 변화에 따라 한계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였다. 장소 이론은 중심성/영역성, 시간성/맥락성, 상징성, 정지성, 체험성, 정체성의 특성을 가지며 이 중 중심성/영역성, 정지성, 정체성에서 고정성이라는 공통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사유방식과 현상으로 존재하는 노마디즘을 공간적으로 해석하여 개념화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노마디즘 해석체계를 수립하고 이 해석체계에 따라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을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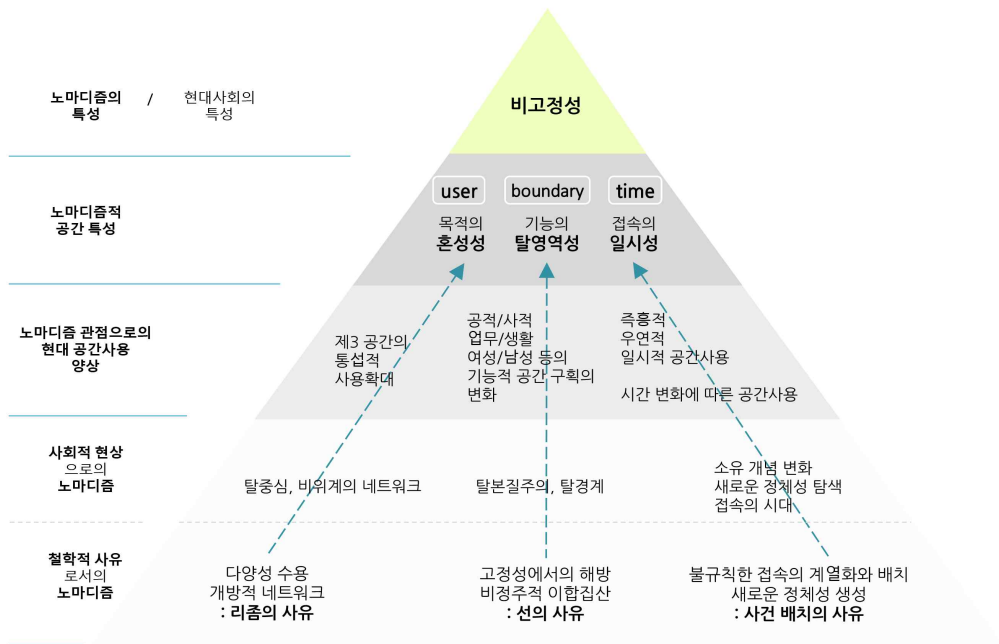
<그림 2> 현대 노마디즘의
공간적 특성 도출 체계

그 과정은 먼저 철학 사유로서의 노마디즘, 사회-문화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을 분석해 노마디즘의 특성인 혼성성, 탈영역성, 접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현대 공간 사용 양상에 투영시켜 목적의 혼성성(mixed objectives), 기능의 탈영역성(non-boundary functions), 접속의 일시성(temporary connections)이라는 세 가지 공간적 특성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표 1>은 해석 체계에 따른 도출 내용을 보여준다.

5장에서는 앞선 3장에서의 장소 이론의 특성과 4장에서의 노마디즘의 특성을 비교해 장소론의 특성들 중 고정성의 시대적 한계를 확인했다. 또한, 4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노마디즘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는데 의미와 해석이 모호한 현대 공간의 비고정적 특성을 <그림 3>의 과정을 통해서 조직화·체계화했다.

<표 1> 노마디즘의 공간적 특성 도출

배경		관점	내용 구분		
			being	boundary	time
교통의 발달 · 디지털 혁명 · 다원주의 · 유기론적 세계관 · 통섭의 시대 · 라이프 스타일 변화 의 흐름에 따른 현대 사회 비교정적 특성		철학적 사유 로서의 노마디즘	리즘 : 다양성 수용 개방적 네트워크	선의 사유 : 고정성에서의 해방 비정주적 이합집산	사건의 배치 : 불규칙한 접속의 계열화와 배치 새로운 자아 생성
		사회-문화적 현상 으로의 노마디즘	탈중심, 비위계의 네트워크	탈본질주의 탈경계	소유 개념 변화 새로운 자아 탐색 접속의 시대
			새로운 정체성 형성		
		노마디즘의 특성	혼성성	탈영역성	접속성
		↓			
		노마디즘 관점으로서의 공간사용 양상	제 3의 공간의 통섭적 사용 확대	공적/사적 업무/생활 여성/남성 등의 기능적 공간 구획의 변화	즉흥적, 우연적 일시적 공간 사용 시간 변화에 따른 공간 사용
		노마디즘의 공간적 특성	목적의 혼성성	기능의 탈영역성	접속의 일시성



<그림 3> 노마디즘의 공간적 특성 도출 과정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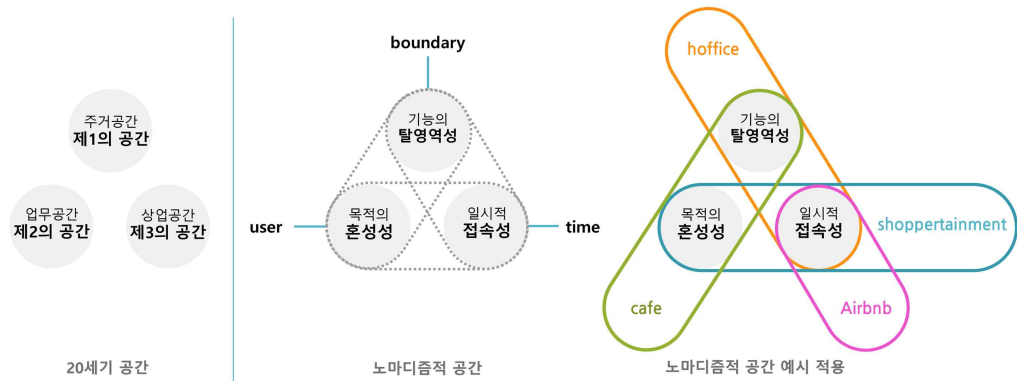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은 공간 사용자, 공간 영역, 공간에 적용되는 시간의 범위로 User_목적의 혼성성(mixed objectives), Boundary_기능의 탈영역성(non-boundary functions), Time_접속의 일시성(temporary connections)로 도출되었으며 <표 2>와 같다.

<표 2>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

주체	user	boundary	time
공간 특성	목적의 혼성성 mixed objectives	기능의 탈영역성 non-boundary functions	접속의 일시성 temporary connections
구분	사용자 이용방식	공간 구성방식	공간 프로그램
공간 사용 예시	cafe, 호텔	공적 공간 속 사적 디지털 기기 사용이 형성하는 사적 공간/혹은 반대의 개념인 hoffice (home+office)	Airbnb, hoffice (home+office), bank-cafe temporary market
성격	비위계적/비규칙적 사고를 지향하는 사고방식의 사용자들이 절대적 질서 없이 개인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노마디즘의 유동적 사고와 끊임없는 비정주적 움직임이 영역적/기능적 구분이 확실했던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림	제안된 사람들에 의한 지속적/규칙적 사용이 아닌 일시적 점유나 가변적인 접속 가능, 시간 변화에 따른 유동적 프로그램 가능
활용	개인이 지향하는 다양한 문화 차이들을 포용, 개인의 필요나 목적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공간 사용 이용을 위해 개방성과 확장성을 가짐	독립적 개인적 주체가 필요 영역을 스스로 형성해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짐, 영역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던 경계 배제	고정/지속된 점유가 아닌 즉흥적/가변적/일시적인 머무는 동안의 점유, 사건의 발생/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는 미확정적/개방적 공간프로그램

과거 20세기는 공간을 기능에 따라 주거 공간인 제1공간, 업무 공간인 제2공간, 상업 공간인 제3공간으로 구분했다면 노마디즘적 공간은 <그림 4>와 같이 user_사용자 이용방식, boundary_공간 구성 방식, time_공간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각각 그 기준에 맞는 목적의 혼성성(mixed objectives), 기능의 탈영역성

(non-boundary functions), 접속의 일시성(temporary connections)이 필요에 따라 교차 적용되는 결합과 해체를 통해 비고정적으로 형성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림 4> 20세기 공간과 노마디즘적 공간

• User_목적의 혼성성(mixed objectives)

목적의 혼성성은 공간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공간 이용 목적과 방식에 나타나는 노마디즘 공간의 특성이다. 디지털 문화의 네트워크는 비위계적이고 비규칙적인 사고를 지향하며 이러한 사고의 방식은 공간 사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공간 사용 목적을 가진 사용자들로 하여금 혼성적으로 사용할 공간을 필요하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대 공간에서 공간특성을 만들어내게 한다. 목적의 혼성성은 공간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공간 이용 방식에 나타나는 노마디즘 공간의 특성이다. 목적의 혼성성이라는 특성은 비위계적이고 비규칙적 사고를 지향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용자들이 절대적 공간의 제약이나 질서 없이 개인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그 공간을 이용한다는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은 특성은 공간 사용자 개개인이 지향하는 다양한 문화 차이의 포용과 개인의 필요나 목적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공간 사용을 위한 개방성과 확장성을 가진 현대 장소 만들기를 위한 공간 특성적

지표가 될 것이다.

- **Boundary_기능의 탈영역성 (non-boundary functions)**

노마디즘적 공간은 공간의 기능과 영역에 의해 강제로 분류되고 소속되는 개인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적 주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 개인의 의지에 따라 필요 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각각의 주체들이 필요에 의해 서로 신속하게 연결되어 다시 소집단을 형성하므로 개인의 공간을 집단의 공간으로 확장시키기도 하는 탈영역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공간들은 비정주적이며 탈영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능의 탈영역성은 공간 기능과 영역 구성방식에서 나타나는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이다. 기능의 탈영역성이라는 특성은 노마디즘의 유동적 사고와 비정주적 움직임이 영역적 기능적 구분이 뚜렷했던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능이나 영역의 구분으로 강제로 분류되던 개인이 독립적 주체가 되어 필요에 의해 기존의 공간에 새로운 성격을 더하거나 빼면서 새로운 공간을 형성시킬 수 있으므로 공간의 고유한 기능과 영역 부여는 그 의미가 모호해진다. 기능별 영역별 공간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자율적 공간 구성방식을 유도하는 기능의 탈영역성은 현대 장소 만들기의 공간 구성 요건으로 작용 될 것이다.

- **Time_접속의 일시성 (temporary connections)**

노마디즘의 공간적 측면에서 접속의 일시성은 제한적 사람들에 의한 지속적이거나 규칙적인 공간 사용이 아닌 어떤 누구에 의해서라도 즉흥적이고 우연적이며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점유 방식의 특성을 의미한다. 접속의 일시성이라는 노마디즘 공간의 특성은 지속적이거나 규정된 공간 사용, 사용자의 효율적 순환을 위한 공간 프로그램이 아닌 일시이거나 가변적인 접속으로 짧게 점유되는 경험적 공간 사용이라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고정되고 지속적인 점유가 아닌 즉흥적/가변적/일시적인 머물기를 통한 공간 사용은 사건의 발생과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

하는 미확정 적이고도 개방적인 공간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현대 장소 만들기의 공간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특성적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마디즘적 관점을 빌려 완성한 현대 장소를 위한 비교정적 공간, 즉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 요건을 다음 <그림 5>과 같이 정리된다.

user 사용자 이용방식	목적의 혼성성 mixed objec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계적·비규칙적 사고를 지향하는 개인의 다양한 문화 차이들을 포용, • 개인의 욕구, 필요, 목적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공간 사용 이용을 위해 개방성과 확장 가능성을 가져야 함
boundary 공간 구성방식	기능의 탈영역성 non-boundary fun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공간 구성의 차원을 넘어서야 함 • 독립적, 개인적인 주체가 필요 영역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성 필요 • 영역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던 경계 배제
time 공간 프로그램	접속의 일시성 temporary conne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지속된 점유가 아닌 즉흥적·가변적·일시적으로 머무는 동안의 점유와 가변적인 접속이 가능해야 함 • 사건의 발생과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미확정적·개방적 공간프로그램

<그림 5> 노마디즘 공간의 특성 요건 요약

주요어 : 현대 공간, 노마디즘적 관점, 비교정성, 장소론, 장소 재해석

학 번 : 2014-30419

목 차

1. 서론	22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3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7
1.2.1. 연구 방법	27
1.2.2. 연구 범위	28
1.3. 용어 정의 및 범례	30
1.3.1. 개념 및 용어 정의	30
1.3.2. 범례	35
1.4. 연구 구조	36
2. 공간 개념의 변천	38
2.1. 공간 인식의 변천 과정	39
2.1.1. 근대 이전의 공간 개념	39
2.1.2. 근대의 공간 개념	42
2.1.3. 근대 이후의 공간 개념	46
2.2. 공간의 재인식	49
2.2.1. 공간 개념의 재인식_절대적, 상대적, 관계적 공간	49
2.2.2. 2000년대 이후 현대 공간의 재인식	54
3. 공간의 고정성 개념으로의 장소론	58

3.1. 장소 이론 분석	59
3.1.1. 장소 이론의 대두	59
3.1.2. 장소 이론의 관념적 배경	68
3.1.3. 장소 연구의 흐름	72
3.1.4. 학자별 관점 분석	76
3.2. 장소론을 통한 장소 특성 도출	110
3.3. 소결	115
 4. 공간의 비고정성 개념으로의 노마디즘	118
4.1. 패러다임의 변화	119
4.2. 현대 노마디즘 패러다임의 배경	125
4.2.1. 현대 노마디즘의 개념	126
4.2.2. 기술-정보적 배경	128
4.2.3. 사회-문화적 배경	135
4.3. 현대 노마디즘의 이해	146
4.3.1. 철학적 사유로서의 노마디즘	146
4.3.2.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	156
4.4. 노마디즘 관점에서의 현대 공간	161
4.4.1. 노마디즘과 관계적 공간 개념	161
4.4.2. 노마디즘 관점에서의 현대 공간 사용 양상	164
4.5. 소결	174
 5. 노마디즘 관점에서의 장소 해석	178
5.1. 노마디즘 관점으로 본 공간의 비고정성 개념으로의	

장소론의 한계	179
5.1.1. 현대 노마디즘의 특성과 전통적 장소의 고정적 특성 비교	179
5.2. 노마디즘의 공간적 해석	181
5.2.1.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 도출 종합	182
5.3.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 요건 제안	183
6. 결론	192
6.1. 연구 결과 요약	193
6.2. 연구의 함의 및 제언	201
참고문헌	202
Abstract	211
감사문	219

표 목 차

<표 1> 노마디즘의 공간적 특성 도출	06
<표 2>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	08
<표 3> 패러다임의 전환과 공간 개념의 변화	48
<표 4> 공간의 장소의 학자별 개념차이	62
<표 5> 장소론 관련 용어	68
<표 6> 렐프의 공간 분류	79
<표 7> 경험에 따른 렐프의 장소 정체성 유형	83
<표 8> 무장소성의 표출 형태	86
<표 9> 불노의 체험 공간 특성	94
<표10> 거주성의 특성	97
<표11> 숄츠의 공간 분류	99
<표12> 숄츠의 실존적 공간의 구조	105
<표13> 학자별 관점으로 분석한 장소의 특성	114
<표14> 학자별 노마디즘 개념	128
<표15> 인류사의 3대 혁명	129
<표16> 디지털 문화의 탈근대화 현상	133
<표17> 네트워크	134
<표18> 가족의 형태별 분포	144
<표19> 점과 선의 사유 비교	148
<표20> 정주와 유목 개념 비교	150

<표21> 제 3의 공간 분류	166
<표22> 노마디즘의 특성 도출	175
<표23> 노마디즘의 공간적 특성 도출	177
<표24> 현대 노마디즘의 특성과 전통적 장소의 고정적 특성 비교	181
<표25> 현대 공간 사용 양상에 적용한 노마디즘 공간 특성 요건 ·	185
<표26>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	197

그 립 목 차

<그림 1> 고대에서 현대까지 공간 개념과 인식 변화	03
<그림 2> 현대 노마디즘의 공간적 특성 도출 체계	05
<그림 3> 노마디즘의 공간적 특성 도출 과정 종합	07
<그림 4> 20세기 공간과 노마디즘적 공간	09
<그림 5> 노마디즘 공간의 특성 요건 요약	11
<그림 6> 연구 배경과 목적	27
<그림 7> 연구 범위	30
<그림 8> 연구의 구조	36
<그림 9> 공간 개념의 변화와 특징	44
<그림10> 20세기 건축 공간 인식과 개념 변화 (근대까지)	46
<그림11> 20세기 건축 공간 인식과 개념 변화 (근대 이후)	48
<그림12> 고대에서 현대까지 공간 개념과 공간 인식 변화	51
<그림13> 공간의 장소화	63
<그림14> 장소와 관련된 공간의 범주화	64
<그림15> 장소 이론의 학제별 연구	74
<그림16> 렐프의 장소 정체성 구성 요소	81
<그림17> 투안의 경험적 관점 도식화	89
<그림18> 직립한 인간 신체, 공간, 시간	90
<그림19> 장소의 고정적 특성	116
<그림20> 노마디즘 개념을 포함한 21세기 패러다임	125

<그림21> 인구 대비 디지털 네이티브 비율 2013년	132
<그림22> 성별 일평균 여가시간	141
<그림23> 합계출산율	142
<그림24> 가족 형태별 분포	143
<그림25> 사건에서 배치까지의 단계	153
<그림26> 이용 목적에 따른 카페 공간 사용	169
<그림27>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모델	173
<그림28> 현대 노마디즘의 공간적 특성 도출 체계 중 사유와 현상 으로 현대 노마디즘 특성 도출 단계	174
<그림29> 현대 노마디즘의 공간적 특성 도출 체계 현대 노마디즘 특성 도출 단계	176
<그림30> 노마디즘의 공간적 특성 도출 과정 종합	183
<그림31> 20세기 공간과 노마디즘적 공간	184
<그림32> 노마디즘 공간의 특성 요건 요약	195
<그림33> 노마디즘의 공간적 특성 도출 과정 종합	200
<Figure1> The Interpretation System for Identifying Spatial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Nomadism	214
<Figure2> Spatial Characteristics of Nomadism	215
<Figure3> The Twentieth Century Space and the Nomadism perspective Space	216
<Figure4> A Summary of the Characteristics of Nomadism perspective Space	218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방법 및 범위

1.2.1. 연구 방법

1.2.2. 연구 범위

1.3. 용어 정리 및 범례

1.3.1. 개념 및 용어 정의

1.3.2. 범례

1.4. 연구의 구조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는 발전한 인간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공간과 그 안에서 그가 체험하는 모든 의미 있는 사건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공간은 그 특성과 배열, 질서라는 고유의 성격을 고려할 때 거기서 살고 체험하고 관계를 맺는 주체의 표현 방식, 입증 방식, 실현 방식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공간은 그 안에서 사는 존재에 따라, 또 그 공간에서 진행되는 삶에 따라 다른 공간이 된다. 공간은 그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변하고, 그 순간 자아 전체를 지배하는 특정 견해와 지향에 따라 달라진다.”³⁾

-뒤르크하임-

공간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여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다. 공간은 고대에서부터 철학, 수학 등에서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었으며 시대에 따라 그 개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원론적으로 인간과 공간을 따로 놓고 공간 자체에 집중하던 시대를 넘어서면서 공간은 그 고유의 추상성 외에 실재성을 갖게 된다. 공간과 인간의 관계, 즉 공간을 경험하는 주체인 인간과 그 인간의 경험을 담은 생활세계로써 관계를 맺는 공간은 1970년대에 장소로 개념화되었다. 장소는 정주적 사고와 생활 방식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시간의 층위가 쌓인 뿌리 내림과 소속감, 지역과 환경을 고려한 맥락과 역사, 중심과 경계가 명확한 영역성 등으로 대표되는 고정성이라는 특성이 강조되었다.

세계는 이미 정주의 시대를 지나 시공간의 압축 (Time-space compression)⁴⁾의 시대를 살고 있다. 군돌라 앵리슈 G. Englisch는 “산업시대가

³⁾ Graf K. von Durckheim, 1932, *Untersuchungen zum gelebten Raum*, Neue Psychologische Studien, 6. Bd. Munchen, pp.389~390. (볼노, 2011, 재인용, pp.20~21)

막을 내리면서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계화, 디지털화, 가상 세계화, 개인화라는 개념들이 기존의 경계를 무너뜨린 새로운 지평선을 활짝 열게 되었다. 인류가 역사상 일찍이 지금처럼 유동성이 요구되고 장려된 적이 없었다.”⁵⁾고 말하기도 했다. 20세기 후반 이후의 급격한 기술-정보,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전반에서 고정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 대한 선호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고정적 패러다임의 영향은 정주적 사고와 삶에 맞춰진 기존의 장소들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요구는 새로운 공간의 개념 정립에 선행되어 이미 공간 사용 양상들로 나타나고 있다. 비고정적 특성을 갖는 현대 사회의 공간은 공간 사용자, 공간 자체의 영역, 공간에 적용되는 시간의 범위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질서체계가 요구된다. 이 질서체계의 정립을 위해서 본 연구자는 노마디즘의 관점으로 비고정성을 바라보고 철학적 사유,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 특성을 도출한 후 이를 공간 사용 양상에 투영시켜 비고정성이라는 추상 개념을 공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의미와 해석이 모호한 현대 공간의 비고정적 특성을 명료하게 조직화하고 체계화한다.

유럽의 철학자, 사회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문화, 심리뿐 아니라 경제와 정치계까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비고정적 패러다임의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빈번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노마디즘다. 처음에는 근대의 개인, 노동,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려는 일련의 탈근대론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던 것이 미래학, 인류학, 문학, 예술 등의 학문분야를 넘어 이제는 일반인들

4) 시공간 압축이라고 해석되는 이 용어는 Time-space compression 또는 space-time compression 이나 time-space distantiation으로도 알려져 있다. 데이비드 하비가 그의 저서에서 최초로 언급한 용어다. Harvey, David, 1990,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Cambridge, MA: Blackwell. 출처: 위키피디아, Time-space compression 검색.

5) 군돌라 엥리슈 G. Englisch, 2002, 『잡노마드 사회』, Jobnomaden (2001), 이미옥 역, 서울: 문예출판사, p.37

에게도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노마디즘이 탈근대론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전반에 불어온 고정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 대한 선호 현상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키워드 중 하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 노마디즘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익숙하게 쓰인 것은 디지털 기기를 가지면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다는 뜻을 강조한 ‘디지털유목민’이라는 광고 문구를 통해서였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노마디즘이란 ICT 기기를 통한 편리한 이동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마디즘은 현시대의 비고정성이라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의미가 있다. 노마디즘은 특정한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삶의 방식을 벗어나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의 철학적 사유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조운경은 그의 논문에서 “이 개념에서는 고정된 중심에서 탈피하여 이동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때 이동이란 물리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영역을 횡단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정신적 이동을 함께 지칭한다.”⁶⁾라고 말했다. “개인의 의식과 정체성,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자유와 같은 철학적 사회학적 의미로의 자유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⁷⁾라는 최향섭의 설명과 “정신적 사회적 감정적 이동은 물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사고의 지평선을 열고자하는 욕구도 포함된다.”⁸⁾는 군돌라 엘리슈의 언급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마디즘은 단순히 디지털 모빌리티를 넘어서는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와 그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사회-문화를 논함에 있어 배제할 수 없는 중심 사상 중 하나이다. 현대 노마드들은 고정된 질서와 체계, 의식을 거부한다. 그들은 자유로운 사유의 흐름을

6) 조운경, 2006, “현대 문화에 있어서 노마디즘과 이동성의 의미-Attali와 Maffesoli의 논의를 중심으로”, 불문학연구 제 66집, Vol.66, p.326

7) 최향섭, 2008, “노마디즘의 이해: 들뢰즈와 마페졸리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통권 12집, p.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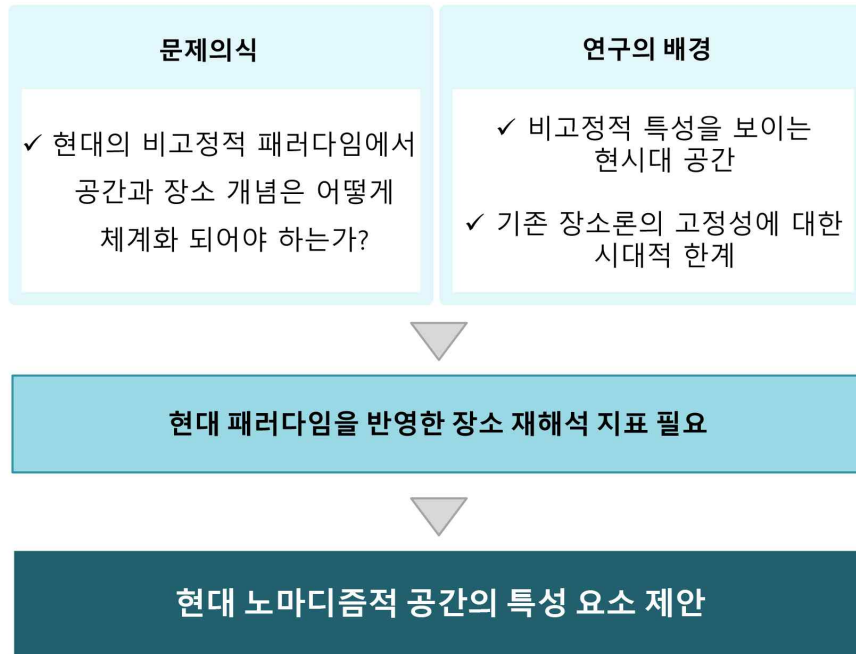
8) 군돌라 엘리슈, 2002, 앞의 책, p42

따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이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이를 현대 사회 전반에 반영한 공간 사용 양상으로 이미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시대의 사유체계와 생활 방식에서 볼 수 있는 자유롭고 비고정적인 상태에 대한 선호 현상을 노마디즘 관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직화한 특성으로 도출하고 이를 현대 공간 사용 양상에 투영시켜 공간 특성 요건으로 제안한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전통적 장소 개념의 특성들 중 정주적 생활 방식과 사고체계의 영향을 받은 장소의 고정성이라는 한계를 보완하여 노마디즘 시대에 맞는 현대적 장소 만들기를 위한 지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과 그 안에서 체험하는 모든 의미 있는 사건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⁹⁾는 뒤르크하임의 말처럼 우리는 현시대의 상황과 흐름을 반영하는 장소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그에 맞는 실천들을 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공간은 그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와 존재들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 만들어지던 전통적 장소의 시대와 달리 공간 사용자, 공간 자체의 영역, 공간에 적용되는 시간의 범위 모두에서 비고정적 특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질서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⁹⁾ Graf K. von Durckheim, 1932, 앞의 책, p.389



<그림 6> 연구 배경과 목적

1.2. 연구 방법 및 범위

1.2.1. 연구 방법

2장에서는 공간과 장소의 정의, 공간이 장소화 되는 과정과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여 공간과 장소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고 장소론이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배경도 밝힌다.

3장에서는 장소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화한 인본주의 지리학을 중심으로 장소론을 연구한 학자들의 저서를 통해 그들의 관점과 이론을 분석한다. 이장의 목적은 이들의 이론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장소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중 어떤 특성들이 비고정적 성격을 띠고 있는지 분석해 시대 변화에 따른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4장에서는 사유방식과 현상으로 존재하는 노마디즘을 공간적으로 해석하고 개념화하기 위해 노마디즘 해석체계를 수립하고 이 해석체계에 따라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을 도출한다. 그 과정은 먼저 철학 사유로서의 노마디즘, 사회-문화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을 분석해 노마디즘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현대 공간 사용 양상에 투영시켜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을 도출하는 순서이다.

5장에서는 앞선 3장에서의 장소론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장소론의 특성들 중 시대 변화에 따라 그 한계를 드러낸 비고정성에 대해 논하여 현대 노마디즘적 관점으로 장소를 재해석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또한, 4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노마디즘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미와 해석이 모호한 현대 공간의 비고정적 특성을 명료하게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여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 요소를 제안한다.

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 그들의 이론을 토대로 한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1.2.2. 연구 범위

장소론의 고찰에서 장소론의 범위는 인간 중심으로의 사고와 인식적 측면을 강조하게 된 모더니즘 이후 1970~1980년대 인본주의 지리학을 중심으로, 인본주의 지리학의 관념적 배경이 되었던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한 철학자와 인본주의 지리학자, 건축가의 장소 이론들로 한다.¹⁰⁾ 저서들은 인본주의 지리학자

10) 인본주의 지리학은 '장소'를 최초로 개념화한 학문 분야로 이들의 저서는 건축을 포함한 공간디자인 분야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장소' 혹은 '장소성'으로 대표되는 건축 패러다임의 전개에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장소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인본주의 지리학과 장소의 관계는 1.3.1.개념 및 용어정리에서 다시 언급한다.

에드워드 렐프 Edward Relph의 『공간과 공간상실』과 이-푸 투안 Yi-Fu Tuan의 『공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철학자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Otto Friedrich Bollnow 『인간과 공간』, 건축가이자 철학자 노베르그 쉘츠 C.N.Schulze의 『거주의 개념』, 『실존·공간·건축』 『장소의 혼』, 가스통 바슐라르 Gaston Bachelard 『공간의 시학』을 주 범위로 분석했다.

노마디즘은 현대사회 전반의 현상들을 그 범위로 하나, 특히 기술-정보, 사회-문화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과 실생활세계의 공간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고 노마디즘을 언급한 학자들의 저서 내용을 그 범위로 했다. 학자들의 저서는 철학자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Gilles Deleuze/ F. Guattari, 『천개의 고원』, 경제학자 자크 아탈 Jacques Attali 『호모 노마드』, 미래학자 군돌라 앵리슈 G. Englisch 『잡 노마드』, 사회학자 미셸 마페졸리 Michel Maffesoli 『노마디즘』 등이며 이들의 이론을 연구한 국내외 사회학자들의 논문을 함께 검토하였다.

노마디즘적 관점으로서의 장소 재해석의 범위는 장소론의 여러 가지 특성들 중 비교정성에 대한 부분을 그 범위로 하고,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 (물리적 공간 구축 형태, 공간 프로그램, 공간 구성)중 물리적 공간 구축을 위한 형태 표현법을 제외하고 비물질적인 형성 요건인 공간 프로그램과 공간 구성방식을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는 특성 요건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공간’의 범위는 가상현실 공간이나 디지털 사이버공간을 제외한 신체가 경험할 수 있는 실재적 공간으로 한다.

공간	신체가 경험할 수 있는 실재적 공간
장소론 분석	현상학을 기저로 하는 인본주의 장소이론
관점	현대 노마디즘
장소 재해석	장소이론의 비고정성 범위 내, 공간 구축을 위한 물리적 형태 표현 방법이 아닌 현대공간 형성을 위한 비물질적 특성 요건 제안

<그림 7> 연구범위

1.3. 용어정의 및 범례

1.3.1. 개념 및 용어 정의¹¹⁾

- 장소 (Place)

장소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명사로 더 많이 사용된다. 장소는 상대적이고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유형화하기 어렵고 그 자체로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공간의 개념과 비교하여 그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장소와 관련된 공간의 개념을 범주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¹¹⁾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내용은 용어 정리 부분에서 설명하였고 그 외에 장소에 관한 개념적 설명이 필요한 이론들에서 발생한 특정 용어들은 3.1.1에서 다루었음.

아직 의미를 갖지 못한 곳을 공간이라 한다면 ‘의미’가 부여된 공간을 장소라 할 수 있다.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공간은 장소를 위한 여건을 제공하지만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의미는 특정한 장소로부터 얻는다.”¹²⁾

- 인본주의 지리학 (humanistic geography)

지리학을 구성하는 2대 분과인 자연지리학 (Physical Geography)과 인문지리학 (Human Geography) 중 인문지리학에 속한다. 인본주의 지리학은 실증주의적이고 공간 과학적 연구 풍토를 비판하고 이러한 풍토에 반(反)한 인문지리학자들에 의해 1970년대 활발하게 발전되었다. 인본주의 지리학은 과학적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현상학과 실존주의에 토대한 이론을 수용하여 인간을 지리학의 중심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핵심 주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인본주의 지리학자로 장소에 대한 여러 저서를 쓴 이-푸 투안(Yi-Fu Tuan)이 ‘인본주의 지리학’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다. 인간을 중심에 둔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은 장소를 개념화¹³⁾하였고 이는 기능주의와 인간소외라는 모더니즘 건축의 한계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보였던 건축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장소성으로 대표되는 건축 패러다임으로 전개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건축을 포함한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장소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장소성 회복이나 장소성 형성이라는 주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전통적 장소

본 논문에서 연구자가 사용한 ‘전통적인 장소’의 의미는 노마디즘 관점을 통해 현대적으로 해석된 장소와 비교되는 과거 장소론에서 개념화된 장소를 가리킨다. 이 장소 개념은 1970년대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어

12) 장소를 개념화한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의 정의로 자세한 내용은 3.1. 장소론 분석 참고

13) 팀 크레스웰, 2015, 앞의 책 참고

개념화되었고 건축가들에게 적극 수용되어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정주적 사고와 생활 방식이 당연했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시간의 층위가 쌓인 뿌리 내림과 소속감, 지역과 환경을 고려한 맥락과 역사, 중심과 경계가 명확한 영역성 등으로 대표되는 고정적 특성이 강조되었던 장소이며 본 논문에서 이를 ‘전통적 장소’ 혹은 ‘기존 전통적 장소’라 칭하였다.

• 노마디즘적 공간

본 논문에서 연구자가 사용한 ‘노마디즘적 공간’의 의미는 노마디즘의 특성으로 현대의 다양한 공간 사용 양상을 바라보고 도출한 비교정적 특성들을 가진 현대 공간들을 말하는 것이다. 노마디즘적 공간은 공간 사용자, 공간 자체의 영역, 공간에 적용되는 시간의 범위에서 과거와는 다른 각각의 구체화된 특성을 갖는다.

• 노마디즘적 관점

본 연구에서 ‘노마디즘 관점’이란 현대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현상의 주도적 패러다임이 단순히 이동성이 강조된 (mobility)를 넘어 조운경의 말처럼 “기존 영역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정신적 이동을 함께 지칭”¹⁴⁾하며 개인의 의식과 정체성,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자유와 같은 철학적 사회학적 의미로의 자유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광의적 노마디즘 관점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의 새로운 장소는 절대적, 상대적 공간 개념의 범위를 넘어 관계적 공간 시대로의 공간 변천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관점으로 노마디즘을 택하였다.

¹⁴⁾ 조운경, 2006, 앞의 책, p.326

- 장소성 (Placeness)

장소성이란 장소의 정체성을 가진 어떤 속성을 표현한 말로 장소 이론의 다양한 개념들 중 건축 분야에서 대표적인 패러다임으로 나타나게 되어 현재까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장소성은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장소에 의미와 질서로 구체적 성격을 부여하려 하는데 그것은 곧 장소성의 형성을 의미한다. 그런 장소의 성격은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사건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공간의 질서 및 특성 그리고 시간의 층위 등에 의해 형성된다. 예를 들어 장소와 관계된 여러 개념을 정립했던 인본주의 지리학자들 중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라는 장소성의 형성 요건을 개념화한 렐프에 의하면 “물리적 환경은 표면적이고 관찰 가능한 인간 활동의 배경이 되고, 인간 활동에 의해 보완되며,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데 각 요소들은 다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장소성을 형성한다”¹⁵⁾는 것이다. 장소성은 인간의 장소에 대한 정체성(identity with place)과 깊은 관계가 있고 하나의 장소에 대해 집단의 공통된 인식과 의미를 가질 때 형성된다.

- 장소상실/무장소 (Placelessness)

장소가 정체성을 잃었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를 장소상실 혹은 무장소 (Placeless)이라 표현하는 현상은 현재 공간디자인 분야에서는 보편화되었는데 이 용어가 탄생한 것은 에드워드 렐프의 저서 『장소와 장소상실』 *Place & Placelessness* (1976)에서다.

- 노마드_유목민 (nomad)

15) 에드워드 렐프 Edward Relph, 2016, 『장소와 장소상실』, *place and placelessness*(1976),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서울: 논형 참고

노마드의 사전적 의미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유랑자'를 뜻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가 그의 저서 『차이와 반복』 *Différence et répétition* (1968)에서 노마드의 세계를 언급하면서 현대 철학의 개념으로 자리 잡은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광고문구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디지털 기기를 즐겨 이용하는 자유로운 사람을 칭하는 단어로 익숙하게 쓰였으나 실제로 그 범위는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자유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그의 저서 『21세기 사전』 *Dictionnaire 21e siècle* (1998)에서 유목민은 21세기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유목주의가 사회를 지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노마디즘_유목주의 (nomadism)

유목주의라 번역되는 노마디즘은 한 곳에 뿌리내려 머무르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공간적인 이동의 유목적인 생활방식 뿐 아니라 특정한 삶의 가치나 방식에 머무르지 않는 유목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노마디즘은 들뢰즈의 철학적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현대사회의 문화·심리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 등으로 폭넓게 쓰인다.

• 네오 노마디즘 (néo-nomadisme)

사전적으로는 '새로운 노마디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목 시대의 노마디즘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노마디즘의 광의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현대 노마디즘과 같은 말이다. 특히 물리적, 디지털적, 심리적 이동을 하는 개인들의 유목주의를 주장하는 프랑스의 건축가인 야스민 아바스 (Yasmine Abbas)가 그의 저서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

1.3.2. 범례

본 연구의 주, 서지 표기법은 CMS(The Chicago Manual of Style)의 주 - 서지 양식을 따르고 있다.¹⁶⁾ 그러나 좀 더 자세한 정보의 표기를 위해서 페이지 표기 앞에 p 혹은 pp을 추가 하였으며, 한글 번역서의 경우 원서의 이름을 추가 하였다.

예)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Robert S. Root-Bernstein 미셸 루트번스타인 Michele M. Root-Bernstein, 2007, 『생각의 탄생』 *Spark of Genius* (1999), 박종송 옮김, 서울: 에코의 서재, p. 22.

¹⁶⁾ 출처 : 박창원 외3인, 2012, 『논문작성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 200.

1.4. 연구의 구조



<그림 8> 연구의 구조

2. 공간 개념의 변천

2.1. 공간 인식의 변천 과정

2.1.1. 근대 이전의 공간 개념

2.1.2. 근대의 공간 개념

2.1.3. 근대의 이후의 공간 개념

2.2. 공간의 재인식

2.2.1. 공간 개념의 재인식_절대적, 상대적, 관계적 공간

2.2.2. 2000년대 이후 현대 공간의 재인식

2. 공간 개념의 변천

2.1. 공간 인식의 변천 과정

공간은 단일 계의 물리적인 상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비어있다는 관념적 상태로 존재하기도 하며, 인간의 감각을 통해 지각된 인지적 상태로 존재하기도 한다.¹⁷⁾ 공간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물리적 상태로만 존재하던 전통적 공간관념의 질서로부터 지각된 인지적 상태로까지 그 범위가 발전되었다.

2.1.1. 근대 이전의 공간 개념

2500여 년 전 노자(老子)는 이미 대립개념을 떠는 철학적, 현상학적인 기초 원리를 구축했는데 『도덕경』의 구절들¹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진흙 덩어리로 그릇을 만든다. 그릇을 쓸모 있게 하는 것은 그릇 내부의 빈 공간이다”

“우리들은 방을 위해 문과 창을 만든다. 그 방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방의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다.”

“그러므로 형체가 있는 것은 이로움을 지니지만 형체를 쓸모 있게 만드는 것은 무형(無形)의 것이다.”

-노자(老子)-

¹⁷⁾ 권영걸 외 4인, 2011, 『공간디자인 하기·공간디자이너 되기』, 서울: 날마다, p.92

¹⁸⁾ 노자 老子 『도덕경』 *Tao Te Ching*, J.C.H.우 역, 세인트 존 대학교 출판부, 뉴욕, 1961년 간행된 11장 ‘무용(無用)’ 참조 (반 드 벤, 1998, 재인용, p.16)

“그의 책 『노자』의 1장에서는 실재(實在:Being)와 비 실재 (非實在: Non Being)의 하나의 개념으로 결합했다.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원리는 현대 공간미학에 중요한 구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11장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두 원리의 초월에 대해 담고 있는데 이는 공간 속에 담겨진 공간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 비 실재는 재료의 형태적인 면에서 유형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본질이라 말한다. 내부의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지각할 수 있는 상대적 매스보다 한층 더 본질적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19세기 말까지 공간의 존재만이 건축의 본질이라고 제창되었던 것이 20세기 데 스틸(De Stijl) 운동¹⁹⁾을 통해 서양에서 인정되었다.”²⁰⁾

서양에서 공간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은 플라톤(Platon)이었다. 플라톤의 이론은 저서 『티마이우스-Timaeus』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실재만을 진실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는 공간이란 유한한 세계의 제한된 요소들이 수학적으로 규정된 비례에 의해 서로 결합된 것이라고 했다. 플라톤은 모든 물질적인 대상을 입체로 표현하였다. 그는 또한 우주의 비례체계가 건물의 비례를 규정하는 원칙으로 해석²¹⁾했는데 이는 르네상스 시대에 서양 건축이론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르네상스 건축가들은 플라톤처럼 크고 작은 질서체계의 일치에 매혹되었는데 이는 세계를 창조한 신성한 우주와 인간의 일치라 여겼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유한한 기하학적인 전체를 구축함으로써 잘 알 수 없는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는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다.²²⁾

19) 데 스틸(De Stijl) 운동에서는 매스의 고체성을 비물질화 시키려 유도했으며 공과 허를 통해 공간을 설명하는 노자의 사상을 인정하게 된다.

20) 반 드 벤 Van de Ven, 1998, 『건축 공간론』, *Space in architecture* (1980), 정진원, 고성룡 역, 서울: 기문당, pp. 16~18

21) 루도르 위트코어 Rudolph Wittkower, 1949, *Architectural Principles in the age of Humanism*, (반 드 벤, 1998, 재인용)

유클리드(Eukleides)는 플라톤의 기하학적인 공간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는 균질하고 무한한 것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차원의 하나가 공간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유클리드의 기하학은 그 후 17세기 데카르트, 뉴턴, 칸트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공간이란 모든 장소(토포스Topos)²³⁾의 총화로 해석했다. 공간을 균질적이고 무한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공간은 경계를 가지는 유한한 것이라고 정의하며 공간을 에워싸는 움직이지 않는 경계를 장소라고 하였다. 공간 내부에서 부분과 종류를 구별했고 후에 그것을 위-아래, 앞-뒤, 오른쪽-왼쪽으로 나뉜 방향이라 불렀다. 그는 인간의 몸에 의해 주어진 좌표계로 공간을 분류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인 장소(토포스Topos)이론에 대한 개요를 그의 저서 『물리학 (Physics)』 제 4권에서 발표했는데 각 물리적 요소가 향하는 경향이 있는 적절한 위치인 -소속되는 장소- ‘where’로서 토포스(Topos)²⁴⁾라는 개념이 그것이었다.

22) 반 드 벤, 1998, 앞의 책, pp.23~28

23) 이현재는 그의 논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공간(space)이라는 용어 대신 장소(topos, pla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관해 이는 엠피리쿠스의 해석을 인용해 설명하였다. 엠피리쿠스에 의하면 공간은 “모든 물체가 비어있을 때 허공(kennon)이라 불리고, 한 물체가 그것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장소(topos)라 명명되고, 물체들이 그것 안에서 배회할 때 그것은 코라(chora)가 된다.” 출처: A.A. Long & D. N. Sedley, The Hellenistic Philosophers I, Cambridge:Cambridge Uni. Press, 1987, p.28. 이상봉, "서양 고대 철학에 있어서 공간", 『철학논총』 제 58집, 2009. 20 4권, p.295 (이현재, 2012, 재인용, p.227). 볼노는 그의 저서 『인간과 공간』 pp.31~33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그리스어 토포스 topos에 대한 독일어로 장소에 해당하는 ‘Ort’로 번역한 것 대해 언급했다. 토포스는 장소, 위치, 자리를 뜻하고 저작자에 대해 말할 때는 인용문의 출처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사이 공간, 여지, 구간의 뜻을 가진 공간에 해당하는 ‘Raum’으로의 번역했을 때의 문제점을 비껴간다 해도 이는 정확히 장소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골케도 “토포스는 장소와 공간을 함께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에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밝혔다는 것을 각주로 언급했다.

24) 근대 이후에 등장한 장소론은 플라톤적인 르네상스 공간사상에 의해 억제당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 개념의 복권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장소 개념 (concept of place)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장소(토포스 Topos)개념의 부활이라고 말하기에는 두 개념 간의 차이가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소속되는 장소-‘where’로서 토포스(Topos)개념의 출처: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토포스는 용기(容器)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무언가를 둘러싸는 물체의 경계 혹은 둘러싸는 도구의 외피라고 규정한다.²⁵⁾ 볼노는 그의 저서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관에 대해 언급했는데 공간이란 항상 경계 지어져 있고 내부가 존재하므로 채워진 빈 곳이며 그런 의미에서 공간은 필연적으로 유한하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채워진 공간을 넘어서는 무의 공간에 관해 묻는 것은 경계를 생각하지 않은 무의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도 말했다.²⁶⁾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은 용기로써 무언가를 담고 있기는 하나 물체로서의 용기가 아닌 용기의 경계 “(limit of containing body)”²⁷⁾로 물체와는 다른 독립적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2.1.2. 근대의 공간 개념

근대까지의 공간 개념은 과학과 철학 분야에 의해 형성되었다. 신 중심적이고 형이상학적이었던 근대 이전의 공간 개념은 17세기 뉴턴(Isac Newton)의 과학혁명에 의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뉴턴은 이원론적인 물리적 공간 개념에 따라 균질하고 무한하며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 공간(absolute space)과 그 공간을 측정하는 좌표계로 표현하는 상대적 공간(relative space)으로 분류하였다. 이로써 뉴턴의 이론은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부여한 것이다. 그는 이 두 공간 중에서 정적이며 3차원적인 절대적 공간에 우위를 두었다. 뉴턴이 말하는 절

텔레스의 물리학 『Aristotle's Physics』, 1961, Richard Hop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Lincoln (반 드 벤, 1998, 재인용)

25) Aristotle, 1956, 『Aristoteles, Die Lehrschriften』 *Physics*, P.Gohlke, p.280 (볼노, 2011, 재인용, p.33)

26) 오토 볼노 Otto Friedrich Bollnow, 2011, 『인간과 공간』, *Human space* (1963), 이기숙 역, 서울: 예코리브르, p.34

27) Aristotle, *Physics*, translated by Robin Waterfield,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211b10. (이현재, 2012, 재인용, p.227, 이현재의 해석 ‘용기의 한계’를 ‘용기의 경계’로 고침)

대적 공간은 외부의 어떠한 것과도 관계가 없고 물체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늘 똑같이 균질적이며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물체들은 어디에 있건 이 공간의 작용을 받는다.²⁸⁾ 이러한 공간 개념은 고전 물리학의 기초적 정립과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공간 개념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²⁹⁾

근대철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데카르트(Ren Descartes)는 “해석적 기하학으로 유클리드 공간을 직교좌표체계를 사용하여 수학적으로 물리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도형의 요소 점, 선 따위는 절대적 시간 속에서 크기와 위치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³⁰⁾

이용재 윤도근은 공간미학의 형성과 변천을 이야기하며 철학적 영향 부분에서 “칸트(Immanuel Kant)는 오직 순수이성에 근거한 선험적인 직관을 통해서 공간에 무한한 성격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공간 개념은 뉴턴의 절대적 공간 개념을 확장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³¹⁾라고 언급했다. 임진아 또한 그의 공간 개념은 뉴턴의 절대공간 개념과 유사하다고 말했으나 그것과 다른 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그의 저작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시공간이 인간과 독립된 외부 대상이기보다는 인간이 지닌 고유한 능력이라고 보고 있다. 칸트에게 공간이란 “인간이 선천적으로(a priori)가지고 있는 인식의 원리 중 하나”이며 “인간이라는 지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의 성질이 규정되는 것”³²⁾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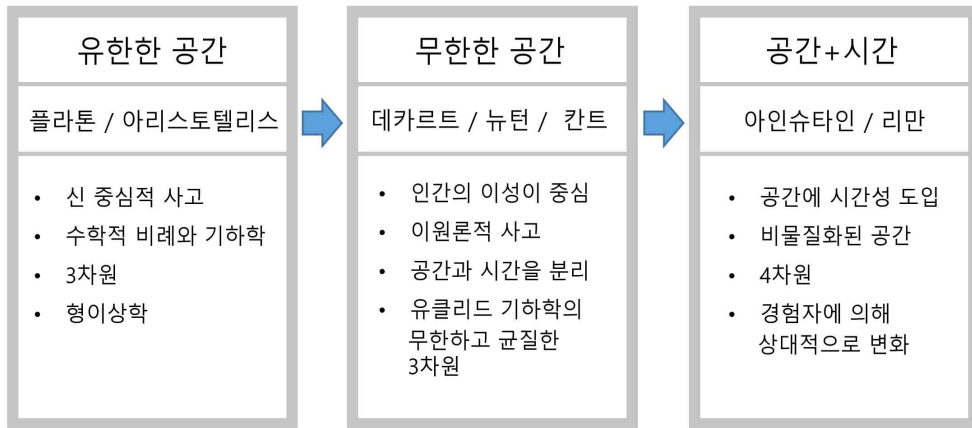
28) 이현재, 2012, “다양한 공간 개념과 공간 읽기의 가능성-절대적, 상대적, 관계적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23권 4호(통권61호), pp.227~228

29) 이용재, 윤도근, 1998, “근대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논문집』 14호 pp.115~116

30) 나인영, 1997, “실내 디자인의 장소성 표현을 위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8

31) 이용재, 윤도근, 1998, 앞의 책, p.116

32) 임진아, 2014, “화이트헤드의 관계적 공간 개념에 대한 비판적 분석”, 『화이트헤드연구』 제28집, 화이트헤드학회, pp.164~165



<그림 9> 공간 개념의 변화와 특징

출처: 김예진, "경험디자인을 통한 실내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인지적 접근에 의한 경험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2007, 가천대학교 석사논문 p.10의 표 재구성 및 보충

19세기까지 사람들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물리적 공간을 충실하게 표현해주었다 믿었다. 그러나 이전의 공간 개념을 더욱 광범위하게 만든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성립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 개념을 세상에 내어놓는다. 특히 시간성이 도입된 19세기 말의 새로운 공간 개념은 건축 미학을 포함한 예술 분야에 도입되어 부각되었다. 공간의 시간성 도입은 절대적 공간에서 상대적 공간으로 공간 인식을 전환시켰다. 시간성이라는 개념이 20세기 초 상대성 이론에 의해 과학적인 증거를 얻게 되고 공간에 얹어지면서 절대적 공간 개념에 갇혀있던 건축 분야에도 시간과 공간의 결합 개념이 반영된 작품들이 새롭게 시도되었다.

건축 분야에서 공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이 되어서였다. 반 드 벤에 (Van de ven) 의하면 19세기 후반 이전까지의 공간은 철학자나 과학자들의 주제에 한정적으로 다루어졌고 그 내용 또한 매우 추상적이었다.³³⁾ 그러다 20세기 초 예술 전반에 걸쳐 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많

³³⁾ 반 드 벤, 1998, 앞의 책, 제 1부 철학과 과학에 있어서의 공간 개념의 양상 참고

은 예술가들이 대거 건축 분야로 이동하였다. 당시 건축은 크게 공간론과 매스론의 두 경향으로 나뉘어 논의되었다. 감정이입을 중요시하던 매스론은 표현주의로 발전하다 쇠퇴하였으나 공간론은 기능주의적인 공간 개념과 미학적(예술적)인 공간 개념으로 다시 나뉘어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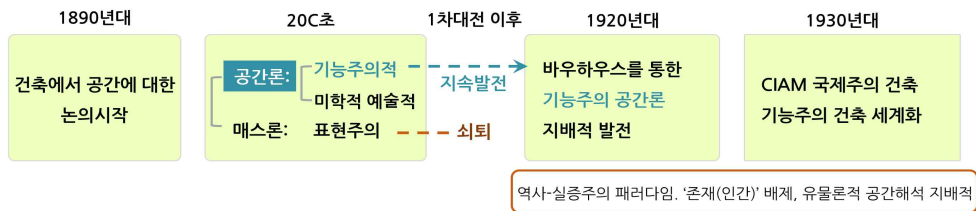
1930년대 이후의 근대건축은 전반적으로 신즉물주의적 경향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기능주의적인 공간 개념과 미학적(예술적)인 공간론 중 유물론을 앞세운 기능주의적 공간론이 국제주의 건축³⁴⁾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기술주의와 과학주의의 시대적 철학 이념의 가치가 그 시대의 건축을 지배적으로 이끌어갔다. 또한 전후 복구 등으로 인한 대중적인 건축 건설의 수요 증가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축 구조 기술 및 건축 재료 기술의 발전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 구조 기술과 재료 기술에 부합하는 보편적인 건축 형태를 위한 미학적인 건축 원리가 근대건축의 5원칙³⁵⁾ 등으로 탄생했는데 이것은 근대 건축을 발전시키는 큰 배경이 되었다. 건축 구조 기술과 재료 기술 발전에 힘입어 이 시대를 이끌어갔던 20세기 근대건축의 거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철학적 사회적 이념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추구하며 근대 건축을 주도해나갔다.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유럽의 부흥을 위해 주거 재건사업이 제일의 시행과제가 되었다.

근대 건축의 패러다임을 형성했던 국제주의 건축은 1950년대 막을 내리기까지 30여 년간 강력하게 지속되었는데 이는 유물론적 사고가 바탕이 된 기능주의 공간론의 지속된 발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이 발터 그로피우스 Walter Gropius의 바우하우스 Bauhaus였다. 초기 공예학교의 성격을 벗어난 것은 1923년부터였다. 장인과 예술가의 수공예 공방과 같은 프로

34) C.I.A.M. 불문:Congres Internationaux d'Architecture Moderne (영문: International Congress for Modern Architecture)로 국제 근대 건축 회의, 국제주의 건축이라고도 함

35) 르 꼬르뷔지에 Le Corbusier의 근대건축 5원칙 ①필로티(pilotis) ②옥상 정원(roof garden) ③자유로운 평면(free plan) ④자유로운 파사드(free facade) ⑤연속적인 수평창(Ribbon Windows)

그램이 전면 개편되면서 예술과 기술의 형태적 통합이 교육 목표가 되었다. 1925년 이후 건축적 공간 개념이 바우하우스의 중심 커리큘럼이 되었고 1928년 바우하우스의 2대 교장 하네스 마이어 Hannes Meyer는 그로피우스의 개편 프로그램에 기능주의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는 건축이 구조적 발명이고 건축의 과제는 기능주의에 바탕을 둔 생활의 현상을 조직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1930년 교장으로 부임한 미스 반 데어 로에 Mies van der Rohe 역시 기능이야말로 이상적인 건축에 이르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미스 반 데어 로에는 1938년 독일을 떠나 지금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의 전신인 아모어 공과대학(Armour Institute of Technology)의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합리주의적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의 교육이념은 유럽과 미국을 넘어 기능주의 건축이 주도하는 세계적인 건축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큰 계기를 만들었다.³⁶⁾



<그림 10> 20세기 건축 공간 인식과 개념 변화 (근대까지)

2.1.3. 근대 이후³⁷⁾의 공간 개념

근대건축의 거장들인 주축이 되었던 CIAM³⁸⁾의 붕괴는 르 꼬르뷔지에, 미

³⁶⁾ 반 드 벤, 1998, 앞의 책, pp.281~293

³⁷⁾ 근대와 현대 건축을 구분하는 시기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2차 대전을 전후로 그 시기를 구분한다.

³⁸⁾ Congres Internationaux d'Architecture Moderne(불문): 국제 근대 건축 회의, 국제주의 건축이라고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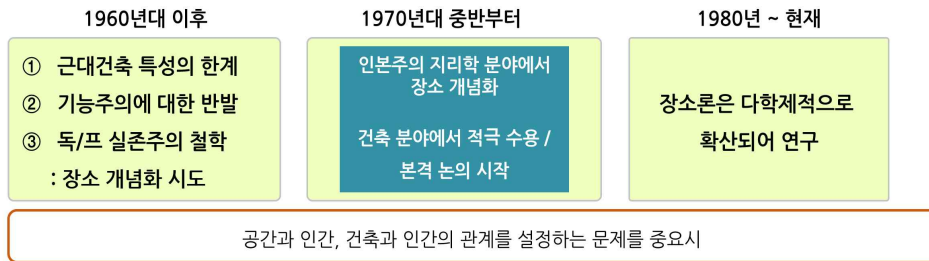
스 반 데로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등의 사망으로 가속화되었다. 더 이상 계보 없는 시대로의 국면에 접어든 근대 직후의 건축은 2, 3세대³⁹⁾ 건축가들에 의해 과도기적으로 전개되어 브루탈리즘(Brutalism), 포멀리즘(Formalism), 메타볼릭(Metabolism), GEAM⁴⁰⁾, 아키그램(Archigram) 등의 다양한 사조들로 그 전개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보편적이고 균질적 공간 특성으로 인한 공간의 획일성, 소재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건축 자체에 지나치게 집중된 기능주의와 그로 인한 인간 소외 등으로 대표되는 근대건축에 대한 반발은 새로운 건축적 패러다임을 위한 뒷받침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킨 것 중 하나가 장소 이론이다. 장소 이론은 근대의 몰락을 전후해 서서히 대두되었고 1970년대에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개념화⁴¹⁾되었다. 건축 분야에서의 장소 이론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배경은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근대건축의 근본적인 공간 특성에 대한 반발. 둘째, 기능주의 건축에 대한 환원주의적 해석이 부른 인간 소외와 장소 상실. 셋째, 2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등장한 현상학 사상이 그것이다.

39) 필립 드류(Philip Drew) 1920년대부터 근대건축을 이끌었던 거장들을 1세대, 그 거장들의 그늘 아래서 활약했던 세대를 2세대,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에 태어난 건축가들을 3세대라고 칭하였다. 출처: 정영철, 2012, 『근대건축의 흐름』 서울: 도서출판미세움, p. 443 주석

40) Groupe d'Etude d'Architecture Mobile(불문)의 약자로 '이동하는 건축의 연구 그룹'을 뜻함

41) 인본주의 지리학은 1960년대까지 계량혁명과 실증주의적 연구 풍토를 비판하고 이에 반(反)한 인문지리학자들에 의해 1960~70년대 활발하게 발전되었다. 인본주의 지리학은 과학적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현상학과 실존주의에 토대한 이론을 수용하여 인간을 지리학의 중심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핵심 주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 모더니즘 건축의 한계와 기능주의와 인간소외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보였던 건축가들은 장소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장소성으로 대표되는 장소에 관한 건축 패러다임을 전개하였다.



<그림 11> 20세기 건축 공간 인식과 개념 변화 (근대 이후)

<표 3> 패러다임의 전환과 공간 개념의 변화

출처: 박경윤, “렐프의 장소론을 기반으로 한 현대 가로 경관 장소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2009,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80 표 재구성 및 보충

	모던	포스트모던
패러다임 전환	환원주의 분석적 논리적 사고 절대적 진리 결정론적 세계관 자연을 도구로 생각하는 인간중심주의 자연 정복적 태도	전일주의 종합적 맥락적 사고 상대적 진리 유기론적 세계관 생태중 심주의 자연 순응과 화해
공간 개념 변화	공간-시간 공간간 위계 공간 기능의 명확성 독자적&기념비적 구축 내외부의 명확성 경계의 고정성 형태 물질적 실체 중심	공간-시간---시공간 압축 공간간 위상 공간 기능의 결합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내외부의 불명확성 경계의 모호성 프로그램 비물질적 의미&이미지 중심

근대 이후 공간 개념은 그 시대의 과학·철학적 흐름에 맞물려 다양한 분야

에서 변화를 지속하며 발전해왔는데 상대성 이론의 발견에 따른 시간이라는 요소는 근대 이후의 공간 개념의 변화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시간의 층위와 환경과의 맥락 등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갖는 의미가 구축 공간을 완성하여 장소를 형성한다고 언급했던 인본주의 지리학자들과 이러한 장소론과 맥을 같이하여 장소성과 장소 정체성 등을 강조했던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과학적 발견과 현상·실존 철학의 흐름이었다. 이러한 과학적 철학적 흐름은 절대적 공간 인식을 상대적 공간 인식으로 전환하는 배경이 되었다.

디지털 혁명과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 질 들뢰즈의 철학적 사유 또한 현대의 관계적 공간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노마디즘적 공간과 관계가 있는 2000년도 이후 공간 개념의 전환은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2.2. 공간의 재인식

2.2.1. 공간 개념의 재인식_절대적, 상대적, 관계적 공간

서양에서 공간은 상대적 공간 개념이 정립되기 전까지 철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다. 고대에서 16세기 르네상스(renaissance) 시기까지 공간 개념은 어떤 때는 절대적 공간의 방향으로, 또 어떤 때에는 상대적 공간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한편에서는 상대주의적 공간 개념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절대주의 공간 개념이 있어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 간의 대립과 논쟁이 있었다.⁴²⁾

42) 마르쿠스 슈뢰어, Markus Schroer, 2010, 『공간·장소·경계』, *Raume, Orte, Grenzen* (2006), 정인모, 배정희 역, 서울: 에코리브르, pp.29~48의 내용

17세기 이전에는 지금처럼 공간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 지어 나누지는 않았으나 절대적, 상대적, 관계적 공간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과 주장이 존재하였다. 시대 변화에 따른 과학과 철학 사유의 발전은 이러한 이론들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현재에는 공간 개념을 절대, 상대, 관계적 공간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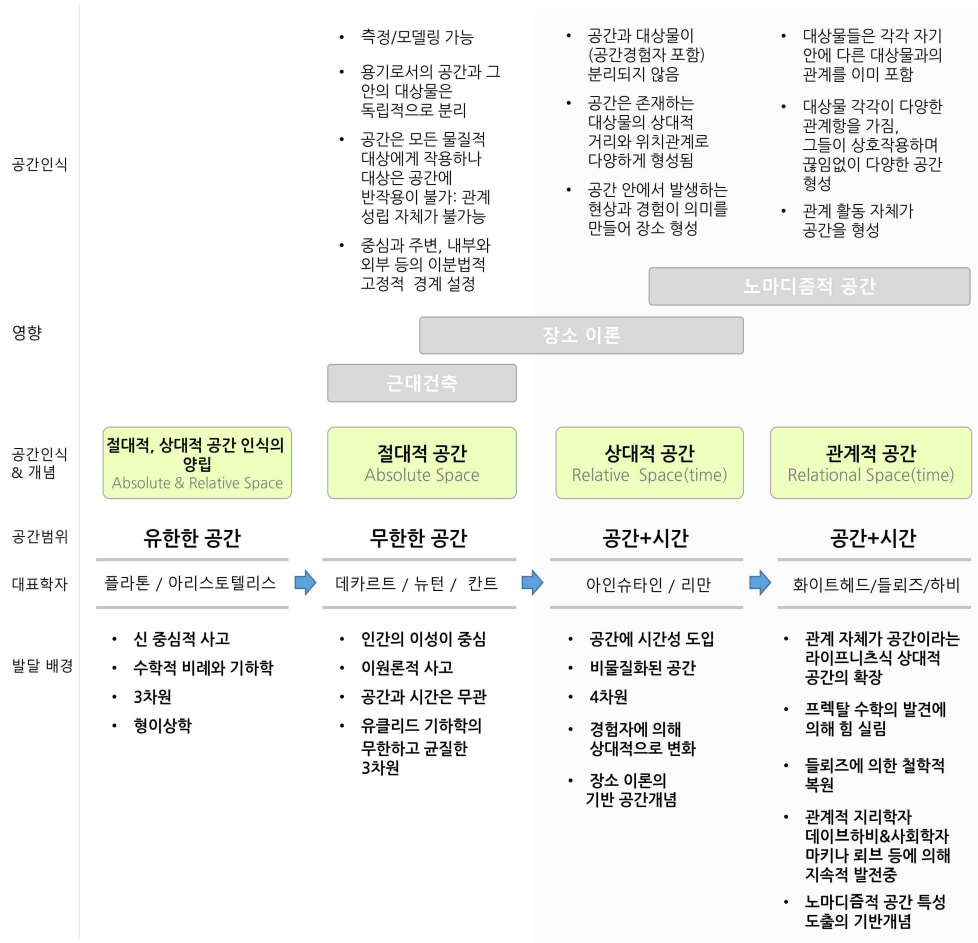
서양 자연과학과 철학의 역사에서 17세기 이후부터는 공간을 절대적 공간과 상대적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외적 영향이나 사물, 공간 속의 물질적 대상, 그리고 시간과 무관하게 분리되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뉴턴으로 대표되는 절대적 공간이라면, 공간은 시간과 더 이상 분리하지 않고 “공간과 물질적 대상이 서로 얽혀”⁴³⁾있는 “물체계의 저장 성질”⁴⁴⁾이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뉴턴의 절대적 공간 개념을 비판한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공간 이론이다. 그리고 절대적 공간과 상대적 공간으로 그 범위가 규정되던 공간은 20세기에 관계적 공간이라는 개념이 추가되면서 또다시 새롭게 재인식되었다.⁴⁵⁾ 절대적 공간, 상대적 공간, 관계적 공간의 개념 구분은 데이비드 하비가 그의 저서에서 언급하며 발전되었다.

“만약 공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공간은 물질과 독립적인 존재를 지닌 ‘물 자체’가 된다. 그렇다면 공간은 우리가 현상들을 집어넣거나 또는 개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게 된다. 상대적 공간(relative space)이라는 관점은 공간이 대상들 사이의 관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오직 대상들이 존재하고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공간을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나는 이를 관계적 공간(relational space) 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라이프니츠의 방식을 따라 이는 한 대상이 자기 안에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이미 포함하고 나타내고 있는 한에서만 그 대상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상들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다” ⁴⁶⁾

43) 마르쿠스 슈뢰츠, 2010, 앞의 책, p.48

44) Einstein, Albert, 1960, “Vorwort”, in: Max Jammer: Des Problem des Raumes, Die Entwicklung der Raumtheorien, Darmstadt, XII-XVII (마르쿠스 슈뢰츠, 2010, 재인용, p.48)

45) 관계적 공간 개념은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비로소 설명이 가능한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광의적 해석으로 데이비드 하비의 말처럼 상대적 공간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림12>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2> 고대에서 현대까지 공간 개념과 공간 인식 변화

외부의 영향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고 공간 내부의 물체로부터도 독립적 고유성을 가지는 것이 공간이라 해석되는 뉴턴의 절대적 공간관을 비판하며 내놓았던 라이프니츠의 상대적 공간 개념이 확대되어 관계적 공간 개념이 발전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로 유클리드식 절대적 공간 사유 방식이 극복되면서 라이프니츠의 상대적 공간 개념 내 관계적 사유 방식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상대

46) David Harvey, 2006, *Social Justice and the City*, (London: Edeard Arnold, 1973), p. 13 (데이비드 하비 David Harvey, 2010,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Space of neoliberalization* (2005), 임동근 외2인 역. 서울: 문학과 과학사, pp.192~193 재인용)

적 공간 개념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재조명되었던 라이프니츠의 이론은 현재의 관계적 공간 표상의 형식으로 주목되었다. “관계적 공간은 상대적 공간이 확장된 것”이라는 하비의 설명은 이러한 이유다.⁴⁷⁾ 라이프니츠는 뉴턴의 공간 개념을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사물의 ‘위치 관계’는 ‘각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서 도출된다. 각 물체의 위치는 다른 물체에 대한 그때그때의 관계, 그러니까 언제나 오로지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⁴⁸⁾ 위치 관계는 라이프니츠의 공간 개념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그의 공간 개념대로라면 “엄격히 말해서 사람들은 ‘이 물체가 이 장소에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이 물체는 다른 물체에서 볼 때 이 장소에 있다’고 말해야 한다.”⁴⁹⁾

상대적 공간이 절대적 공간의 극복으로 인한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 인식되었다면, 이에 비해 관계적 공간은 상대적 공간 개념과 맞대응하기보다 데이비드 하비의 관점처럼 상대적 공간 개념이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관계적 공간 개념은 인간과 관계된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형성되는 현대 공간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공간 패러다임으로 특히 관계적 지리학⁵⁰⁾과 사회학⁵¹⁾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계적 공간이 재조명된

47) “하비는 관계적 공간을 라이프니츠에 기원을 두고 있는 상대적 공간의 일종이라고 설명한다. (...)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공간은 공간 안에서 인식자가 공간을 인식했다면, 하비는 인식자가 자신 안에 내재한 외부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 공간을 인식한다.” 출처: 주용진, 2012, “관계적 공간 개념으로 바라본 예배공간-데이비드 하비의 공간 인식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9

48) 마르쿠스 슈뢰저, 2010, 앞의 책, pp.43~44

49) Weizsacker, Carl Friedrich von, 1990, 『Zum Weltbild der Physik』, Stuttgart (마르쿠스 슈뢰저, 2010, 재인용, p.44)

50) 관계적 지리학은 포스트구조주의 지리학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포스트구조주의 지리학에 대해 사용하는 한 가지 방식은 바로 그것을 관계적 지리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 조나단 머독 (Jonathan Murdoch)은 『포스트구조주의 지리학(Post-structural Geographies)』에서 포스트구조주의 지리학의 핵심은 바로 이 관계성과 관련된 주제라고 했다. 그는 핵심적인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그 현상들이 관련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으며 관계적

것은 20세기 초반 화이트헤드에 의해서다. 라이프니츠의 이론은 1975년 프렉탈 수학의 발견과 철학자 들뢰즈에 의해 과학적 철학적 근거를 가지게 되면서 복원 되었는데 “부분 속에 전체가 포함되는 역설적인 공간”⁵²⁾이 기본이 되는 공간 개념이다.

크레스웰에 따르면 관계적 사유 방식은 각각의 고유한 본질을 가진 정주 공간을 이 장소는 저 장소와 다르다는 방식으로 분절된 사물들의 조합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사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개념이다.⁵³⁾ 이러한 사유 방식은 사물 간의 상대적인 위치와 관계 그리고 연계성을 생각하는 위상학(topology)적 인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관계적 사유에 따른 관계적 공간은 그 관계의 범위를 사람, 사물, 공간, 시간의 연계성을 생각한 조합의 형성으로 확장해 생각할 수 있다.

관계적 공간 개념에 대해 수많은 책과 논문에서 자신의 이론을 펼친 도린 매시(Doreen Massey)는 “공간은 상호관계 속에서 생겨난 산물이고 여러 가지가 결합된 ‘복수성의 영역’이며 ‘항상 과정 중에 있는 또는 생동(becoming)임을 천명’하는데 이것이 관계적 공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⁵⁴⁾ 그는 “공간이 로컬에서 글로벌에 이르는 여러 스케일 간에 그리고 스케일들을 가로 질로 형성되는 상호

접근은 사물들이 연관되는 방식과 이것이 어떻게 관계적 공간을 생산하는지에 대해 우리의 관심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출처: 팀 크레스웰, 2015, 앞의 책, pp.309~310

51) 관계적 공간을 라이프니츠의 공간 개념에 기원을 두는 상대적 공간 개념의 확장이라고 보는 데이비드 하비는 관계적 공간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공간을 절대적, 상대적, 관계적 공간으로 분류하고 “공간을 동시에 세 가지 모두인 것”으로 보았다. 출처: 데이비드 하비, 2010, 앞의 책. 또 어떤 개념으로 공간을 파악할지는 인간의 “실천”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출처:(이현재, 2008, 앞의 책, pp.237~238) 그러나 사회학자 마티나 뢰브(Martina Löw)는 “관계적 배치(relational (An)Ordnung)”에 대한 공간 개념을 주장하면서 관계적 공간 개념 안에서 다양한 공간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출처:(이현재, 2008, 같은 책, pp.239~242)

52) 도승연의 7인, 『현대철학과 사회이론의 공간적 선회』, 2011, 서울: 라움, p.128(심광현, “시공간의 변증법과 도시의 산책자”중)

53) 팀 크레스웰, 2015, 앞의 책 p.309

54) 팀 크레스웰, 2015, 같은 책 p.310

연관성으로부터 생성되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과정으로 만들어질 것임을 주장했다.”⁵⁵⁾

외적 영향이나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러한 것들과 무관하게 분리되어 고유성을 가지는 건축 공간 자체에 집중했던 근대 건축가들이 절대적 공간 인식을 바탕으로 공간을 이해했다면, 현상학을 기반으로 시간의 층위와 환경과의 맥락 그리고 그에 따른 주관적 의미 등이 구축 공간을 완성한다고 언급했던 인본주의 지리학자들과 장소론을 받아들여 장소성과 장소 정체성 등을 강조했다던 건축가들은 상대적 공간 인식으로 공간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자가 현대 공간사용 현상과 양상을 노마디즘 관점으로 설명하며 제시한 노마디즘적 공간은 관계적 공간 인식을 근본 공간 범위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대의 공간은 공간이 용기와 같다고 인식하던 시대와 대상물들 각각이 가진 하나의 연결 향들의 관계로 형성된 상대적 위치와 거리 관계가 공간을 형성한다고 여기던 시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상대적 공간 개념의 확장 개념에서의 관계적 공간 시대에는 하나가 아닌 다양한 연결 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대상물들, 공간, 시간 각각이 비교정적으로 조합 혹은 해체하는 현상과 양상을 보이고 그러한 자체가 공간을 형성하고 비로소 장소를 이룬다.

2.2.2. 2000년대 이후 현대 공간의 재인식

교통 발달과 디지털 혁명, 다원주의, 유기론적 세계관, 통섭의 시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과 같은 20세기 중후반 이후의 급격한 기술-정보, 사회-문화적 변화는 현대의 공간을 사용자, 공간 자체의 영역, 공간에 적용되는 시간의 개념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절대적 공간의 시대와 상대적 공간 시대의 공간 개념은 과학과 철학을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해 왔고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⁵⁵⁾ Massey, D.B., 2005 *For Space*, Sage, London (팀 크레스웰, 2015, 재인용)

나 철학적 사유는 공간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절대적 공간 개념과 상대적 공간 개념이 과학과 철학의 이론을 중심으로 변화해 공간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면 현대의 관계적 공간 개념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철학 사유를 바탕으로 사용자, 시간, 공간이 가진 다양한 관계항들 간의 관계 맺음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의 관계 맺음 방식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공간디자인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 맺음의 방식들이 이전에는 없던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과 장소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공간들은 이미 다양한 공간 사용 양상으로 현대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공간 인식의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인간이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속성에 제한된 상태가 아닌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새로운 영역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의 확장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노마디즘이라는 사회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간 개념과 인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관계적 공간 사유 방식을 가능하게 했다. 관계적 공간 사유 방식은 이 시대의 인간, 시간, 공간이 각각이 가진 다양한 관계항들 간의 결합과 해체 그 자체로 전에 없던 새로운 장소를 형성하게 한다.

유목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광의적 해석이 필요한 현대의 노마디즘은 21세기 현대인들의 사유체계와 생활방식 변화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다. 현대 사회의 노마디즘은 정주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물리적 유목을 뜻하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더욱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군돌라 앵리슈는 “현대 노마디즘에서의 유동성이란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감정적 이동은 물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사고의 지평선을 열고자 하는 욕구도 포함된다.”⁵⁶⁾ 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노마드들은 고정된 질서나 체계, 의식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사유 흐름을 따른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삶에

56) 군돌라 앵리슈, 2002, 앞의 책, p.42

대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비규범적 비위계적 사고를 지향하는 사고는 그 사고방식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시간, 공간, 물체,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생성하는데 이는 절대적 공간이나 상대적 공간 시대에는 없던 새로운 개념의 관계적 공간 시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간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공간 사용 목적을 가진 사용자들로 하여금 혼성적으로 사용할 공간을 필요하게 한다. 또한, 지속적인 공간의 점유나 규정된 공간 사용, 사용자의 순환을 위한 공간이 아닌 일시적 점유나 가변적인 접속에 의한 짧은 경험적 공간 사용 등의 새로운 개념의 공간 체계를 필요로 한다. 이렇듯 관계적 공간의 시대에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축하는 새로운 방법론 연구나 형태론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의 공간 이용 방식, 공간 프로그램의 시간적 범위, 공간 구성의 방식 등의 비물질적인 요소에 대한 현 시대적 공간특성 도출과 공간 구현방식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3. 공간의 고정성 개념으로의 장소론

3.1. 장소 이론 분석

3.1.1. 장소 이론의 대두

- 1)공간에서 장소로
- 2)장소
- 3)장소관련 용어 및 개념

3.1.2. 장소 이론의 관념적 배경

- 1)현상학적 사고
- 2)실존적 기반

3.1.3. 장소 연구의 흐름

- 1)장소 이론의 등장
- 2)장소의 이론적 접근 방향
- 3)공간 개념과 장소

3.1.4. 학자별 관점 분석

- 1)에드워드 렐프_장소와 장소상실
- 2)이-푸 투안_공간과 장소
- 3)오토 프리드리히 볼노_인간과 공간
- 4)노베르그 슐츠_거주의 개념, 실존·공간·건축, 장소의 혼
- 5)가스통 바슐라르_공간의 시학

3.2. 장소론을 통한 장소 특성 도출

- 1)중심성/영역성
- 2)시간성/맥락성
- 3)상징성
- 4)정지성
- 5)체험성
- 6)정체성

3.3. 소결

3. 공간의 고정성 개념으로의 장소론

3.1. 장소 이론 분석

‘장소’라는 단어는 많은 차이를 감추고 있다. 그중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장소가 대상(사람이 바라보고, 연구하고, 기술하는 사물)이면서 동시에 보는 방식이라는 점일 것이다. 세계를 어떤 식으로든 서로 분리되어 있는 장소들의 집합으로 바라보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정의하는 행위(존재론)이자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고 인식하는 방식(인식론과 형이상학)이다.⁵⁷⁾

이 장에서는 현상학적 관점⁵⁸⁾이라는 큰 사상적 배경 안에서 장소를 다루었던 다양한 학자들의 장소에 대한 관점과 이론을 그들의 저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장의 핵심은 이들의 이론을 통해 전통적인 장소 개념의 특성을 도출하고 그 특성 중에서도 장소론에서 보이는 고정적 특성을 노마디즘 시대의 한계점이라 전제 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3.1.1. 장소 이론의 대두

1) 공간에서 장소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space)이라는 단어는 장소(place)와

57) 팀 크레스웰 Tim Cresswell, 2012, 『장소: 짧은 지리학 개론』, *Place: a short introduction* (2004), 심승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p.24

58) 인간의 의식과 생활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장소에 관한 연구는 과학적이거나 실증적인 논리 보다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적 연구로 유럽의 철학에 영감과 영향을 크게 받았다. 현상학, 실존주의는 장소론의 관념적 기반이며 이에 인지적 측면으로의 접근보다 경험에 초점을 맞춘 학자들을 연구의 중심으로 삼는 일은 본 연구에서 당연한 일이었다.

명확한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차이를 나누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공간과 장소는 공간디자인, 건축, 조경, 도시계획, 지리학, 문화인류학, 인간학, 사회학, 철학의 다양한 학제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명확히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소절의 내용은 철학자나 과학자들의 거대 담론인 공간을 본질적으로 파헤치자는 것이 아니다. 장소론이 정립되었던 시기의 근본 공간범위를 알고 공간과 장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본 논문의 진행에 있어 혼돈이 없고자 함이다. 또한, 장소와 공간과의 차이를 개념적, 맥락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간은 장소를 위한 어떤 여건은 제공할 수 있지만 의미는 부여
할 수 없다. 어떤 특정한 장소로부터 만이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에드워드 렐프 Edward Relph-

공간은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을 말하는 것으로 물질적인 대상이나 사건들을 담아 물 체계를 성립시키는 기반의 역할을 한다. 이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거나 의미가 부여된 장소 이전의 개념으로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제공되어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을 말한다.

공간의 한자적 어의를 보아도 ‘空 빌 공’ 에 ‘間 사이 간’ 을 쓰고 있는데 비어있는 곳에 모든 존재를 담고 공간 속 대상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담는 컨테이너⁵⁹⁾와 같은 의미로 인식하는 물리적, 수학적, 기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⁶⁰⁾

볼노는 공간과 장소를 대비되는 개념의 단어로 사용하지 않았다. 공간을 가

59) 공간을 컨테이너로 보는 관점은 공간을 용기로 보는 절대적 공간 개념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현상학이라는 사유적 배경을 가진 장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대는 상대적 공간 개념이 다양하게 수용되던 시기지만 절대적 공간 개념 또한 공존했다고 할 수 있다.

60) 전중환, 『인문지리학의 시선』, 2012 서울: 사회평론, p.33

장 우위에 놓고 그것을 수학적 공간과 체험공간으로 나누어 구별했다. 우리가 현대 물리학적으로 이해하는 균질적이며 무한대로 뻗어나가며 가치중립적인 공간은 수학적 공간이며 인간의 삶과 연관되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현실의 장이다. 즉 중점과 축의 체계가 있고 풍부한 내용적 분절이 있으며 인간을 위한 의미를 가지며 인간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을 체험적 공간으로 분류한다. 불노의 체험적 공간은 장소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는 체험적 공간 안에 장소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장소가 포함된 체험적 공간을 강조한다.

“렐프는 공간이 추상적, 기능적, 물리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장소는 구체적, 해석적, 미학적인 성격을 지닌다.”⁶¹⁾고 설명하며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아무 의미를 갖지 않았던 공간에서 인간이 경험을 하고 그에 따라 그 공간에 대해 감정과 기억 등을 가지게 되면 무의미한 공간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인간의 경험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은 공간이 비로소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푸 투안도 인간의 경험과 그것에 의해 부여된 의미로 공간과 장소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그는 “공간을 움직임, 개방, 자유, 위협이며 장소는 정지,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들의 안식처, 안전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중심”⁶²⁾으로 설명한다. 인간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무의미했던 공간은 친밀한 장소로 바뀐다. 즉 “낮선 추상적 공간(abstract space)”은 “의미로 가득 찬 구체적 장소(concrete place)”가 된다.⁶³⁾ 그에게 장소는 무의미한 공간이 인간의 경험을 통해 명확한 뜻과 의미를 획득하여 친밀하게 전환된 곳을 의미한

61) 홍성희, 2012, “장소의 경험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5

62) 투안은 이러한 장소로 특히 집과 고향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이-푸 투안 Tuan YiFu, 2011, 『공간과 장소』, *Space and Place* (1977), 구동회-심승희 역, 서울: 도서출판 대운, pp.219~259참고

63) 이-푸 투안 Tuan YiFu, 2011, 『공간과 장소』, *Space and Place* (1977), 구동회-심승희 역, 서울: 도서출판 대운, pp.7~8

다.

<표 4> 공간의 장소의 학자별 개념 차이

학자	공간	장소화 과정의 주요 요소	장소
에드워드 렐프 Edward Relph 공간과 공간상실 (1976)	추상적 기능적 무형적 물리적	인간의 경험 느낌, 기억, 기대로 부여된 의미	구체적 해석적 미학적
이-푸 투안 Yi-Fu Tuan 공간과 장소 (1977)	추상적 개방적 자유로운 무한한	경험에 의해 부여된 의미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맥락이 있는 의미로 가득찬 친밀한
볼노 O. F. Bollnow 인간과 공간 (1963)	수학적 공간	인간과 공간의 관계 체험 정서 (감정이입)	체험적 공간
	무한한 가치중립적인 균질한 추상적인		공간에서 확정된 체계적인 풍부한 내용이 있는 분위기를 가진 현실적인

2)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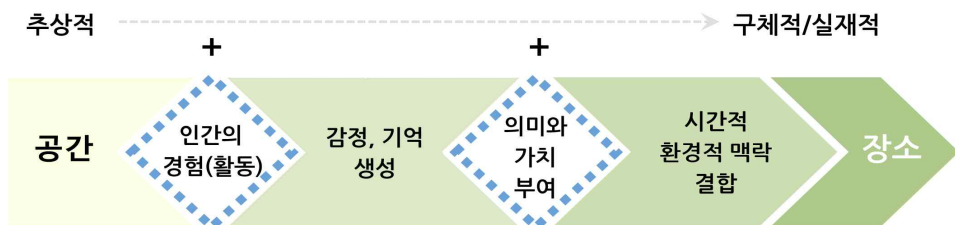
이 부분에서 장소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려는 이유는 여전히 공간디자인 분야의 큰 주제로 자리하는 장소성에 대한 연구와 분리하여 장소를 그 자체로 이해하기 위해서다.

장소는 우리의 언어 속에서 가장 많은 겹으로 둘러싸인 말이며 다목적적인 어휘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될 만하다.⁶⁴⁾ 장소는 그 자체로 정의를 명확히 내

64) David Harvey, 데이비드 하비,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From space and back*

리기 어려우나 공간의 개념과 비교하여 그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장소와 관련된 공간의 개념을 범주화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장소의 정확한 범주와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자 한다.

어떤 성격도 갖지 않은 중립적 물리적 공간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과 경험, 그리고 경험 과정에서 생성되는 감정, 기억, 등으로 부여되는 의미로 인해 마침내 장소로 전환된다. 이 과정은 <그림 13>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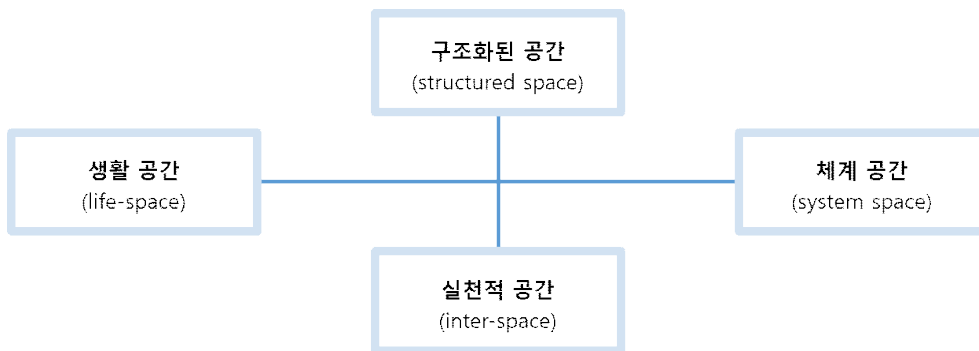


<그림 13> 공간의 장소화

아무런 성격도 가지지 않는 중립적인 공간에서 장소로의 연속체적 전이 관계에서 장소는 공간과 대비되는 위치에 있다.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참고정보원의 국토용어해설의 용어 정의를 보아도 장소(Place) 개념은 공간(Space)과 대비시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국토용어해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간(Space)이 동일한 소환경(최소한의 공간 범위를 갖는 환경을 포함)에 대한 추상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것이라면, 장소(Place)는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나타나는 맥락적 의미가 담긴 곳으로 구분된다. 즉

again-reflection on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J. Bird, B. Curtis, T. Putman, G. Robertson and L. Tickner(eds),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 Global change*,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3, 박영민 역, 1995, 『르페브르의 실천전략과 사회공간』, 한국공간환경학회 특별기획, p.34

공간은 거리, 방향, 위치 등의 가치를 지니는 지구표면의 공간인 반면, 장소는 인간의 눈과 마음, 태도와 가치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의 공간이며, 체험을 통해 공간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다.”⁶⁵⁾ 즉 장소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다. 이때 공간에 부여되는 의미의 실마리가 되는 장소의 체험은 사람과 소환경의 상호작용, 즉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그림 14> 장소와 관련된 공간의 범주화

출처: 최병두, 2002,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제 8호, 한국도시연구소, p.260

<그림14>는 장소와 관련된 공간을 범주화한 것이다. 장소와 관련된 공간은 범주화의 기준이 학자마다 다른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선명한 유형화가 어렵고 다중적 의미를 가진 장소⁶⁶⁾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14>는 기든스 (Giddens. Anthony)이 그의 구조화 이론에서 구분하는 행위/구

65)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참고정보원, 국토용어해설, <http://library.krihs.re.kr/term.do> '장소성'의 내용 중 장소에 대한 용어 정의

66) 렐프에 의하면 장소 개념은 아주 일관적이기도 어렵다. “장소 개념은 상세한 정의를 필요로 하는 형식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소박하고 다양한 지리적 경험의 표현을 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출처: 정현목, 2013,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9집 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pp.112~113

조의 축⁶⁷⁾과 하버마스(Habermas Jürgen)가 그의 의사소통적 행위이론에서 구분하는 생활세계/체계의 축⁶⁸⁾을 기초로 한 것이다.

최병두에 따르면 상호 행위 차원의 공간을 실천적 공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간의 대면적 관계와 상호행위 과정”에서 일시적이고 즉각적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상호행위가 끝나면서 사라지는 공간을 말한다. 구조화된 공간은 구조 차원의 공간으로, “일정한 활동의 지속이나 사회 제도적으로 구조화”됨에 따라 일정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생활공간이란 “일상적 생활이 영위되는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언어와 생활 규범에 의해 매개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재)생산되는 공간이다.” 체계 공간⁶⁹⁾은 경제 정치적 공간으로 경제적 활동과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화폐와 권력의 공간이며 이 공간을 통해 사회적 부와 권력이 생산된다.⁷⁰⁾ 제시된 공간의 범주들에서 본 논문에서 말하는 기존 전통적 장소의 범위는 생활공간에 상응한다.

3) 장소 관련 용어와 및 개념

장소 이론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립되어 그만큼 다양한 장소 관련 용어들과 그 개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와 개념들은 학술·학위 논문에서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빈번했다.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장소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본 소절에서 아래와 같이 장소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하였다.

67) 기든스 Guiddens. A, 1995, 『사적 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Macmilan, London (1981), 최병두 역, 서울: 나남

68) Habermas Jürgen, 1984, *The Theory of Commicative Action*, Vol1,2, Heinenmann, London(최병두, 2002, 재인용)

69) 미셸 푸코의 통치와 권력과 공간과의 연구와 마르크스주의 도시학자 앙리 르 페브르의 공간과 정치에 관한 연구 참고

70) 최병두, 2002,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제 8호, 한국도시연구소, p.260

(1) 장소의 혼, 장소 정신

장소의 혼은 장소가 주체가 된 용어로 장소가 가진 혼이라는 뜻이다. 고대로마의 개념을 건축가이자 철학자인 솔츠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장소의 혼은 공간구조, 지형 자연조건에 사건과 상황 등이 더해져 형성된 장소의 특수한 성격이나 특질로부터 생긴다. 집단적 차원에서 지속성이 커 세대를 이어 내려오며 오랜 시간에 걸쳐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장소의 정신은 장소의 혼과 혼용되어 쓰이는 단어로 같은 의미이다.

(2) 장소감

장소감은 장소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감정을 말한다. 특정 공간에서 가진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어 생성된 장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뜻한다.

(3) 장소 애착

장소 애착은 그 주체가 개인의 감정이다. 말 그대로 개인이 장소에 대해 가지는 애착으로 현실에서 접근 가능해 경험의 주체자인 개인이 그 장소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 장소를 방문했을 때 갖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말한다. 한 개인이 그의 장소 애착이 형성된 장소에 접근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이를 불안해하며 그 장소를 갈망하는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장소 애착은 장소와 사람 사이의 일체화된 친밀도를 뜻하는 용어이다.

(4) 장소에 대한 정체성

장소에 대한 정체성 역시 장소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 주체가 된 것이다. 특정 장소에 대해 개인이 갖는 정체성으로 장소와 상호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5) 장소 정체성

장소 정체성은 장소에 대한 정체성과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는 용어로 개인의 감정이 주체인 장소에 대한 정체성과 달리 장소 자체가 주체가 된다. 장소 자체가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그 장소만의 고유한 특질이나 장소 이미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 장소성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장소 정체성은 장소성과 관련이 깊은 개념이다.

(6) 장소성

장소성은 장소감과 혼돈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장소감이 개인의 감정이 주체가 된 것이라면 장소성은 개개인들의 한 장소에 대해 갖는 장소감이 서로 공감되어 집단의 공통된 인식으로 통할 때 성립되는 개념이다. 공간의 물리적 속성에 아닌 활동, 그로 인한 의미가 더해져 발생하는 그 장소에 대한 집단의 공통된 인식과 의미를 뜻한다. 개인과 사회, 지역과 환경, 맥락과 인과관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이 발생하여 시간의 층위가 쌓여야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표 5> 장소론 관련 용어

용어	주체	의미
장소의 혼 (genius loci)	장소	고대 로마의 개념을 숏츠가 차용 공간구조, 지형, 자연조건 + 사건과 상황 등으로 형성된 장소의 특수한 성격이나 특질로부터 생김 집단적 차원에서 지속성이 크면 세대를 이어 내려옴
장소의 정신 (spirit of place)		장소의 혼과 혼용되어 같은 뜻으로 사용됨
장소성 (placeness)	집단의 공동된 인식	공간의 물리적 속성+인간의 활동+의미가 더해져 발생하는 그 장소에 대한 집단의 공동된 인식과 의미 개인과 사회, 지역과 환경, 맥락과 인과관계 등 다양한 조건들이 발생에 관계
장소감 (sense of place)	개인의 감정	경험에서 비롯된 장소에 대한 개인의 느낌
장소 애착 (place attachment)		현실에서 접근 가능해 경험의 주체인 개인이 그 장소에 대해 갖는 심리적 안정감 (접근 불가로 인해 생기는 불안하고 갈망하는 상태) 장소와 사람의 일체화와 친밀도를 나타냄
장소에 대한 정체성 (identity with place)		장소에 대한 개인의 정체성 장소와 맺는 상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
장소 정체성 (identity of place)	장소	장소가 주체가 되는 정체성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그 장소가 가지는 고유한 특질 장소 이미지나 장소성과 관련이 깊은 개념

3.1.2. 장소 이론의 관념적 배경

1) 현상학적 사고⁷¹⁾

71) 현상학이란 사물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철학의 방법을 말한다. 이 용어는 근세의 철학자들도 사용하였으나, 현재 쓰이는 의미는 후설로부터 유래하며, 이것은 현상주의와는 구별된다. 현상

공간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시대의 다양한 세계관과 공간 이론들은 건축 공간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근대 이후에는 물리적인 건축물과 그 공간의 경험자인 인간을 분리해서 보는 데카르트적 이원론의 경향과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현상학이 중요한 실마리로 작용했다.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발달한 현상학은 실존주의를 토대로 한 인본주의 지리학의 기저를 이루는 철학이다.⁷²⁾ 수학적 모델이나 계산을 통해 세계를 검증하고 측정하는 과학적 실증주의는 “세계-내-존재(being-in-the-world)”⁷³⁾와 같은 개념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우리가 세계와 관계를 맺고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실증주의적 검증이나 측정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측정 불가능한 인간에게 의미를 생성하게 하는 느낌, 감정, 의식, 상상력 등의 주관성을 제거한 과학적 실증주의로는 공간을 의미가 담긴 장소로 전환할 수 없었

학은 존재 자체에 도달하려는 철학적 성찰로서 이는 껍데기에 해당하는 현상에 몰두하는 현상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피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도달하려는 철학적인 성찰인 것이다. 출처: 최병주 외 지음, 2016, 『인문지리학 개론』, 한국지리역사지리학회 엮음, 파주: 한울아카데미, p.68

72)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의 연구에 매우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 것은 현상학이다.” 출처: 에드워드 렐프 Edward Relph, 2016, 『장소와 장소상실』, *place and placelessness* (1976),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서울: 논형, Seamon.D, 1979, *A Geography of the Lifeworld: Movement, Rest, and Encounter*, St. Martin's Press, New York, Tuan, Y.-F., 1971, *Geography, phenomenology, and the study of human nature*, Canadian Geographer, 15, 181-192. (팀 크레스웰, 2015, 재인용, p.157)

73) 세계-내-존재(世界-內-存在, In-der-Welt-sein, being-in-the-world) 개념은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용어이다. 이 용어에서 하이픈(-)은 현상학자들의 또 다른 핵심적 용어인 지향성(intentionality)을 상징한다.

볼노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은 공간 속 다른 사물들과 같이 공간 내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변 세계와 관계 맺는 주체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물들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오히려 그의 공간성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인간이 공간 속에 존재하는 방식은 그를 둘러싼 세계 공간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 주체로서의 인간과 관련된 지향적 공간에 대한 규정이다” 출처: 오토 볼노, Otto Friedrich Bollnow, 2011, 『인간과 공간』, *Human space* (1963), 이기숙 역, 서울: 에코리브르, p.352

다. 실존주의 철학이 바탕이 된 현상학에서는 어떤 대상을 이해할 때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 그 대상을 인식한다. 현상학적 사고로 접근을 한다면 이 장소가 무엇인가 또는 그 장소는 어떤가?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무엇이 장소를 장소로 만드는가? 라고 질문할 것이고 공간과 인간이 가지는 주관적 의미들이 교섭(交渉)이 장소를 만든다. 라고 답할 것이다. 경험하는 주체와 공간의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맥락성에 비중을 두는 것, 경험으로 인해 그 공간에 의미와 가치가 부여될 때 그곳이 비로소 장소로 인식된다는 장소론의 내용은 현상학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슐츠는 매일의 생활세계(life-world)는 사람, 동물, 꽃, 나무와 숲, 마을, 도로와 주택, 문, 창문 등과 같은 수많은 사물들과 태양, 달과 별, 낮과 밤, 변화하는 계절들로 구성된 구체화된 현상들(phenomena)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며 이 세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물들은 복잡하고 대립되는 방식으로 상호 관계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세계에서 “어떤 행동과 사건들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take place에서 쓰는 일반적인 단어가 place로, 이는 추상적인 위치 이상의 총체적인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했고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아닌 일상 세계 속 장소를 말하기 위해서는 “일상 환경의 현상학”으로서 건축의 현상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언급했다.⁷⁴⁾

장소에서 현상적 체험은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한다. 즉 시각적인 자극을 포함한 인체 오감을 통한 자극을 통한 체험과 신체로 느끼는 물리적 자극으로 형성되는 주관적인 감정, 상상력, 의미 등을 함께 포함한다. 이는 물리적 자극과 인간 존재가 각각 존재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체험을 통해 어우러지면서 총체적인 현상적 체험으로 융화됨을 의미한다.⁷⁵⁾

74) 노베르그 슐츠 C.N.Shulze, 1996, 『장소의 혼』, *Genius Loci* (1979), 민경호 외 공역, 태림문화사, p.11

2) 실존(實存)적 기반

(1) 실존 (實存)

현상학이 사물의 본질을 발견하고자 하는 방법을 발전시키고자 한 방법론적인 철학이⁷⁶⁾라고 한다면 실존주의 철학은 현상학의 바탕을 이루는 큰 사유 방식이다.

사람들은 무한정하고 아무런 성격도 가지지 않으며 어떤 의미도 없는 곳은 장소라고 칭하지 않는다. 공간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인 주체 간의 관계 즉 상호작용의 결과로 그 주체에게 인식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곳을 마침내 장소라 한다. 장소는 인간을 주체로 구현되는 실체이며 여기에는 현상학적 사고와 함께 실존철학이라는 관념적 배경이 있다. 인본주의 지리학을 비롯한 장소 이론들은 모두 이 실존철학을 기반으로 한 실존 공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존(實存)은 추상화된 과학적 세계의 공간이 아닌 현실 생활세계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을 의미한다.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인간이 아닌 구체적으로 체험하여 살아가는 주관적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가리킨다. 공간에 인간이 관계하지 않으면 그곳은 장소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인간 즉 실존이 장소론의 시작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실존적 공간 (實存的 空間)⁷⁷⁾

실존적 공간이란 실존의 존재를 기반으로 한 공간을 말하며 실존 공간 (實存 空間)은 그 실존인 인간을 중심으로 주변의 상황을 해석하고 그것과의 교섭을

75) 임승빈, 1994, “도시에서의 현상적 체험”, 공간, p.51

76) 팀 크레스웰, 2015, 앞의 책, p.157

77) 쉘츠와 렐프는 공간을 6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실존 공간(렐프는 실존 공간 혹은 생 공간이라 하였다)이다. 쉘츠와 렐프의 실존 공간에 대한 각각의 설명은 3.1.4. 참고

통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데 이것이 장소 이론의 기본이다.

슐츠에 따르면 실존적 공간 개념은 추상적인 측면과 구체적인 측면으로 나뉜다. 추상적인 측면은 위상기하학이나 일반기하학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관계되며, 구체적인 측면은 자연경관, 물리적인 사물, 건축물과 같은 환경적 요소의 특성을 파악과 관계있다고 하였다.⁷⁸⁾ 실존적 공간의 구성 요소에는 감정, 느낌, 기억, 상상 등의 주관성이 포함된 경험으로 갖게 되는 모든 의미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실존 공간은 인간의 구체적 생활세계를 이루는 틀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실존적 공간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형학 지리적 공간의 의미만이 아닌 “경험된 특성, 과정, 상호 관련성”들에 의해 함께 형성된다.⁷⁹⁾ 공간을 인지하고 경험하는 자아 중심의 실존적 공간 개념에서 사회, 문화적 요인은 필연적으로 관계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다. 실존적 공간은 더 나아가 주변세계의 총체적 의미와 관계를 맺는다.⁸⁰⁾

3.1.3. 장소 연구의 흐름

1) 장소 이론의 등장

‘장소’라는 단어는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단어다. 하지만 개념화된 ‘장소’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차이를 갖는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장소를 처음으로 개념화한 것은 에드워드 렐프, 이-푸 투안으로 대표되는 인본주의 지리학자⁸¹⁾들이다. 인본주의 지리학은 1960년대까지 계량혁명에 대

78) 노베르그 슐츠, C. N. Shulze, 2002, 『실존·공간·건축』,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1971), 김광현 역, 서울: 태림문화사, pp.20~21

79) 류호창, 1996, “실내공간에서의 장소성 구현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회지』 7호 p.57 재구성

80) 박형진, 2007, “슐츠의 실존적 공간론을 기반으로 한 현대건축 실내공간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24

한 한계를 느끼고 실증주의적이고 공간 과학적 연구 풍토에 반(反)한 인문지리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어 발전되었다.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장소를 개념화하였고 이는 기능주의와 인간소외라는 모더니즘 건축의 한계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보였던 건축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장소성으로 대표되는 건축 패러다임이 전개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은 표준화된 기준으로 공간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학자마다 공간과 세계의 다양한 특성을 다르게 바라보며 그들의 이론을 펼쳤다. 장소론은 장소감, 장소애착, 장소 정체성, 장소 정신 등 다양한 용어로 설명되지만 그들의 이론에서 중요한 공통점은 근대에는 공간 속에서 배제된 인간을 공간의 중심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장소론에서는 공간 사용의 주체인 존재, 즉 인간과 공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미를 중요시한다.

렐프가 그의 저서 『장소와 장소상실』에서 실제로 “장소를 정의하거나 지역이나 영역 같은 개념과 구분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듯이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이 장소를 개념화하기 이전에는 장소에 대한 체계화가 시도된 적이 없었다. 그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개념으로 남아있던 장소는 1960년대 지리학자 프레드 루커만(Fred Lukermann)에 의해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⁸²⁾

81) 지리학을 구성하는 2대 분과인 자연지리학 (Physical Geography)과 인문지리학 (Human Geography)중 인문지리학에 속한다.

82) 루커만은 장소를 자연과 문화의 복합적인 통합체로 보고 재화와 사람들 간의 이동과 흐름을 통해 다른 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특정한 위치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루커만은 장소, 지역, 영역, 위치 등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으며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말처럼 그가 사용한 ‘문화’와 ‘자연’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은 의미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영어 단어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루커만은 장소의 개념화를 시도하였으나 그 결과는 명확하지 않았다.

2) 장소의 이론적 접근 방향

장소의 이론적 접근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고 그 논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다. 장소론은 학제별로는 주로 환경심리학(environmental psychology), 인문지리학(human geography), 문화인류학(cultural anthropology), 도시계획(urban planning)과 건축(architecture)/실내건축(interior architecture)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그림 15> 장소 이론의 학제별 연구

장소의 이론별 접근 방법을 살펴보면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인지(cognition)에 초점을 맞춘 인지적 방법과 인간의 장소 경험(experience)에 초점을 맞춘 현상학적 접근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⁸³⁾ 환경심리학 전통에서 발전한 인지적 접근법은 크게 위치(orientation) 중심 이론과 의미(meaning)중심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위치 중심 이론은 환경의 공간적 구조를 어떻게 인지하는가를, 의미 중심 이론은 환경의 상징적 면, 기능적인 면, 평가적 면을 다룬다. 의미 중심 이론은

⁸³⁾ Lalli, M., "Urban-Related Identity: Theory, Measurement, and Empirical Find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12

인간이 환경을 지각하는 데 있어 사람마다의 평가 기준을 통해 이미지를 형성하여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도시계획가인 린치는 그의 저서 『도시 형태와 이미지의 개념』⁸⁴⁾에서 다섯 가지 도시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이는 인지적 접근법의 위치 중심 이론과 의미 중심 이론을 모두 적용시킨 예이다.

장소 경험에 초점을 둔 현상학적 연구의 흐름은 장소 이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인문 지리학 중 인본주의 지리학에서 발전하여 왔다. 장소의 개념화 시도는 있었으나 명확히 끝내지 못했던 루커만을 시작으로 1970년대 이-푸 투안, 에드워드 렐프가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철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또한 인지와 경험 모두를 기반으로 하여 공간과 장소에 대해 언급했으며, 아모스 라포포트를 대표로 하는 EBS(environment-behavior studies) 문화인류학 연구자들이 인지로서의 문화와 의미체계로서의 문화를 모두 다루었다.⁸⁵⁾ 건축가 중에서는 크리스찬 노베르그 슐츠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다양한 저술 활동으로 그의 이론을 펼쳤다. 실존주의를 기반으로 한 현상학적 접근은 장소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특히 경험 기반 연구는 도시계획과 건축, 실내건축 등의 공간디자인의 장소성 형성에 관한 이론 정립뿐 아니라 공간 구축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⁸⁶⁾

3) 공간 개념과 장소

장소를 개념화한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각각 하나로 고정된 (사람을 포함한)대상물들과 물리적 공간이 인간의 활동과 경험으로 관계 지어짐으로

84)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1960, Cambridge: Mass, MIT Press

85) Setha M. Low ; Erve Chambers [공편], 1994, 『주거·문화·디자인』, Housing, culture, and design(1989), 주거문화연구회 역, 서울 : 신광출판사 참고

86) 안내영, 2011,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장소성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14~15를 기반으로 재구성

써 의미가 생성될 때 물리적 공간은 장소로 전이 된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장소 이론은 절대적 공간 개념과 상대적 공간 개념을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위치에 있음을 파악하였다. 절대적 공간 개념에서는 공간을 모든 물리적 대상을 담고 있는 상자와 같이 인식하고 있으며 물리적 공간과 대상물이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장소론은 이러한 절대적 공간 개념에서 물리적 공간과 (인간을 포함한)대상물들이 상자와 물건들처럼 각각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 공간의 범위에서와는 달리 공간과 대상물들의 관계 맺음으로 인한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장소는 공간과 (인간을 포함한)대상물이 서로 관계하여 경험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경험이 의미를 생성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간과 대상물과의 상호작용, 즉 공간구조 속 행위자의 경험과 그에 따른 공간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측면은 장소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상대적 공간 개념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3.1.4. 학자별 관점 분석

1)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_장소와 장소상실 *place and placeness*

현재 토론토 대학 지리학과 명예교수인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1965년 영국 런던대학교 지리학과와 동대학 석사를 졸업하고 1973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쓴 박사 논문 『장소의 현상학』을 수정해 1976년 『장소와 장소상실 Place and Placelessness』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현상학적 지리학의 문을 열었다. 첫 번째 평을 맡은 J.R. Gold는 이 책이 인용되는 횟수가 1980년대 후반보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더욱 증가한 사실만으로도 그 가치

를 알 수 있다며 극찬했다.⁸⁷⁾ 렐프의 이론은 건축가, 조경학자, 도시계획가 등 환경과 경관과 장소에 관한 조사와 설계에 관계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현대 공간에 나타나는 현상의 맥락적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70년대 사고론으로 크게 발전했던 현상학은 렐프의 장소에 대한 연구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으며 그의 장소 현상학의 기반이 되었다. 장소와 무장소에 대한 연구의 철학적 기초는 날마다의 직접 경험으로 이루어진 “생활 세계”의 현상을 출발점으로 하는 현상학이다. 그는 현상학자 메를로 폰티가 인간의 행위를 물질적 요소, 활동적 요소, 심리적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한 전례에 바탕을 두고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가 밝힌 그의 저서 『장소와 장소상실 Place and Placelessness』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장소를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첫째, 장소의 경험과 장소 개념의 범위를 보여 주기 위하여 공간과 장소의 관계를 고찰하였고, 둘째, 장소 경험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탐구하여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가고 경험하는 장소 간의 깊은 심리학적 연계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셋째, 장소가 주체가 되는 장소의 정체성과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 가지는 정체성의 본질인 장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차이를 설명했으며, 넷째, 장소감과 장소에 대한 애착이 장소와 경관 만들기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기술하였다. 그가 전개한 주장들의 본질은 특정적이고 다양한 장소들이란 장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장소와 깊이 연루된다고 느끼는 것이고, 장소에 대한 깊은 애착은 다른 사람들과의 밀접한 관계만큼이나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렐프의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장소 개념, 장소의 정체성과 관련된 장소의 진정성이다. 장소가 진정성을 상실했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를 무장소 (placeless)라고 명명하는 것은 현재에는 거의 보편

87) 에드워드 렐프, 2016, 앞의 책, p.300

화되었는데, 이 용어가 바로 이 책에서 탄생했다.⁸⁸⁾

(1) 에드워드 렐프의 공간 분류

렐프는 그의 저서에서 공간과 장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장소를 개념적, 경험적 맥락에서 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간과 장소는 직접 경험과 추상적 사고의 양 극단을 가진 연속체며 그 연속체 속에서 다양한 공간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하여 이 연속체를 아래 <표 6>⁸⁹⁾와 같이 구분하였다. 렐프의 공간분류는 공간을 장소 개념의 연속체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장소분류'가 아닌 '공간분류'로 지칭되어 분류된 개념이라 할지라도 이는 공간과 관련된 관념, 경험, 활동 등 장소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범위를 포괄한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간을 분류한 특성 속에 결국 장소의 개념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88) 에드워드 렐프, 2016, 같은 책 p.300

89) <표 6>은 에드워드 렐프, 2016, 같은 책 pp.37~73에서의 언급과 예시를 표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6> 렐프의 공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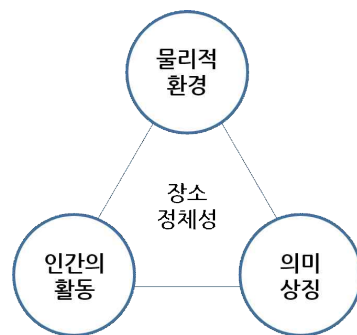
공간분류	해석	예시
실용적 또는 원초적 공간 (primitive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 실질적인 생물학적 공간 유아기 때부터 신체의 운동과 감각을 통해 원초적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구조화됨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행위의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 앞과 뒤, 닿을 수 있는 범위와 그 범위 밖, 소리 감지나 시야의 안과 밖 등 기본적인 차원을 제공 모든 개인, 집단들에게 공통된 가장 기본적인 공간의 맥락 공간과 장소의 구분조차 어려운 원초적 수준
지각 공간 (perceptual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 지각해 직면하는 자아 중심적인 공간 부여하는 중요도나 관련성에 따라 주관적으로 정의되어 지각됨 땅, 바다, 하늘의 공간, 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과 감정적으로 직접 만나게 되는 것 지각하는 인간의 경험, 행동, 의도를 통한 내용과 의미를 가진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에게 동굴이나 나무, 집안 어떤 구석이 그 아이 개인의 지각에 따라 사적인 공간이 됨 개인마다 신체를 움직이면서 지각으로 느끼는 원근, 방향 등이 다름. 개인의 의도나 환경 변화에 따라도 바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면 예전에 일상생활에 중요했던 상점과 거리가 무의미해짐
건축 공간과 계획 공간 (built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 건축공간은 건축물의 공간경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음. 직접경험, 상상력 있는 경험이 아닌 지도상의 질서나 토지 이용의 효율과 관련 있음 계획에 사용된 장소개념은 환경된 기능들이 충족되는 입지에 지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르네상스시대:거리와 광장과의 연속 선상에 있던 건물 / 현재: 개별적 건물 근린지구 쇼핑센터나 서비스센터

인지 공간 (cognitive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에 대한 추상적 개념으로 유클리드적 공간 속에서 장소는 좌표들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위치로 이해됨• 동질의 공간으로 어느 곳에서나 어떤 방향에서나 같은 값을 갖는 획일적, 중립적, 일차원적, 기하학 공간• 계획과 설계의 기초가 되지만 직접 경험에는 의미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영된 공간 형태, 기하학, 지도, 공간 조직이론 등	
추상 공간 (abstract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의 상상력으로 자유롭게 창조되는 상징적 사유의 결과• 추상공간에서 장소는 단순한 상징기호에 지나지 않고 추상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전체 체계 내의 한 요소일 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상기하학적 관점으로 본 공간	
생활공간/ 실존공간 (lived-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집단 모든 구성원들에게 상호 주관적으로 적용됨• 수동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간 활동에 의해 지속적으로 창조됨• 같은 문화집단 속에서 의미가 있어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다른 문화의 구성원들에게 소통이 불가능함• 신성공간과 지리적 공간으로 나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로브리안드 섬 원주민의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마을 계획도: 그들의 다양한 사회적 믿음과 실천에 부합하도록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짐. 그 문화 구성원들은 마을 공간요소들의 배열의 의미를 알고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함.	
	신성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적인 종교적 체험공간• 상징, 신성한 중심, 의미 있는 사물로 충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원, 왕궁, 신성구역, 집 자체가 기도처가 되는 가옥
	지리적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인식,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도적인 연결의 반영• 인간이 의도와 개입에 따라 구축됨• 이름 붙이기로 인해 공간을 인간화함. 이는 실존 공간의 기본 활동 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하라, 파리, 지중해 등과 같이 자신만의 이름을 갖고 있음

(2) 장소 정체성

렐프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주요한 특징이 분명히 드러난다 할지라도 간단히 정의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언급하며 장소의 정체성에 대해 접근했다. 그는 ‘identity of’ 와 ‘identity with’ 간의 차이에 대해 강조했는데 identity of place는 한 장소가 다른 장소와 구분될 수 있는 장소 자체의 정체성이며 identity with place는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장소를 통해 형성하게 되는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의미한다. 렐프는 장소 자체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그 장소에 대한 정체성 또한 중요하다 하였다.⁹⁰⁾ 이는 한 개인과 집단이 장소 간의 차이나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보다, 장소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속에서 다시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근본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장소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집단이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을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보았다.⁹¹⁾

① 장소 정체성의 구성요소



<그림 16> 렐프의 장소
정체성 구성 요소

렐프는 <그림 16>과 같이 장소 정체성의 구성요소를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와 상징 이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구성요소들의

90) 에드워드 렐프, 2016, 같은 책 pp.108~111

91) 안내영, 2011, 앞의 책, p.12

세부적 내용을 생각했을 때는 각각 무한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다양한 모습들은 복잡하게 결합하므로 이것들을 분류하여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야기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언질을 남겼다. 또한,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는 장소 정체성의 원재료이며, 그것들 간의 변증법적 연계는 장소 정체성을 구조화하는 기본적인 관계”⁹²⁾라고 말하였다.

② 내부성과 외부성에 따른 장소 정체성 유형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는 장소 정체성의 주요 요소지만 이는 어떤 곳에서 어떤 형태로든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공간과 장소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렐프는 외부와 구별되는 내부의 경험에 대해 언급하는데 내부의 경험과 장소와의 동일시가 이루어져 내부에 깊이 있게 될수록 장소에 대한 정체성은 강해진다고 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장소를 바라보며 경험하는 것보다 자신이 장소에 둘러싸여 그 일부가 되는 내부적 경험은 바로 그 장소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렐프의 내부성은 진정한 장소감 또한 내부에 있는 무의식적인 느낌을 이야기할 때도 언급된다.

아래 <표 7>은 렐프의 장소 경험에 대한 이론을 외부성과 내부성으로 분류한 것으로 경험에 따른 장소 정체성의 유형을 보여준다.

⁹²⁾ 에드워드 렐프, 2016, 앞의 책 참고

<표 7> 경험에 따른 렐프의 장소 정체성 유형

장소 경험 분류		경험에 따른 장소 정체성의 내용
내부성	행동적 내부성	한 장소 내에서 신중히 그 장소의 모습을 주목해 그 장소를 파악 하는 경험
	감정 이입적 내부성	그 장소에 대해 느끼고 장소에 대한 감정적인 참여와 개입을 수반 행동적 내부성에 비해 깊고 풍부함
	실존적 내부성	장소에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빠져드는 것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장소의 일부가 되며 장소 역시 그의 일부
	대리적 내부성	소설이나 미디어 같은 간접적 방식을 통해 장소를 경험하는 것
외부성	실존적 외부성	모든 장소가 똑같이 의미 없는 정체성을 가짐 사람들과 장소로부터의 심각한 소외
	객관적 외부성	전통적 지리학에서의 전형적 태도로 장소가 위치나 입지로 다루어짐 도시 계획가들이 논리, 이성, 효율에 따라 장소를 재조직할 때의 경험
	부수적 외부성	장소가 단순히 다른 행동을 위한 배경 정도로 밀어내 경험 승무원이나 트럭 운전사처럼 일이 그 장소를 가려버리는 경우

(3) 장소감과 진정성

장소감은 개인이 한 장소를 경험하면서 그곳과 상호작용하여 그 장소에 대해 가진 느낌을 말한다. 렐프는 장소감을 무의식적인 장소감과 의식적인 장소감으로 구분했다. 무의식적인 장소감 중 진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집이나 고향, 혹은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다. 의식적인 장소감에서 장소는 이해와 성찰의 대상이 된다. 어떤 장소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느끼고, 감정을 이입하여 공감적으로 경험하려는 시도에서 오는 감정이다. 이런 경험들은 개

방적이고 정직할수록, 그리고 이론적 지적 선입관에 대한 제약이 적을수록 경험하는 진정성의 정도가 강해진다.⁹³⁾

그는 장소를 진정한 장소감을 일으키는 장소와 진정하지 못한 장소감을 일으키는 장소라는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를 나누는 기준은 인간이 장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이 장소를 경험할 때 얼마나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었나 하는 점이 진정한 장소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랠프 자신도 이 두 유형의 장소 경험은 역전될 수도 있고, 매우 복잡해서 구분이 쉽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그 장소를 느끼는 개인의 사회적 계급이나 속한 집단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진정한 장소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소감은 개인이 인식의 주체이므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진정한 장소감을 느끼는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이미 모순이기 때문이다.

(4) 장소 상실: 무장소 placeless⁹⁴⁾

랄프의 장소 상실 즉 무장소는 장소가 진정성을 상실했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를 말한다. 또한, 무장소는 장소에 대한 비진정성으로 장소의 상징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장소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없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편의주의적이고 무비판적인 장소 경험을 말한다. 그는 이런 장소에 대한 무의

93) 에드워드 랠프, 2016, 같은 책, pp.147~153

94) 장소가 진정성을 상실했거나 심각하게 훼손당한 상태를 말하는 랠프의 이론인 무장소 placeless는 그의 저서 장소와 장소상실 (place and placelessness)에서 장소상실 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며 같은 책에서 placelessness는 다시 무장소성이라고도 언급되고 있다. 아직 한글 번역본이 나오지 않았으나 마크 오제(Marc Augé)의 저서 Marc Augé, 1992 『Non-Lieux: Introduction à une anthropologie de la surmodernité』, paris: seuil 제목이기도 하며 그의 이론이기도 한 non-lieu: 불어원어 (non-place:영문 번역)는 우리나라에서는 비장소 혹은 무장소(드물게)로 혼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무장소로 번역된 랠프의 이론과 구별하기 위해서 랠프의 이론을 장소상실 또는 무장소(성), 오제의 이론을 비장소(성)이라 표기한다.

식적이고 진정하지 못한 태도를 키치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의식적인 비진정성은 다양한 형태의 계획을 통해 장소에 기술이 적용되며 드러나는 근대 건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가 현재도(『장소와 장소상실』 집필 당시인 1970년대 후반) 무장소의 힘에 지배당해 장소감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그리스 문명과 로마제국, 기독교의 전파, 도시적 사고의 확산 등이 기존의 다양한 문화와 경관에 동질성을 부여해 왔지만, 현재의 획일화 현상은 광범위한 스케일로 이루어지고 이 무장소적인 획일성은 지역 상황에 적응하여 토착화되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 이전 시대와 다른 점이라 하였다. 약간의 무장소성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했지만 중요한 것은 무장소성이라는 일종의 태도가 점점 지배적인 현상이 됨에 따라 깊이 있는 장소감을 가지거나 장소를 진정하게 창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8> 무장소성의 표출 형태

타자 지향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장소들 • 관광지 건물은 지역적 경관의 파괴해 틀에 박힌 가짜 장소로 대체하는 것 의 도적으로 소비자들을 지향 	디즈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자 지향 장소의 극치. 현실과 환상의 초현실적 조합의 거대한 오락 공원, 미리 보장된 흥분 오락 흥미로 직접 여행하거나 상상해 볼 기회나 노력을 무력하게 함
		박물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의 보존, 재구성, 이상화. •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과거 어느 시대의 껍데기 모조품 • 거짓 정체성
		미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적인 미래적 경관 장소 만들기 • 대규모 국제 박람회는 테크놀로지적 유토피아에 대한 신념을 표현한 것 • 국제적 표준화 원리에 기초한 이런 무장소는 시간과 전통이 장소에 부여된 진정성까지 부인해 버림
물양식/ 인간 스케일 결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브토피아⁹⁵⁾ : 지역성 무시하고 지도에서의 위치적 계획과 같은 추상적인 방법으로 개발된 곳이나 타자지향성 상업화와 디즈니화가 도시변두리의 일상 경관에 이식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중의 고층 빌딩, 메갈로폴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자연 환경과 무관한 개별적인 건물들 	
획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스턴트식 신도시와 교외 • 상공업 지구의 개발 • 새로운 도로와 공항 등 • 국제적 스타일의 설계와 건축 	
장소 파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의 무자비한 파괴 • 채굴과 매립에 의한 파괴 • 외부인의 토지 매입과 재개발로 인한 파괴 	
일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재개발을 겪고 있는 장소들 • 예를 들어 중심 업무 지구들과 버려진 당들 	

⁹⁵⁾ Nairn I, 1965, The American Landscape, New York: Random house, p.7 (에드워드 랠프, 2016,

그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중문화는 강요되고 표준화된 가치로 무비판적인 유행을 확산시키고,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은 기업의 경제적 생존 보장을 위해 상품과 욕구의 표준화를 조장하며, 중앙 권력은 통치의 효율과 안정적 권력 행사를 위해 장소의 획일성을 조장한다고 했다. 또 경제 체제는 기술이 지배하는 추상적 체제로 모든 무장소성의 전달 매체와 체계를 포괄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특히 대중문화는 위 <표8>과 같이 타자지향 장소들, 디즈니화, 박물관화, 미래화, 서브토피아의 현상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대중문화에 대해 획일적인 상품과 장소는 획일적 욕구와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며, 역으로 사람들이 획일적인 욕구와 취향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러한 획일적인 상품과 장소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⁹⁶⁾

2) 이-푸 투안 (Yi-Fu Tuan)_공간과 장소 *space and place*

투안은 렐프와 함께 인본주의 지리학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앞에서 소개한 렐프의 저서 『장소와 장소상실』의 기반이 된 렐프의 박사 논문 심사위원이기도 했던 만큼 서로의 이론에는 많은 합의점들이 존재한다. 가장 큰 합의점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장소 개념과 장소경험 탐구를 시도했다는 점일 것이다.

렐프와 투안을 비롯한 많은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은 물리적 측량으로 지형학적 지도를 그리며 그 안에서 공간법칙을 만드는 등 실증주의적으로만 공간과 장소에 접근하는 방법론을 비판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비판에 비해 그들의 대안적 방법론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인본주의적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적 의미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명료한 방법론이나 개념적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사회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았다.⁹⁷⁾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특유의

재인용, p.223)

96) 에드워드 렐프, 2016, 앞의 책, pp.197~224

사고의 방식, 즉 논리적이기 보다는 비유적이고 문학적이었던 시대적 문제접근 방식 또한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접근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장소론을 사람의 일상 속 장소들과 관계되는 정신과 사고, 감정과 감정의 상태 등에 접근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투안은 매우 세련된 상징화 능력을 가진 복잡한 존재인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는가가 그의 저서 『공간과 장소』의 중심 주제라고 밝혔다. 인간이 부여받은 능력들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간과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조직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 그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문화적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 인간의 조건에 반영할 수 있는 속성을 보이도록 공간과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조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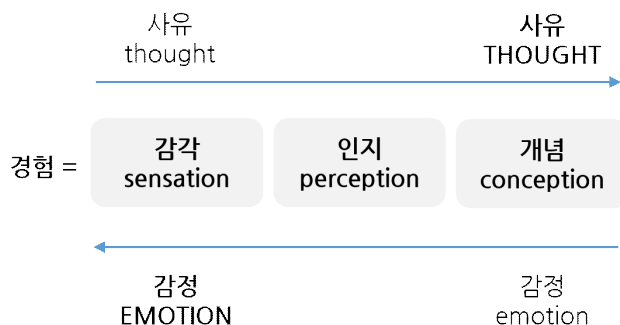
그의 이론은 그의 저서 『공간과 장소』에서 인간의 성향, 능력, 욕구에 관한,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그것들을 강조하거나 왜곡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세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생물학적 사실들: 인간의 육체가 공간감과 장소감을 형성하는 토대라고 간주하여 인간의 생물학적 사실들에서 기인하는 공간과 장소의 경험을 기술하고, 인간이 공간과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조직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했다. 둘째, 공간과 장소와의 관계: 장소보다 추상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 공간과 장소를 정의하려면 서로가 필요한데, 추상적이며 낯선 미지의 공간(abstract space)에서 출발한 공간은 경험을 통하여 친밀한 의미로 가득한 구체적 장소(concrete place)가 된다. 셋째, 경험이나 지식의 범위: 공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험은 매우 복잡하다. 투안은 경험은 직접적이고 친밀할 수도 상징으로 매개되는 간접적이고 개념적인 것일 수도 있다 언급하면서 경험의 수준에 따라 신체의 운동 범위에서부터

97) 이 푸 투안 Yi-Fu Tuan, 2011, 『공간과 장소』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1977), 구동희, 심승희 공역, 서울: 도서출판 대운, p.6

방, 집, 근린 마을, 도시, 국가, 대륙에 이르는 다양한 차원에서 기술하여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체계화하고 경험적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⁹⁸⁾

(1) 경험적 관점

경험은 사람들이 실재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여러 가지 양식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양식들은 후각, 미각, 촉각 등의 보다 직접적이고 수동적인 감각에서 능동적인 시각적 인지, 상징화라는 간접적 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⁹⁹⁾



<그림 17> 투안의 경험적 관점 도식화

경험은 감정과 사유로 구성된다. 감정은 주관적인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고 후자는 객관적인 실재를 보고자 하는 것이라는 경향이 일반적이거나 감정과 사유는 경험이라는 연속체의 양쪽 끝 가까이에 위치하며 양자 모두 얹의 방식이다. 경험하는 것은 배우는 것으로 주어진 것(소여 the given)에 따라 행동하고 그 주어진 것으로부터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나 주어진 것은 본질적으로 알 수는 없고 경험의 구조물, 즉 감정과 사유의 창조물인 실재를 통해서 알 수 있다.¹⁰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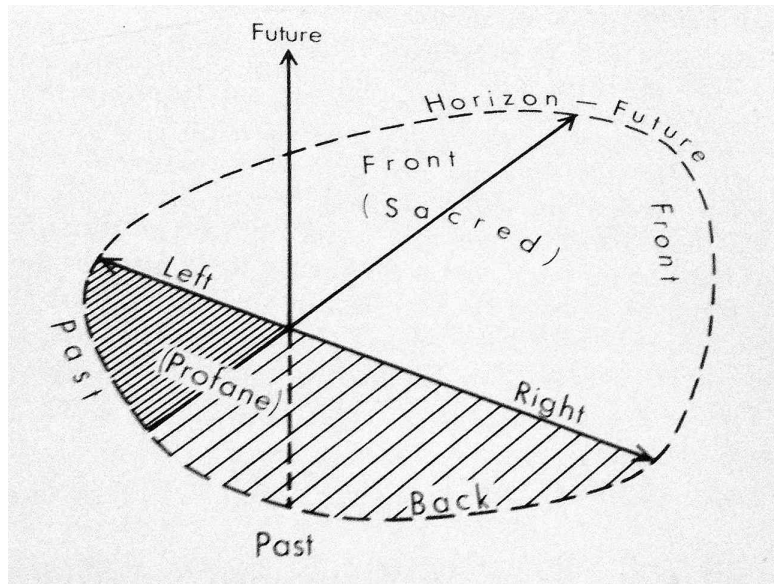
98) 이 푸 투안, 2011, 같은 책, pp.5~22

99) Michel Oakeshott, *Experience and Its Modes*, 1933,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p.10 (이 푸 투안, 2011, 재인용)

100) 이 푸 투안, 2011, 앞의 책, pp.23~26

(2) 신체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관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세계를 분할하고 각 부분에 가치를 할당하고 측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간에는 어떤 유사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람이 만물의 척도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에 모든 인간이 가진 신체의 자세와 구조가 공간조직의 근본 원리 탐구를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이다. 인간은 신체의 긴밀한 경험을 통하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에 적합하게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공간을 조직하기 때문이다.



<그림 18> 직립한 인간 신체, 공간, 시간

위의 <그림18>¹⁰¹⁾은 직립한 인간 신체, 공간 그리고 시간의 관계를 보여

¹⁰¹⁾ 출처: Yi-Fu Tuan,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1977,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p.35

준다. 인간의 신체가 중심이 되어 그로부터 투사된 공간은 전방과 오른쪽으로 편향하게 된다. 미래는 앞서있는 ‘위’ 이고 과거는 뒤에 있는 ‘아래’이다. 시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방의 공간은 미래이고 후방의 공간은 과거로 지각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세계의 중심에 서 있으며 주위 공간은 신체 구도에 따라 분화된다. 사람이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꿈에 따라 주변 지역의 전방-후방과 좌측-우측도 움직이고 바뀐다.

‘거리’는 접근성의 정도와 동시에 관심의 정도를 의미할 수 있다.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그들’을 구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 행복한 민족이다, 그들은 저기에 있다, 그들은 완전히 인간적이지는 않으며 저 장소에 산다, 우리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가까우며, 외부(그들) 집단의 구성원들과는 거리가 멀다.” 어떤 감각이 일차적이고 어떤 감각이 파생된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나 여기서 ‘가깝다’와 ‘멀다’의 의미는 상호 간의 친밀감과 지리적 거리의 정도가 복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⁰²⁾ “우리는 가까운 친구다”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친밀하다는 것, 즉 종종 서로 만나며 같은 이웃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깝다는 것은 친밀함과 지리적 근접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된 것이다. 공간적 용어인 거리가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¹⁰³⁾는 것이다.

(3) 장소의 정지성에 관한 관점

투안에게 공간이 행동, 움직임의 개방적 무대라면 장소는 멈춤, 쉼, 관계 맺음에 대한 것이라 했다. 그는 공간을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고 장소는 정지(멈춤)라 말했다. 움직임 속에서 정지할 때마다 입지는 장소로 변할 수 있

102) Stephan A. Erickson, “Language and Meaning”, in James M. Edie, *New Essays in Phenomenology*, Chicago: Quadrangle Books, pp.45~46

103) 이 푸 투안, 2011, 앞의 책, pp.81~87

다.¹⁰⁴⁾ 투안에 의하면 장소가 운동 속에서의 정지인 이유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한 장소에 멈추기 마련인데 그것이 어떤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는 예컨대 다치거나 병든 동료가 있다면 그를 돌보기 위해 인간은 멈추고 이 사실은 장소에 대한 인간 정서의 깊이를 더해준다고 했다.¹⁰⁵⁾ 한 곳에 정지해서 그곳에서 정서적 깊이의 충위를 쌓아갈 때 그는 그곳을 장소라 보았다.

(4) 장소의 뿌리 내림에 관한 관점

렐프도 뿌리 내림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투안 역시 이에 대해 언급하였다.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국지적 소환경에 대한 의도적 가치 부여가 아니라, 무의식적이며 비 반성적으로 안전하고 안락한 존재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 즉 뿌리 내림에 근거한 장소성은 단지 소속감뿐만 아니라 집에 있음의 상태인 실존적 안전성을 갖게 된다.”¹⁰⁶⁾ 따라서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안전지대를 갖는다는 것이며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세우는 것이며 특정한 어딘가에 의미 있는 정신적, 심리적 애착을 가진다는 것이다.

3)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Otto Friedrich Bollnow)_인간과 공간 *Human space*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 실존철학적 인간학을 전개한 볼노는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체험 속에서의 공간과 인간을 연구한 철학자이자 교육 사상가이다. 강학순에 따르면 그의 ‘인간학적 공간론’은 현대의 공간이론에서 여타의 공간론에서 결핍된 체계적 연구로 평가받으며 현대 공간론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104) 이 푸 투안, 2011, 같은 책, p.20

105) 이 푸 투안, 2011, 같은 책, pp.221~222

106) 김민철, 2000, “현대 도시 내 일상의 장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7

하였는데 볼노의 연구는 “공간 안에서 올바르게 존재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공간에 대해 올바르게 관계하는 방식”을 인간학적 관점에서 제시한다고 설명하였다.¹⁰⁷⁾

볼노의 인간학적 관점에서의 공간에 대한 해석은 현상학적 사유가 관념적 바탕이 된 것이다. 그는 공간과 장소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공간을 수학적 공간과 체험공간으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현상학적 측면이 바탕이 된 체험 공간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장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다.

(1) 체험공간¹⁰⁸⁾

볼노는 “직접 경험하는 구체적인 생활세계”에서의 공간을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추상적 공간과 구분하고 비교하며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체험공간의 특성은<표 9>¹⁰⁹⁾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07) 강학순, 2007, "볼노우의 인간학적 공간론에 있어서 '거주'의 의미", 『존재론 연구』, 한국하이테크학회, 제16집, p.5

108) 볼노가 그의 공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쓴 용어로 심리적 상황만을 나타내는 “공간 체험”과 구분되어 “체험하고 사는”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체험공간은 “심리적인 것, 단순히 경험하거나 상상하거나 공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현실의 구체적인 공간이다” 출처: 오토 볼노, Otto Friedrich Bollnow, 2011, 『인간과 공간』, *Human space* (1963), 이기숙 역, 서울: 예코리브르, pp.18~19

109) 오토 볼노, 2011, 같은 책, pp.16~17

<표 9> 볼노의 체험 공간 특성

볼노의 체험공간 특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험공간에는 "우월한 중심점"이 있으며 그 중심점은 체험하는 사람이 머물러 있는 공간 속의 장소를 통해 주어진다. 2. 인간의 신체와 중력에 저항하는 직립 자세와 관련이 있는 우월한 좌표계가 있다. 3. 체험공간 속의 구역과 장소는 각자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체험공간은 이들의 상호 관계를 토대로 내용상 다양하게 분류된다. 4.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유연하게 넘어가는 통로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계선이 모두 존재한다. 5. 유한한 공간으로 시작하지만, 경험을 통해 무한히 넓은 공간으로 확장된다. 6. 삶에서 인간을 도와 삶을 지탱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데 이는 가치 중립적인 수학적 공간과 다르다. 7. 체험공간 속 모든 장소는 인간에게 의미가 있다. 8. 공간과 인간의 관계해야 생성되는 것으로 인간과 분리되지 않고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다.
-------------------	---

볼노는 수직축과 수평면,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 중심성 등의 개념을 체험 공간의 구조라 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한다. 또한, 길과 도로, 집, 문과 문지방, 창문, 침대 난로 등의 구체적인 생활 세계에서의 대상이 인간과 관계해 체험되는 양상도 서술하고 있다. 그는 공간지각을 통해 거주에 집중되던 공간의식이 확대된다고 말하며 떠남과 돌아옴, 앞과 뒤, 연결과 분리 등의 대립개념을 통해 체험공간을 설명한다.

그가 말하는 체험공간의 구조 중 중심에 대한 개념은 렐프나 투안의 뿌리 내림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투안이 친밀한 장소¹¹⁰⁾에 대한 개념을

110) 이 푸 투안, 2011, 앞의 책, pp.219~259

집과 고향으로 설명한 것처럼 분노 또한 집과 고향으로 체험공간의 구조 중 중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는 “떠나옴과 돌아옴”의 기준점은 정지점으로 체류점이 아닌 내가 “속한” 곳이며 그러므로 이 정지점은 상대적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론에서 기준점이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떤 곳에 있었느냐에 따라 일시적인 체류점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떠나옴과 돌아옴”의 관계에서 일시적인 체류점으로 변하더라도 지속적인 정지 상태는 “집”이며 “고향”이다. 집의 이면에 있는 고향은 일시적 체류점으로 변해 더 이상 본래의 기준점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공간 관계의 중심 영역이 되는 것이다. 그는 또 인간은 공간 속의 기준점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기준점은 인간이 정신적인 존재로서 공간에서 입지를 얻는 장소이고 그가 공간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곳이라고 하며 이 장소를 ‘집’이라 부른다”¹¹¹⁾고 했다.

인간학적 관점에서의 분노의 공간 개념에서 체험공간을 설명하기 위해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방위의 체계다. 김재철에 의하면 분노의 방위는 단순히 나침반에 따라 결정되기 전에 이미 인간의 문화적 삶과 연관되어 있다. 그는 그의 논문에서 서울을 한강을 경계로 강북과 강남으로 구분하는 방위체계를 예로 들며 이는 위치적인 구별은 물론 환경의 차이로 인한 생활공간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삶의 질적-영역적 구분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¹¹²⁾

체험공간의 개념에서는 ‘분위기’의 개념 또한 중요하다. 분노는 루트비히 빈스방거 (Ludwig Binswanger)가 그의 저서¹¹³⁾에서 최초로 제시한 ‘분위기 있는 공간(der gestimmte Raum)’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분위기는 모든 공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으로 주변세계와 일체를 이룬 인간에게 적용되는

111) 오토 볼노, 2011, 앞의 책, p.72

112) 김재철, 2009, "공간과 거주의 현상학- 볼노의 공간 이해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56집, pp.376~377

113) Binswanger, Das Raumproblem in der Psychopathologie, in: Ausgewählte Vorträge und Aufsätze, p.195 (오토 볼노, 2011, 재인용, p298)

말”¹¹⁴⁾이므로 이는 볼노의 체험공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안정된 거주

볼노는 인간존재와 공간간의 근본적 관계를 거주를 통해 파악하려 했다. 인간이 자기 집에서 사는 방식을 거주라고 표현하며 인간과 그의 집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였다. 집에 대한 개념은 앞서 거론했던 체험공간의 중심성 개념의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관계들의 출발점이자 귀환점이 되는 곳, 즉 뿌리내릴 중심점이 필요한데 특정한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거주라 하였다. 볼노에게 거주는 단순히 존재하고 머무르며 공간과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 것을 넘어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는 현상학자 메를로퐁티의 핵심 단어로도 거주에 대해 설명하는데 메를로퐁티는 “우리가 세계에 거주하고,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에 거주하며, 더 나아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간과 시간과 존재 자체에도 거주한다.”¹¹⁵⁾고 말했다. 볼노에게 집은 인간에게 안락함과 안도감 그리고 든든함을 주는 곳이며 보호 수단이고 피난처이다. 또한, 인간은 집에서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며 평화를 얻는다. 경계심 없이 안정과 평화를 주는 집은 뒤로 물러나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이라고 집의 의미를 규정하였다. 그는 집을 살기 적당하게 만드는 객관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 내용은 <표 10>과 같다.

114) 오토 볼노, 2011, 앞의 책, pp.298~299

115) 오토 볼노, 2011, 같은 책, p.168

<표 10> 거주성의 특성

거주성의 특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 공간은 차단성과 바깥세상으로부터의 폐쇄성을 가져야 한다. 2. 개인마다 적당한 공간의 크기가 있으며 이는 안락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가구를 비치하여 공간을 채우는 방식도 중요하다. 4. 집안의 색이나 온기도 중요한 요소다. 5. 과도한 질서나 무질서 없이 살아 있는 삶의 자취가 드러나야 한다. 6. 사람이 내뿜는 분위기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든다. 7. 거주자의 삶과 일체되어 그 삶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8. 진정한 집은 삶의 확고한 지속감을 전해주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 서서히 완성되어 안정감을 선사한다. 9. 삶을 일구고 자기 주변과 사람들 사이의 친근감을 만드는 것은 혼자서는 어려우며 한 쌍의 부부가 사는 집을 친근한 집이라 표현할 수 있다. (Eugène Minkowski, Espace, intimité, habitat, in: Situation, 재인용, p.180)
------------	---

“볼노에게 거주는 실존철학에서의 ‘내던져져 있음’과는 대비되는 아늑한 ‘공간 안에 안주함’으로의 ‘거주’이다.”¹¹⁶⁾ 볼노는 인간은 거주공간인 집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신의 존재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간이 인간화되어야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된다.

4) 크리스찬 노베르그 쉘츠 (Christian Norberg-Schulz)_실존, 공간, 건축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거주의 의미 *The concept of dwelling*, 장소의 혼 *Genius Loci*

116) 강학순, 2007, 앞의 책, p.18

노르베르그 쉘츠는 추상적인 기하학으로 논하던 근대의 건축공간론이 결국 인간을 소외시킨 것을 비판하며¹¹⁷⁾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바탕으로 실존 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노르베르그 쉘츠(Christian Norberg Schulz)는 바트(Kurt Badt)와 함께 종래의 유물론적 접근 대신 인간학적이고 실존적인 공간론을 전개한 대표적인 건축가이기도 한데 이는 앞서 다루었던 오토 볼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다.¹¹⁸⁾ 이는 그의 저서에서 여러 차례 볼노의 이론을 언급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노르베르그 쉘츠는 후에 장소와 장소상실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 에드워드 렐프에게 많은 영향을 준 현상학적 건축가이기도 하다.

(1) 노베르그 쉘츠의 공간 분류

.노베르그 쉘츠는 <표11>과 같이 공간을 실용적(pragmatic space), 지각적(perceptual space), 실존적(existential space), 인식적(cognitive space), 추상적(abstract space), 표현적 혹은 예술적 공간(expressive or artistic space)의 6가지로 분류¹¹⁹⁾하였는데 그의 분류 기준은 후에 렐프의 공간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¹²⁰⁾

117) 노베르그 쉘츠, 2002, 앞의 책, p.21

118) 강학순, 2007, 앞의 책, pp.6~7

119) 노베르그 쉘츠, C.N.Schulze, 2002, 『실존·공간·건축』,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1971), 김광현 역, 서울: 테림문화사, pp.7~15

120) 에드워드 렐프, 2016, 앞의 책 pp.37~73 참고

<표 11> 숄츠의 공간 분류

공간 분류	해석
실용적 공간 pragmatic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생활 속 본능적인 육체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 인간을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환경과 통합시키는 원초적 공간
지각적 공간 perceptual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정위로서의 공간 • 지각적 경험으로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데 필요
실존적 공간 existential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에 관한 안정된 이미지 형성시키는 공간 • 지각적 인간을 사회적 문화적으로 귀속시킴 • 상호주관적 의미
인식적 공간 cognitive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의 경험과 그와의 관계로 공간을 인식 • 인간이 공간에 관해 사고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장소로의 전환 가능성을 의미
추상적 공간 abstract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한 논리적 관계에 의한 공간 • 논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여러 공간들을 기술하는 도구를 제공
건축적 공간 architectural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적 혹은 예술적 공간의 구성과 특성을 체계화하기 위한 공간 개념 • 추상적 구성과 특성을 구체화한 것 즉 건축가 계획가 등의 전문가들에 의한 표현적 공간의 창조를 건축적 공간이라 할 수 있음 • 실존적 공간을 구체화한 것이라 정의됨

① 실용적 공간 (pragmatic space)

구체적인 생활 세계에서 본능적인 육체적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공간과 장소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실용적 공간은 직립한 인간 신체와 공간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위 즉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 앞과 뒤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공간이며 문화의 영향과 관계없이 포유류로써의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

다. 인간의 필수적 행태가 이루어지는 실용적 공간은 장소와의 개념 구분이 무의미하다. 렐프는 이러한 공간을 그의 공간 분류에서 실용적 공간을 원초적 공간(primitive space)으로 분류하기도¹²¹⁾ 했으며 원초적 공간은 유아기 때부터의 신체의 운동 감각을 통한 원초적 경험이 쌓이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구조화된다고 했다.

② 지각적 공간 (perceptual space)

슐츠는 지각적 공간을 “직접적인 정위로서의 공간”¹²²⁾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은 직접적인 지각 경험을 통해 그 공간에 대한 개인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개인의 한 공간에 대한 이미지는 한 개인이 정체성 갖게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간은 개인이 가지는 지각적 경험으로 인해 의미를 부여받게 되고 그 의미는 공간을 장소로 전환 시킨다. 같은 공간이라도 개인적 상황과 환경적 맥락에 따라 다른 지각과 경험을 하고 다른 장소 이미지를 갖게 되므로 지각적 공간은 자아 중심적이다. 이 공간은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이는 인간의 새로운 지각 체험들에 의해 연속적으로 수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 실존적 공간 (existential space)

인간은 자신의 구체적인 생활 세계 속 일상적 환경의 공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실존적 공간이다. 지각적 공간이 한 개인의 정체성에 필요하다면 실존적 공간은 이를 개인 내부로 한정시키지 않고 사회 문화적 관계로 확장시킨다. 슐츠는 그의 저서에서 “실존적 공간은 지각적 인간을 사회적 문화적으로 귀속시킨다.”¹²³⁾고 하였다. 한 집단 구성원들은 지각적 공통분모에 의한 사회화의

121) 에드워드 렐프, 2016, 같은 책 pp.40~42

122) 노베르그 슐츠, 2002, 앞의 책, p.13

123) 노베르그 슐츠, 2002, 같은 책, p.14

결과이다. 그러므로 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화적 동질감이나 의식 등은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 앞선 술츠의 언급처럼 실존적 공간은 한 개인이 지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이다. 구조적으로 장소는 실존적 공간에서 의미의 중심¹²⁴⁾이 되는 곳이라 설명된다.

④ 인식적 공간 (cognitive space)

인식적 공간은 지각에 의한 직접 경험으로 인지하는 공간을 말한다. 수학적 과학적 논리로 설명되는 추상적 공간과는 반대의 위치에 있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환경과 자신의 관계를 통해 공간을 상대적으로 인식하는데 여기서 인간은 그 관계의 중심에 있다. 술츠는 인식적 공간은 “인간이 공간에 관해 사고할 수 있음을 의미”¹²⁵⁾한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장소로의 전환 가능성을 의미한다. 인식적 공간은 술츠의 공간 분류 가운데 상대적 공간 개념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난다.

⑤ 추상적 공간 (abstract space)

술츠는 추상적 공간을 “순수한 논리적 관계에 의한 공간”¹²⁶⁾이라고 했으며 이는 지각에 의한 직접 경험이 아닌 논리로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공간의 범위는 생활세계가 아니며, 인간의 경험과도 관계없는 추상적 공간은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하나의 위치 혹은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공간은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으므로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객관적인 논리로 설명되는 공간이다. 추상적 공간에서는 장소 이론이 성립되기 어렵다.

124) 실존 공간의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소절인 (2)공간의 구조화 참고

125) 노베르그 술츠, 2002, 앞의 책, p.14

126) 노베르그 술츠, 2002, 같은 책, p.14

⑥ 건축적 공간 (architectural space)

슐츠는 표현 혹은 예술적 공간이 갖는 구성과 특성을 체계화하는 공간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건축적 공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건축적 공간이란 “실존적 공간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¹²⁷⁾고 했다.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변화시키거나 그 요소들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속한 생활환경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것이 실존적 공간의 장소를 형성한다. 건축 공간은 이러한 실존 공간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그의 언급은 이렇듯 인간이 건축적 공간과 상호 작용으로 쉼마(schema)¹²⁸⁾를 형성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설명된다.

(2) 공간의 구조화

현상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됴으로써 구체적인 생활세계에 대한 주관성의 개념이라는 특성을 가질 수 있었던 장소 이론에서 인식의 틀을 설정하거나 구조화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장소 이론의 특성은 본 절에서 분석했던 다른 학자들의 장소론에서도 잘 나타난다. 반면 슐츠는 본 절에서 언급한 다른 학자들과 달리 공간 구조화를 통해 이러한 장소론의 성격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슐츠가 공간의 구조화를 위해 이용한 개념은 구조주의¹²⁹⁾적 분석방법이다.

127) 노베르그 슐츠, 2002, 같은 책, p.15

128) 쉼마 또는 스키마라고도 번역되어 혼용되어 사용된다. 똑같은 사물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르게 인식되는 것은 경험과 문화적인 익숙함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쉼마의 작용 때문이다. “슐츠는 피아제의 이론을 실존적 공간론에 적용하여 유기체와 주변세계 사이의 3차원적 공간을 연결시키는 매개체를 쉼마 라고 하였다. 인간은 주변 세계를 공간적으로 구조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다.” 출처: 박형진, 2007, 앞의 책, pp.59~61

129) 구조주의 [Structuralism, 構造主義] 는 사물의 참된 의미가 사물 자체의 속성과 기능으로 자체적으로 인식되거나 고정되어있지 않고 사물들 간의 관계로 결정된다는 인식을 기본 전제로 한다. 구조주의에 의하면 사물은 언제나 또 다른 사물들과 유기적인 관계망을 가지며 존재하는데 그 총체적인 관계망의 체계와 구조 안에서 사물의 위치에 따라 사물이 가지는 의미 또한 변화한다. 구조주의에서는 "개개인의 행위나 인식 등을 포괄하고 그것들의 최종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구조와

특히 구조주의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Jean Piaget)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그는 공간을 “근접, 분리, 연계, 폐쇄 및 연속 등 위상학적 관계의 모임”¹³⁰⁾으로 정의하고 장소(place), 통로(path), 영역(domains)을 실존 공간의 구성 요소이며 정위의 기본적인 쉼마라고 설명했다.¹³¹⁾ 슐츠는 그의 공간 이론에서 실존 공간을 정체성과 정위로 구조화하였다. 박형진은 그의 논문에서 구조분석에 의한 장소 이론의 전개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슐츠는 전체의 장소를 자연장소와 인공장소의 이분법적으로 파악하며, 주변세계의 총체적 의미가 실존적 공간 구조의 정위와 정체성으로 구체화된다고 함으로써 구조주의적 관점을 분명히 한다”¹³²⁾라고 하였다. 정체성과 함께 실존공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정위는 중심과 방향으로 영역을 형성하며 환경을 영역으로 구조화한다. 장소, 통로, 영역은 건축공간에서 중심, 축, 구역으로 나타난다.¹³³⁾ 슐츠는 장소, 통로,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장소’는 사건이 발생하는 지점과 같다. 중심은 현상의 근원이 되는 출발점이며 이 중심을 시작으로 원심적 혹은 구심적 활동이 일어난다. ‘통로’는 처음과 끝, 출발점과 도착점을 전제로 하며 출발과 회귀라는 이중적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이중적 움직임의 결과는 실존적 공간을 근접 ‘영역’에서부터 시각적 단계를 초월하는 영역으로까지 전개시킨다. 심지어 실존적 공간은 수평적 연장뿐 아니라 수직적 축의 신성함까지 내포하고 있다.”¹³⁴⁾

체계의 원리를 밝히려 한다.” 출처: 온라인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검색 참고

130) Norberg-Schulze,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1971, Praeger Publishers, London, p.18 (정태용, 2016, 재인용, p.92)

131) 노베르그 슐츠, 2002, 앞의 책, p.33, p.49

132) 박형진, 2007, 앞의 책, p.90

133) 정태용, 2016, “노베르그 슐츠의 건축 현상이 갖는 의의와 한계”, 실내디자인학회, Vol.25 No6, p.92 (본 논문에서는 『실존·공간·건축』의 국내 번역본에서 사용한 용어를 선택하여 결절점은 중심, 지역은 영역으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134) 이승현, 이동원, 2003, 노베르그-슐츠의 장소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건축사연구, 제 12권,

슐츠는 실존 공간을 크게 정위와 정체성으로 구분하고 정위를 장소, 통로, 영역이라는 공간 인식의 틀을 통해 공간을 구조화하여 해석한 것 외에 장소성 표출방식 또한 유형학·위상학·형태학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조화¹³⁵⁾ 하는 방법을 보였다.

(3) 공간의 정위와 정체성

슐츠의 실존 공간은 정체성과 정위의 두 측면을 가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이 구조로 실존적 공간과 그 구체화인 건축적 장소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보다 실용적이라고 하였다.¹³⁶⁾

정위와 정체성의 구분은 각각 위치공간과 공간성격의 구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거주할 때 공간 내에 어떤 곳에 위치되는지와 동시에 어떤 환경적 성격에 노출되는지에 대한 구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위와 정체성은 그 특징을 각각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으나 실존적 공간인 건축적 장소는 이 두 가지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야 비로소 형성된다. <표12>는 슴츠의 실존적 공간의 구조를 정위와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통해 보여준다.

p.152 (본 논문에서는 『실존·공간·건축』의 국내 번역본에서 사용한 용어를 선택하여 곳은 장소로 길은 통로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135) C. N. Schulz, 2000, *Architecture: Presence, Language, Place*, Skira Library of Architecture, p. 129 (이승현 외1, 2003, 재인용, p.150)

136) 노베르그 슴츠, 1996, 앞의 책, p.18

<표 12> 슐츠의 실존적 공간의 구조

실존적 공간의 구체화	실존적 공간 ↓ “실존적 공간의 구체화” ¹³⁷⁾ (concretization of existential space) ↓ 건축적 장소	
	구조	정위 ¹³⁸⁾ (定位, orientation) 정체성 ¹³⁹⁾ (正體性, identification)
	구성	장소, 통로(방향), 영역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¹⁴⁰⁾ 장소를 이루는 재료와, 형식적인 구성 (분위기)
분석범주 ¹⁴¹⁾	공간	성격
특성	추상적	구체적
영향 받은 이론	피아제의 쉼마(schema)이론	하이데거의 사물(thing)이론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를 형성하는 3차원적 조직 • 자연장소인 경관과 인공장소인 정주, 대지와 하늘, 외부와 내부로 공간을 범주화하고 그 관계로 정위 파악¹⁴²⁾ • 자연장소인 경관과 인공장소인 정주의 관계로 정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가 가지는 포괄적인 성질, 분위기 • 날(day), 기후, 빛 등의 시간 변화에 따라 변함¹⁴³⁾ • 대지와 하늘,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 어떻게 (how) 구체화되는가에 관한 것¹⁴⁴⁾
	정위와 정체성은 총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실존적 공간인 건축적 장소를 형성함	

¹³⁷⁾ 노베르그 슐츠, 1996, 앞의 책, p.5

5) 가스통 바슐라르 (Gaston Bachelard)_공간의 시학 (La)

Poétique de l'espace

바슐라르(G. Bachelard)의 저서 『공간의 시학』은 바슐라르를 시론(詩論)·이미지론(論)으로 대표되는 철학자이자 문학비평가로 알려지게 했다. 그는 소로본 대학에서 과학사·과학철학을 강의하였는데 과학적 사고에 익숙했던 학자에서 상상력의 철학으로 전향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바슐라르의 연구 방향은 과학의 진전을 촉구하는 정신의 추구에서 시와 이미지의 자유분방함을 구하는 ‘4원소(元素)’에 매개된 심층심리의 분석으로 발전하였다. 이 양자를 상호보완적으로 전개시킨 바슐라르의 사상적 영위는 프랑스의 과학사와 과학철학의 현대적인 의미 확립에 기여한 동시에 J.피아제와 L.알튀세 또는 G.칸길렘을 통하여 M.푸코에게로 다채로운 영향을 끼쳤다.¹⁴⁵⁾

바슐라르와 하이데거와는 존재에 대한 본질 규명을 연구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상상력의 현상학자라 불리는 바슐라르는 시론과 이미지론으로 그의 논리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하이데거와 차이를 보인다. 바슐라르의 사유는 크게 과학 철학과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한 전기와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이미지 현상학’ 또는 시적 ‘상상력의 현상학’을 제시한 후기로

138) “定位: 생물이 외부세계의 상태에 반응하여 그 몸의 위치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환경 사상 습관 등에 대한 적응 순응을 나타낸다.” 출처: 숄츠 C.N.Shulze, 『존재, 공간, 건축』, 2002,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1971), 김광현 역, 서울: 태림문화사, p.7의 각주

139) 정위와 정체성은 공간과 성격이라는 상호보완적 용어로 구분되어졌다.

140) 노베르그 숄츠, 2002, 앞의 책, p.49 “장소, 통로, 영역”은 Kevin Lynch의 연구에서 “결절점(node), 통로(path), 구역(district)”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출처: 노베르그 숄츠 C.N.Shulze, 1996, 같은 책, p.28

141) 노베르그 숄츠 C.N.Shulze, 1996, 같은 책, p.18

142) 노베르그 숄츠 C.N.Shulze, 1996, 같은 책, p.16

143) 노베르그 숄츠 C.N.Shulze, 1996, 같은 책, p.20

144) 노베르그 숄츠 C.N.Shulze, 1996, 같은 책, pp.16~21

145) 출처: 온라인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index.do> 검색 참고

나뉜다.¹⁴⁶⁾ 볼노의 체험공간 개념과 다르게 바슐라르가 생각하는 체험공간의 경험에는 객관적인 인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바슐라르의 그것은 주관적인 경험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시적인 상상력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바슐라르는 그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마법적인 이상주의”¹⁴⁷⁾라 부르며 상상력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가 시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였다.¹⁴⁸⁾ 현상학적으로 접근한 『공간의 시학』이 ‘관념적 상상력 이론’이라 불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장소를 개념화했던 인본주의 지리학에서도 상상력이 발현된 문학(특히 소설)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소설이 사실을 발굴하기에 좋은 원천이 아닐 수 있으나 진실을 탐색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말했다. 상상력이 넘치는 문학작품은 논리실증주의와 계량혁명에 대항하는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장치였던 것이다. 문학작품 자체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세계의 관계를 알아내고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¹⁴⁹⁾

(1) 이미지 현상학으로의 체험과 공간

『공간의 시학』은 인간과 인간으로부터 체험되는 집과 서랍, 상자, 장롱 등 인간이 체험하는 공간 세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체험공간의 철학이다.

바슐라르는 이미지의 현상학이란 “이미지가 사유 이전에 존재한다는 특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¹⁵⁰⁾이라 말한다.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다양한 시적 교감과 주관적인 느낌들을 구체적인 묘사들을 통해 이미지로의 체험하는 것이다. 바

146) 강학순, 2011, 『존재와 공간 : 하이데거 존재의 토폴로지와 사상의 흐름』, 서울: 한길사, p.380

147) Gaston Bachelard, *La terre et les rêveries de volonte*, 1945, Paris: José Corti, Collection : Les Massicotés p.5 (오토 볼노, 2011, 재인용 p.21)

148) 오토 볼노, 2011, 앞의 책, p.21

149) 팀 크레스웰, 2015, 앞의 책, pp.163~164

150) Gaston Bachelard, *La Poétique de la rêverie*, 1974, Paris: PUF, p.4

슐라르에 의하면 상상의 현상학이란 “시적 이미지가 마음의, 영혼의, 존재의 직접적인 산물로서 의식에 떠오를 때, 그 이미지의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¹⁵¹⁾ 이는 인간과 분리되어 인간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수학적 공간이 아닌 상상력으로 인한 이미지로 파악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전개이며 이러한 상상력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바슐라르의 『공간의 시학』의 주요 내용이다. 바슐라르의 체험은 상상력이 바탕이 된 주관적인 경험을 기본으로 한다. 강학순에 따르면 상상력은 이성의 활동과는 다른 의식의 활동영역에 속한다.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성의 활동에 종속되거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며 이성과 상상력은 상호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이 바슐라르가 이야기하는 이미지의 현상학이다. “바슐라르는 현상학을 통해서 공간 및 대상을 지향성의 축에 올려놓고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현상학은 시적인 지향성을 통해 시인의 이미지를 자신의 것으로, 시인의 작품을 자신의 작품으로 삼는 역동적인 자세를 요구한다.”¹⁵²⁾ 고 언급하며 시적인 지향성을 부각시켰다.

(2) 거주와 집

바슐라르는 “집은 인간에게 안정의 근거나 환상을 주는 이미지들의 집적체”¹⁵³⁾라 하며 집을 “행복한 공간”, “사랑받는 공간”, “적대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는 공간” 등으로 표현했다.

그는 집을 “인간의 영혼에 대한 분석 도구”라고 하였는데 집의 이미지를 통해 “기술 심리학, 심층심리학, 정신분석 그리고 현상학은 집의 이미지에 통합된 학설을 이룰 수 있겠는데, 그것을 우리는 장소분석이라는 명칭으로 지칭하기로

151) 가스통 바슐라르 Gaston Bachelard, 2003, 『공간의 시학』 (*La Poétique de l'espace*, (1957). 광광수 역, 서울: 동문선, p.44

152) 강학순, 2011, 앞의 책, pp.381~382

153) 가스통 바슐라르, 2003, 앞의 책, p.95

한다.” 라고 하며 집의 이미지를 내밀한 존재의 지형도가 되듯이 여긴다고 하였다.¹⁵⁴⁾ 바슐라르는 지하실에서 지붕 밑 방까지 인간이 일상생활 세계에서 접하는 집의 공간세계에 대한 분석으로 경험과 체험공간에 대해서 고찰한다. 그는 기하학적인 공간과는 달리 상상력에 의해 파악된 거주공간으로서의 집의 내밀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에게 집은 단순히 물리적 형태를 가진 곳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최초의 세계이며 우주이다.¹⁵⁵⁾ 바슐라르는 시적 상상력을 통해 체험으로 인한 주관적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집이라는 공간을 시적 공간으로 분석하면서 상상과 집의 관계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설명한다. 그는 수직성과 구심성을 언급하면서 지하실과 다락방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장소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바슐라르의 시적 사유는 집을 추억과 꿈과 몽상의 집, 즉 고향으로 여기게 만들며 집은 물리적인 것을 넘어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집이란 풍경보다도 더 ‘한, 영혼의 상태’이다. 외적인 모습에서만 재현된 것일지라도 집은 내밀성을 이야기하게 마련이다.”¹⁵⁶⁾라고 했다. 강학순은 이러한 바슐라르의 집에 대한 언급을 그의 저서에서 해석했다. 집에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 중 생생한 기억을 다시 불러낼 수 있으며 꿈의 뿌리와 애착, 심오함, 은닉, 무궁무진함이 깃든 지하실 위에 세워진다고 하였다. 또한, 집을 피난처, 은신처, 중심지, 거점이라고 말하며 꿈과 추억 속에서 보호의 힘을 갖는 이미지로까지 간주된다고 하였다.¹⁵⁷⁾

3.2. 장소론을 통한 장소 특성 도출

154) 가스통 바슐라르, 2003, 같은 책, pp.69~71

155) 강학순, 2011, 앞의 책, pp.382~383

156) 가스통 바슐라르, 2003, 앞의 책, p.166

157) 강학순, 2011, 앞의 책, pp.383~384

앞 절에서는 공간과 장소에 대해 논했던 학자들의 저서를 통해 장소 이론을 분석했다. 이번 절에서는 학자들의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소 이론의 특성들을 중심성/영역성, 시간성/맥락성, 상징성, 정지성, 체험성, 정체성의 6가지로 분류하여 최종 도출하였다.

1) 중심성/영역성

뿌리 내림으로 표현되는 중심성과 영역성은 장소 정체성과 관계가 깊다. 외부에 존재하는 미지의 세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세계와는 대조적으로 이미 알려진 것을 뚜렷이 밝혀 주는 것을 뜻한다.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로서 그 공간 속에서 영역을 가지며 위치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투안은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세울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 애착을 가지는 곳을 장소라 설명하였다. 렐프는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정된 지점을 갖는다는 것이고, 사물의 질서 속에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잡는다는 것이며, 특히 어딘가에 대한 중요한 영적, 정신적 애착을 갖는다는 것이다”¹⁵⁸⁾라고 말했다.

2) 시간성/맥락성

장소 이론에서 인간과 그 환경과의 관계를 볼 때는 그 관계 자체를 총체적이고 맥락적으로 본다. 이는 실존주의와 현상학의 영향으로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간 개념과 구분하여 장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다. 인간과 대상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와 달리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환경 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은 인간 내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또한, 환경이 갖는 의미는 환경이나 의식 속에 각각 존재하는 것이

¹⁵⁸⁾ 에드워드 렐프, 2016, 앞의 책 (팀 크레스웰, 2010, 재인용, p.161)

아니며 환경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에 있다고 본다.¹⁵⁹⁾ 환경이 제공하는 요소들이 인간의 체험에 의미를 주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맥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는 시간의 층위가 쌓임으로써 더욱 강한 맥락성을 가지게 되는 데 이러한 시간성과 맥락성은 장소의 특성으로 도출된다.

3) 상징성

상징성은 공간을 구축하는 물리적 요소들이 도시 내에서 어떻게 명확한 방향감과 질서를 만드는가에 관한 것이다.

술츠는 건축물 외관의 정면성과 입구성이 만드는 기념비성은 도시 내 명확한 방향감과 질서를 만드는 요소라 말하였다. 렐프는 인스턴트식 신도시와 교외, 상공업 지구의 개발 국제적 스타일의 설계와 건축을 도시 내에서 상징성을 갖지 못하는 무장소성의 표출이라 비판하였다. 그는 상징성 없이 틀에 박힌 관광 건축물과 인공 경관, 가짜 장소들이 경관을 파괴한다¹⁶⁰⁾고 하였으며 상징성 없는 이러한 것들이 장소를 상실하게 한다고도 하였다.

4) 정지성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떠한 환경이 개발 등으로 인해 변화하거나 한 곳에서 시간을 쌓을 수 없도록 움직인다면 그곳은 이미 장소가 아니다.

이-푸 투안은 움직임이 정지하고¹⁶¹⁾ 정지한 곳에서 사람이 정서적 층위를 쌓을 때 장소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렐프는 무장소성의 예를 들어가며

159) 이규목, 1992, 도시와 상징, 서울: 일지사, pp.30-32

160) 에드워드 렐프, 2016, 앞의 책, p.203

161) 에드워드 렐프, 2016, 같은 책, p.221

설명하였는데 무장소성의 반대 개념으로 장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유의 맥락을 이어오던 한 장소의 지속적인 개발과 변화는 장소를 훼손하는 일이며 이는 장소를 상실하는 일이라고 언급하였고 일시성을 가지는 것은 무장소의 표출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장소 특성 중 하나인 정지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5) 체험성

공간과 비교하여 장소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인간의 활동과 체험은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물리적 환경 속에 인간의 활동과 경험이 더해지면서 의미가 생성되고 이는 비로소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실증주의적 학자들은 세계와 그 안의 사람을 바위나 자동차나 얼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¹⁶²⁾ 하지만 실존주의와 현상학의 영향을 받은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은 경험과 주관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세계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 하였다. 경험 중에서도 체험이라는 것은 사람이 환경과 관련을 맺어 그 공간을 장소로 전환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것은 체험 없이는 형성되지 않는 장소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6) 정체성

정체성은 중심성과 영역성을 가지면서 성립된다. 장소의 정체성은 자신의 생활 장소와 관련하여 인간이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며 이는 인간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그 장소에 대한 친밀감, 애착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 장소와 유대감을 형성했을 때 가능하다. 투안은 그의 저서에서

¹⁶²⁾ 팀 크레스웰, 2015, 앞의 책, p.160

이러한 친밀한 장소를 설명하면서 집과 고향에 대한 애착을 예로 들었으며 고향은 이정표와 같다¹⁶³⁾고 표현하였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존재와 어디에서, 어떻게 관련을 맺든지 간에 정체성은 반드시 생겨나게 된다.”¹⁶⁴⁾고 말했다. 렐프는 정체성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소의 정체성(identity of place)”과 “장소에 대한 정체성(identity with place)”이 그것이다. 렐프는 장소의 정체성이 장소 경험에 영향을 주고받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정체성은 장소 간의 차이나 동질성을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이 속에서 동질성을 확인하는 훨씬 근본적인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갖는 장소에 대한 정체성은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이 외부인인가 내부인인가가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¹⁶⁵⁾

<표13>은 장소 이론을 펼친 학자들의 저서를 바탕으로 도출한 장소의 특성과 각 저서의 내용들 중 대표적인 설명들을 장소의 특성별로 분류한 것이다.

163) 이-푸 투안, 2011, 앞의 책, pp.219-259

164) 팀 크레스웰, 2015, 앞의 책, p.110

165) 에드워드 렐프, 2016, 앞의 책, p.110

<표 13> 학자별 관점으로 분석한 장소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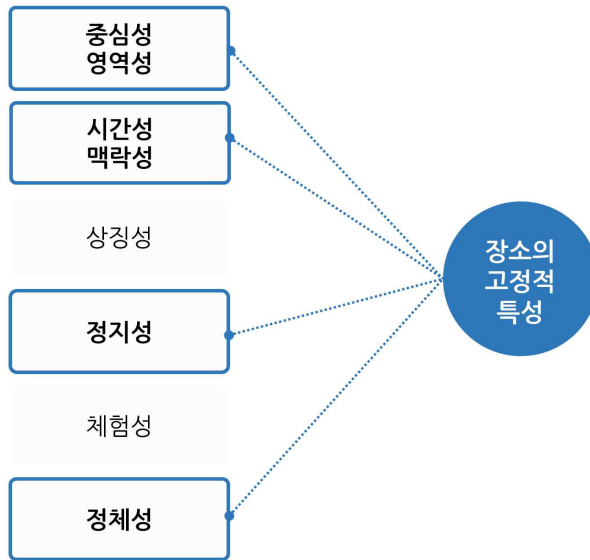
특성	대표적인 내용
중심성 영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 고향, 지역, 국가에 속해있다는 무의식적 장소감이 동반되어야 함 [에드워드 켈프] • 공간 속의 기준점에 뿌리를 두어야 하며 기준점은 인간의 공간 속 입지를 얻는 장소로 머물며 살아가는 곳 [오토 불노] • 중심은 외부 미지의 세계와 대조적으로 안전하고 안락한 존재 상태를 가지며 이런 장소에서 뿌리 내림과 같은 정체성을 느낀다. 뿌리 내림은 '집에 있음' 상태, 즉 안전지대를 갖는다는 의미 [이-푸 투안]
시간성 맥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의 층위가 쌓여 지역의 맥락에 맞는 뿌리 내림이 가능해야 동질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에드워드 켈프] • 정서적 층위를 쌓아 의미가 발생하는 곳에서 장소 생성 [이-푸 투안]
상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관의 정면성과 입구성이 만드는 기념비성 [노베르그 슐츠] • 도시 내 명확한 방향감과 질서를 만드는 것 필요 [노베르그 슐츠] • 장소가 되는 실존적 공간은 중심, 통로, 구역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통로는 방향성을 상징 [노베르그 슐츠]
정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장소가 지속적인 개발과 변화를 할 때 장소가 훼손됨 [에드워드 켈프] • 멈춤과 쉼, 관계를 맺어감에 대한 것이 장소 움직임이 정지하고 한 곳에 정지해 정서적 층위를 쌓을 때 장소가 형성될 수 있다 [이-푸 투안]

체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은 공동으로 함께 사는 삶의 체험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장소 [오토 볼노] • 장소는 행위와 의도의 중심이며 우리가 실존의 의미 있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중심 [노베르그 슐츠]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장소를 통해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함 [에드워드 켈프] • 개인이나 집단이 장소에 대해 심리적 애착을 가지면서 형성 [에드워드 켈프]

3.3. 소결

본 장에서는 장소 이론을 분석하였다.

먼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장소 이론이 대두된 경위와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된 과정을 공간에서 장소로의 공간 개념 변화와 장소의 관념적 배경과 함께 살펴보았고, 잘 못 쓰이거나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관계된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여 체계화 하였다. 또한, 장소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화한 인본주의 지리학을 중심으로 장소론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저서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장소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이론을 파악하였다.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장소 이론에서 장소는 중심성/영역성, 시간성/맥락성, 상징성, 정지성, 체험성, 정체성이라는 여섯 가지로 특성으로 체계화할 수 있었으며 <그림 19>과 같이 이 중 네 가지인 중심성/영역성, 시간성/맥락성, 정지성, 정체성에서 고정성이라는 공통된 성격을 보인다는 것을 분석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그림 19> 장소의 고정적 특성

전통적인 장소 이론의 특성들에서 공통점으로 도출되는 고정적 특성은 과거 장소론 정립 당시의 시대적 공간 의식을 비롯해 정주적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보편적이었던 그 시대의 다양한 환경적 배경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과거 장소론에서 보이는 장소 개념의 고정적 특성은 비고정성이라는 패러다임이 대두된 현시대에서는 한계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 살펴본 ‘공간의 고정성 개념으로의 장소론’ 파악은 과거의 개념에 머물고 있는 장소론의 장소 개념이 노마디즘 시대를 포용하기 위해 어떻게 재해석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것이다.

4. 공간의 비고정성 개념으로의 노마디즘

4.1. 패러다임의 변화

- 1) 하이컨셉 사회
- 2) 힘의 분산과 다원화
- 3) 녹색사회
- 4) 불안과 혼돈의 가중
- 5) 기체사회
- 6) 가치자본
- 7) 10억분의 1초의 시대
- 8) 가상 시대
- 9) 다층적 융합화
- 10) 공동선의 지향
- 11) 초고령 사회
- 12) 즉각적 개인화

4.2. 현대 노마디즘 패러다임의 배경

4.2.1. 현대 노마디즘의 개념

4.2.2. 기술-정보적 배경

- 1) 디지털 혁명
- 2) 교통의 발달

4.2.3. 사회-문화적 배경

- 1) 다원주의
- 2) 유기론적 세계관
- 3) 소유 개념의 변화
- 4) 통섭의 시대
- 5)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4.3. 현대 노마디즘 이해

4.3.1. 철학적 사유로서의 노마디즘

- 1) 점과 선의 사유방식_고정에서의 해방
- 2) 사건과 배치_새로운 자아 정체성 생성
- 3) 리즘_위계 없는 네트워크

4.3.2.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

- 1) 탈본질주의, 탈경계
- 2) 탈중심, 비위계의 네트워크
- 3) 소유개념 변화
- 4) 새로운 자아의 정체성 탐색
- 5) 접속의 시대

4.4. 노마디즘 관점에서의 현대 공간

4.4.1. 노마디즘과 관계적 공간 개념

4.4.2. 노마디즘 관점에서의 현대 공간 사용 양상

- 1) 제3의 공간 사용 확대와 컨버전스
- 2)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변화
- 3) 공간의 즉흥적/우연적/일시적인 사용

4.5. 소결

4. 공간의 비고정성 개념으로의 노마디즘

4.1. 패러다임의 변화

21세기 사회 전반에 나타난 현상들 중 미래 지속력이 인정되어 앞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시적 메가트렌드들은 12개의 키워드¹⁶⁶⁾로 표현된다. 이는 사회-문화 Society, 기술-정보 Technology, 생태학적 환경 Eco, 경제 Economy, 정책-법규 Policy의 다섯 분야를 망라한 것으로 21세기 패러다임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한다. 이 소절에서는 이러한 12개의 거시적 메가트렌드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현대 노마디즘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한다. 이는 현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미래는 어떻게 전망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현대 노마디즘을 현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과거 장소론의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타당성 또한 확인하기 위함이다.

1) 하이컨셉 사회

하이컨셉 사회란 서로 관계없는 전혀 다른 것들을 재조합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우뇌형 사고가 인정받는 사회이다. 합리와 기능보다는 감성, 공감, 창의력이 중시된다. 창조적 모방, 창의적 워크 스페이스 확산(오피스 공간과 유머 경영(management by fun)), 1인 창조기업 부상, 오픈소스(open source)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등의 온라인 정보공유의 보편화 및 전문화의

¹⁶⁶⁾ 본 소절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KDRI, "Future forecasting 2.0_2013 Special report", 2013, 서울:KDRIL, pp.6~11와 서울대학교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KDRI, "Urtrend.net_2014 Annual report", vol.5, 서울:KDRIL, pp.77~83, pp.99~105, pp.121~127의 Future Zodiac 의 12가지 분류체계를 그대로 따랐으며 이를 기반으로 내용은 부분 발췌하거나 직접 보충하였음을 밝힌다.

영향을 받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2) 힘의 분산과 다원화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었다. 하나의 중심을 향해 집중되었던 정치, 경제의 힘이 다양한 지역과 개인으로 분산되어 개개인의 감성 및 잠재력과 지역별 고유문화가 존중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개인의 소셜 네트워크 영향력 증가로 개인의 기호에 맞춘 프로그램 편성 및 채널 형성은 물론 진행 중 실시간으로 타인과 정보 교환 및 피드백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이다. 누구나 쉽게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한다.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손쉽게 구현 가능하고, 집단지성이 형성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생활 전반에 걸친 필요 정보 및 지식 공유가 일반화되었다. 스마트 워크, 근무 유연제 확대와 함께 개인이 스스로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 주도권’이 형성되어 라이프밸런스에 대한 의식 또한 상승하는 추세이다. 3d프린터 기술의 가정 내 보급으로 홈 하드웨어 제조 시대 개막하였고 변방에 있던 어떤 것들도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마이너 코드가 통하는 사회가 도래하였다.

3) 녹색사회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과 재해, 자원 고갈 등에 따른 환경문제 체감과 불황의 장기화로 사람들의 녹색가치 추구는 가속화되어 스마트 융합기술과 생태주의적 사고를 통해 녹색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기술 및 정책들이 마련되고 이를 만족시키는 친환경 제품이나 공간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옥상녹화, 도시농업, 아파트 옥상 가드닝 등 안전한 먹거리와 키우는 즐거움을 동시에 충족함은 물론 자연공조를 통한 관리비 절감이라

는 경제적 효과를 함께 노린다.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국민보급용 친환경 주택 상용화 작업 본격화하고 있다. 새로운 가공방식 등의 개발로 업사이클링(upcycling) 범위 확장 및 다양화되었으며 친환경적 도시재생사업 확대로 버려진 공장이나 산업단지 등을 친환경 체험의 장소로 활용하는 사례도 세계적인 추세이다.

4) 불안과 혼돈의 가중

급속한 기술발전과 도시화의 폐단으로 테크노스트레스, 가족 붕괴, 자원고갈 및 재난의 일상화 등 위기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사람들은 불확실한 삶의 불안을 해소하고 심적 위안과 치유를 위한 근본적 문제 진단과 인간, 사회, 자연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공감한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디바이스와 SNS의 보급으로 세대/계층 간 정보 격차가 증가하고 여론 분열이나 조작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IT기술 발전의 속도와 비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보안 이슈 또한 증가하였다. 기술의 발전으로 더 바빠진 사람들은 진정한 휴식, 느낌의 미학에 주목하고, 과거로의 회귀 본능이 강해진다. 심리적, 경제적으로 불안한 현실 도피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스트레스로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에 대한 관심이 ‘코쿠닝’¹⁶⁷⁾ 형태로 나타난다.

5) 기체사회

시간을 두고 층위를 쌓아가거나 어떠한 권력이나 의무에 의해 강제적으로 속하게 되는 집단이나 공동체가 아닌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집단을 만들고 소

¹⁶⁷⁾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팝콘(S. Popcon)이 붙인 명칭이다. 그는 현대사회를 누에가 고치를 짓는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활동반경을 축소시키게 된다고 해서 코쿠닝, 즉 '누에고치짓기현상'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527&cid=43667&categoryId=43667>

떨시키는 현상이 일반적이 되어가고 있다. 개인의 힘이 주체적 자유를 가져 타의가 아닌 자발적 필요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움직이는 빠른 적응력과 진화력을 가진 이런 집단은 소셜네트워킹에 의한 소통의 혁명으로 가능하다.

6) 가치자본

물질적 가치보다는 창의성, 감성, 경험, 지혜, 문화, 전통, 시간의 여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를 거래하는 생태계가 생성되고 있다. 서비스디자인의 발전이 그 좋은 예이다. 시대와 영역을 넘나드는 콘텐츠,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과거의 추억을 통해 위안을 얻고 불안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심화되었다. 자연/ 소통/ 공동 선은 물론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 재해석을 통해 가족과의 시간이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여유로운 삶 추구에 가치를 둔다. 도시를 떠나 가족과 함께 한적한 전원생활을 누리는 사람들 증가하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떠나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로의 여행과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일상생활 중에서도 빠르게 공간을 이동해 짧은 시간동안 즐길 수 있는 도심 내 휴양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도심 내 휴양은 여전히 도심 속에 머물러 있기는 하나 일상적인 장소가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가지는 심리적 육체적 휴식을 위함이다. 이러한 현상은 호텔체인의 또 다른 역할을 만들었는데 특정 기간을 위한 패키지나 이벤트 상품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개인의 행동과 신체 상태 데이터를 자동 기록하고 분석해주는 라이프트래킹 서비스 등 개인의 일상을 쉽게 저장하고 편집함, 삶을 기록한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용 블랙박스를 만들고 사후에도 다음 세대 및 타인들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등, 보이지 않는 다양한 가치들에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7) 10억분의 1초의 시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엄청난 양의 정보가 인간의 사고능력보다 빠르게 처리되는 속도 진화에 익숙해진 인간에게서 이전 시대의 아날로그적 신중함과 인내심은 감소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고령 세대 간 체감속도의 격차가 갈등을 야기해 삶의 부적응,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속도를 주체적으로 조절하며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8) 가상 시대

사람들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세계의 삶과 체험을 더 친밀하게 느끼며,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경험과 인공적이고 가상적인 경험이 조화롭게 통합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실재와 허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원형적 본질과 진정성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초연결시대로 사물인터넷이 발전하고, 로봇이 등장하며, 증강현실, 센싱과 네트워킹의 신경험이 일상으로 확산되어 더욱 친숙해지고 있다.

9) 다층적 융합화

단순히 평면적 결합을 넘어 이질적인 장르와 장르가 어우러지고,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서로의 장점을 선별적으로 취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입체적인 융합이 일반화된다. 거주 공간 또한 다목적/다기능 공간으로의 다양한 역할을 다한다. 서로 다른 요소 간 결합을 통해 새롭고 창조적인 산업, 제품, 서비스가 등장하며, 기업간 협업¹⁶⁸⁾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어디서나 데이터 전송-공유할 수 있으며 I.O.T.기술의 접목으로 주변의 사물들이 스마트 디바이스로 진화되고 있어 앞으

¹⁶⁸⁾ KDRI에 의하면 2016년 전 세계 기업용 소셜 협업(Social collaboration) 시장 매출은 35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로는 이들이 서로 융합되어 새로운 기능과 가치 생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간 역시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발달로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되어 컨트롤 가능한 시대이다.

10) 공동선의 지향

경제위기, 환경위기, 기술의 발달 등이 야기하는 불안과 혼돈의 해결점을 인간의 정신적 선함과 조화의 자세에서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치판단이 빠르고 용이하며 이를 나눔과 참여로 이끌어 내어 효과를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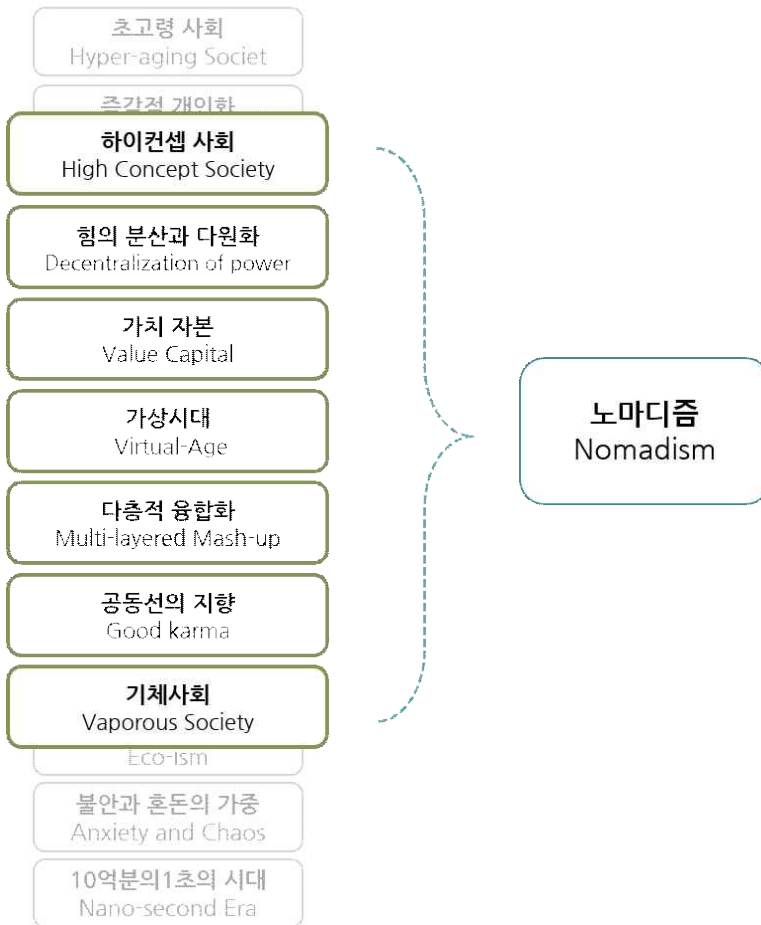
11) 초고령 사회

베이붐세대가 고령화되어 경제력을 가진 신세력으로 부상하였다. 그들은 능동적인 삶과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새로운 실버 세대이며 웰빙(well-being), 웰 에이징(well-aging), 웰 다잉(well-dying) 등 건강하고 자존감 있는 삶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노인 단독세대, 혹은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을 위한 단독마을, 초고령화에 의한 5세대 가구, 3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 부활 등 가족 형태와 주거 형태의 다양화를 불러왔다.

12) 즉각적 개인화

오감재생 및 인지 측정기술의 발달과 편의성과 휴대성이 극대화된 웨어러블 스트 기기의 발달로 사용자의 기분, 감정 상태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정보를 축적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행위를 예측하여 즉각적인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대이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글로벌한 소비 지향가치 변화 흐름이 리얼타임으로 동기화되어 지역적, 시간적 격차가 감소되었고 사실상 무

의미해졌다. 이는 가치의 흐름이 공동체나 지역 등에서 개인으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그림 20> 노마디즘 개념을 포함한 21세기 패러다임

4.2. 현대 노마디즘 패러다임의 배경

앞 서 언급한 12가지의 메가트렌드¹⁶⁹⁾ 중 7가지(하이컨셉 사회 High

¹⁶⁹⁾ 메가트렌드란 일반적으로 20-30년 이상 지속된 현대 생활인의 가치체계, 선호와 취향의 복합 구

Concept Society, 힘의 분산과 다원화 Decentralization of power, 가치 자본 Value Capital, 가상시대 Virtual-Age, 다층적 융합화 Multi-layered Mash-up, 공동선의 지향 Good karma, 기체사회 Vaporous Society)가 현재 노마디즘 패러다임에 포함되었다.

이 소절에서는 노마디즘의 광의적 의미를 포함하는 현대 노마디즘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현대 노마드적 패러다임의 배경을 기술-정보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배경의 범주 안에서 파악한다. 이는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의 다섯 가지 (사회-문화 Society, 기술-정보 Technology, 생태학적 환경 Eco, 경제 Economy, 정책-법규 Policy) 거시환경으로 범주화¹⁷⁰⁾의 분류를 기준으로 그 중에 기술-정보적 양상과 사회-문화적 양상의 범주 안에서 그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4.2.1. 현대 노마디즘의 개념

“산업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세계는 구석구석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계화, 디지털화, 가상 세계화, 개인화라는 개념들이 기존의 경계를 무너뜨린 새로운 지평선을 활짝 여게 되었다. 인류가 역사상 일찍이 지금처럼 유동성이 요구되고 장려된 적이 없었다. 안주하면서 살아왔던 문이 이제 활짝 열려 외부로부터 무한한 가능성이 흘러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위험과 불안정의 파도까지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다.”¹⁷¹⁾

-군돌라 앵리슈-

유럽의 철학자, 사회학자들로부터 시작되어 현대사회의 문화, 심리 뿐 아

조, 태도와 실천 전반의 질적 특성과 방향성을 전파시키는 심층적인 사회변화 등을 말한다.

170) 서울대학교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KDRI, “Future forecasting 2.0_2013 Special report”, 2013, 서울: KDRIL, p.6에서 사용한 다섯 가지 거시환경 범주화를 기준으로 따랐음을 밝힌다.

171) 군돌라 앵리슈, 2002, 앞의 책, p.37

나라, 경제와 정치계까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노마디즘이다. 처음에는 근대의 개인, 노동,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려는 일련의 탈근대론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던 것이 미래학, 인류학, 문학, 예술 등의 학문분야를 넘어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노마디즘이 탈근대론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전반에 불어온 고정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키워드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유목주의라 해석하는 노마디즘은 규범적 삶의 방식을 따르거나 특정한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찾는다는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의 철학적 개념에서 유래했다. 이 개념에서는 고정된 중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이동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동이란 물리적인 위치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마디즘에서의 이동은 기존 영역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정신적 이동까지를 의미한다.¹⁷²⁾

들뢰즈의 철학이 현대 노마디즘을 설명하는 근원적 사유라 할 수 있지만 현대의 유목민 문화를 처음 언급한 사람은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개념을 창안해 내기도 했던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 마셜 맥루언(Herbert Marshall McLuhan)이다. 1970년대 그는 이미 미래의 인류가 전자제품을 이용하며 이동하는 유목민이 될 것이고, 정주지로의 집은 없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닐 것임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현대 디지털 노마드 탄생의 예견했다.¹⁷³⁾

172) 조윤경, 2006, “현대 문화에 있어서 노마디즘과 이동성의 의미 -Attali와 Maffesoli의 논의를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제 66집, Vol.66, p.326

173) 마셜 맥루언 Herbert Marshall McLuhan, 브루스 파워스, Bruce R. Powers, 박기순 역, 『지구촌: 21세기 인류의 삶과 미디어의 변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참고

<표 14> 학자별 노마디즘 개념

	학자별 노마디즘 개념
사전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를 정하지 않고 목적을 따라 가족을 몰고 다니며 하는 목적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차이와 반복』 『천개의 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마돌로지 (nomadology): 유목적 사고, 생성의 운동 고정된 자아를 거부 / 규범과 고정관념 탈피 제자리에 앉아서도 특정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고착되지 않고 끊임없이 탈주선을 그리며, 새로운 자아와 정체성을 찾아 자유로운 삶을 찾아가는 사유의 여행_탈 영토화로 표현
자끄 아탈리 (Jacques Attali)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목민은 21세기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미래는 정주인 체계에서 유목민 체계로 회귀할 것
미셀 마페졸리 (M. Maffesoli) 『노마디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된 것을 거부하는 인간 주체 다원성의 수용이 가능하며 스스로 다원적인 주체 방향을 통한 다양한 타자들과의 접속과 다원성 체험의 노마디즘
군둘라 엥리슈 (Gundula Englisch) 『잡노마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만 년 동안 정주생활에서 익힌 경제 사회 정신적 기준에 제도 필요 노마디즘에서 이동은 정신적, 사회적, 감정적 이동은 물론 새로운 경험과 사고의 지평을 열고자 하는 욕구도 포함됨 고정된 규칙과 관계는 무너지질 것 유목적 전략과 적응 법은 창조적인 자극제
최항섭 “노마디즘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마디즘은 디지털 모빌리티를 넘어 개인의 의식과 정체성,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자유와 같은 철학적 사회학적 의미로의 자유까지를 내포한다.
조윤경 “현대문화에 있어 노마디즘과 이동성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마디즘에서 이동이란 물리적 이동뿐 아니라 기존 영역을 횡단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정신적 이동을 함께 지칭한다.

4.2.2. 기술-정보적 배경

본 논문에서는 기술 결정론적 관점으로 기술-정보적 발달을 다루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나 현대 노마디즘 패러다임에 있어서 기술-정보적 발달이라는 배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교통의 발달과 디지털이라는 기술로 인한 정보의 수평적 접근성의 확보는 세상을 바꿔놓은 혁명에 가깝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이동을 기본으로 정신적 감성적 사회적 이동까지를 포함하는 현대 노마

디즘의 발생 배경에서 이 두 가지 기술의 진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으며 거시적 관점에서 노마디즘 현상을 가능하게 한 가장 근원적인 배경이다. 교통의 발달은 물자 및 사람들의 자유로운 물리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디지털 혁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지식과 정보가 수평적인 접근성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정신적 감성적 사회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1) 디지털 혁명

<표 15> 인류사의 3대 혁명

출처: 김범석, 2012, “현대건축에서 드러난 유목적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8

	농업혁명 (B.C.7000년경)	산업혁명 (1760년대)	디지털혁명 (1990년대)
변화동인	원시도구	기계엔진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변화주도	물리력	경제력	지식과 정보
통제구조	혈연, 지연의 가부장제	지식과 정보	수평적 네트워크

디지털은 아날로그와 대응되는 의미로 0과 1의 두 가지 숫자로 모든 형상을 받아 읽어내는 것이라 사전적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의 디지털 혁명으로 탈산업과, 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한 21세기 현대 사회의 모습이며 디지털 혁명이 현대 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인 노마디즘의 형성에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뿐 아니라 일하고 공부하고 여가를 즐기는 등의 일상

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방식들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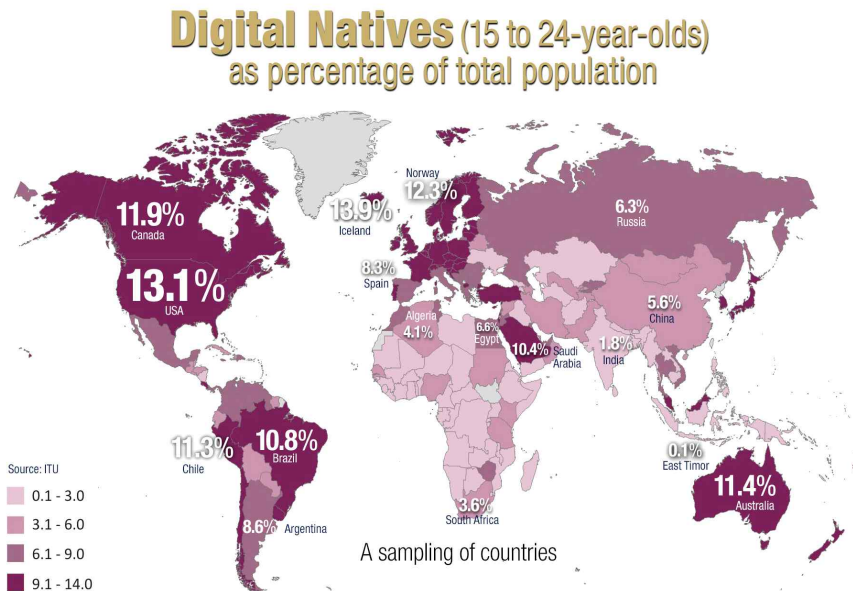
산업혁명 때부터 급속히 발달한 기술과 기계가 사람의 물리적 근력을 확장하게 했다면 디지털은 사람들의 사고와 정신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사람의 노동력과 기계의 힘이 결합하여 물질적인 생산을 극대화시켰다면 디지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비물질적 가치들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디지털 환경은 현대 사회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디지털 기기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누구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곽수일은 그의 논문에서 디지털 정보화에 의해 형성되는 미래의 모습을 “Globalized Community, Intangible Community, Interlinked Community”¹⁷⁴⁾의 3가지로 특징지었다. 첫 번째 ①Globalized Community란 지리적 개념이 파괴되어 국가나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그의 예컨대처럼 현재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접속하는 시간만큼의 거리를 둔 글로벌한 세상이 되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물리적으로 상품을 전시하는 상점이라는 공간이 필요 없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발달이다. 인터넷 쇼핑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원하는 물건을 물리적 시장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주문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혁명은 제품의 판매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환경,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예외 없이 일어났고 그 형태와 방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는 물론 국외의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쇼를 SNS라이브 기능을 통해 누구든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으므로 세계 어디서든 누구든 그것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여행을 떠날 때도 물리적 이동전에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그곳을 온라인으로 사

174) 곽수일, “디지털 정보화와 미래사회”, 『경영정보논총』, 1999, pp.21~32 참고

전 답사하여 그 지역의 명소나 숙박시설, 맛집 등의 정보를 얻는 것은 여행 가방을 싸는 일처럼 지극히 당연한 여행 준비과정이 되었다. 또한, 세계 어디에선가 일어난 환경 파괴나 재난의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나 후원활동 또한 온라인에서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공약 홍보나 온라인 선거 유세 등의 정치활동 또한 오프라인의 그것과 비견될 만큼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두 번째 ②Intangible Community란 새로운 공¹⁷⁵⁾동체 사회는 유형의 자산보다는 무형의 것들로 주축을 이룬다는 것이다. 과거 거대한 철강공장이나 석유화학공장 등 유형의 것들을 생산하는 것에 가치를 두어 그것이 발전의 상징이었다면, 현재는 무형의 것들인 통신매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것들의 가치에 주목하는 시대다. 무형의 것들에 대한 콕수일의 가치이동에 대한 주장은 과거와는 다른 소유에 대한 개념 변화라는 현대 사회의 현상으로도 쉽게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③Interlinked Community란 새로운 공동체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 네트워크는 경제 구조를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개인, 인간생활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예견 또한 현대 사회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접속이 가능한 S.N.S. (Social Network Services)는 다양한 정보를 수평적으로 나누는 장이 되었고 과거 특정한 단체에 소속되어 오랜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보하려 했던 개인은 이제 개개인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며 그 개인들이 서로를 연결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175) 소유 개념이 변화에 관해서는 4.3.2.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하겠다.



<그림 21> 인구 대비 디지털 네이티브 비율 2013년

출처:

<http://www.news.gatech.edu/2013/10/07/where-world-are-young-people-using-internet>

“돈 탭스콧 (Don Tapscott)¹⁷⁶⁾은 넷세대 혹은 N세대란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 성인이 된 본격적인 디지털세대를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라고 부르고 있다.”¹⁷⁷⁾

정보통신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란 특정 시기에 태어난 인구집단으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의식이나 행동에서 뚜렷하게 다른 시기에 출생한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집단”을 의미한다. 보통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지

176) 미래학자이자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가이다. N세대라는 말은 돈 탭스콧이 1997년 쓴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원제: Growing up digital)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이기도 하며 매크로위키노믹,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캐피탈, 투명경영,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등의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다.

177) 이호영 외 4인, 2013, “정책연구 13-49 : 디지털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비교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3권 49호, p.xiii

만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3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미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와 태도를 가진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된다.¹⁷⁸⁾

정치적 역사적 경험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사고의 방식이나 행동의 양식 등이 변할 수 있으나 디지털 세대에게는 디지털 혁명이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영향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조지아 텍(Georgia Tech)의 자료에 의하면 <그림 21>과 같이 2013년 전체 인구대비 디지털 네이티브의 비율은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비율의 카테고리에 속하며 15세~24세 사이의 젊은이들 중 99.6%가 디지털 네이티브로 세계 1위다. 미래로 갈수록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는 늘어갈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의 영향을 그 기술-정보적 배경으로 하는 노마디즘 패러다임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공간 사용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표 16> 디지털 문화의 탈근대화 현상

출처: 최지운, 2002, “후기구조주의 사유와 '해체주의 이후' 변화된 구조 -개체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2~16 정리

구분	현상
관념	근대의 주체와 구조의 해체
경계	탈영토화의 흐름을 통해 근대국가의 경계확장
사고체계	구성원들은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유동적 사고 추구
시공간 개념	유동적 문화의 경계를 확장함과 동시에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것을 부정하였던 전통적인 시-공간 개념 전파

디지털 혁명의 가장 핵심은 인터넷과 네트워크일 것이다. 한주성은 “네트워

¹⁷⁸⁾ 이호영 외 4인, 2013, 같은 책, p.xiv

크란 사람들이나 기업군, 다양한 장소를 상호연결 짓는 사회경제적인 구조이고, 지역 내나 지역 간에서의 지식이나 자본, 상품이 유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네트워크라는 용어의 쓰임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가 수송·통신 인프라의 형태 및 인프라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이며 두 번째로 조직의 존재 상태인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네트워크 조직은 상하가 존재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행위자 간 자율적이고 대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위계적 질서체계가 없는 이러한 대등한 관계는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이기 용이하므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셋째는 사물을 파악하는 관점 또는 분석 도구로서 네트워크가 사용된다.¹⁷⁹⁾

<표 17> 네트워크

출처: 한주성, 2015, “네트워크 지리학 서평”, 『대한지리학회지』 제 50권 4호, p.451

	구분
네트워크	수송, 통신, 인프라의 형태 및 인프라 그 자체
	조직의 존재 상태: 행위자 간 자율적이고 대등한 관계 성립
	사물을 파악하는 관점이나 분석 도구

디지털 네이티브로 대표되는 청년세대는 네트워크화된 공간에서 개인의 일상적 경험과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물리적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활발히 집단적 상호작용에 참여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기도 하고, 집단적 이해관계에 있는 관심사의 경우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장되기도 한다.¹⁸⁰⁾

179) 한주성, 2015, “네트워크 지리학 서평”, 『대한지리학회지』 제 50권 4호, p.451

180) 이동후, 2009, “사이버 대중으로서의 청년 세대에 대한 고찰: 사회적 소통과 관여를 중심으로”,

2) 교통의 발달

산업혁명의 시작이었던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증기기관과 철도가 출현하였고 이와 함께 지역 간의 위치적 고립성 또한 와해되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한 장소에서 출발해 다른 한 장소로 도달할 때 ‘속도’라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람들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다. 물리적인 이동은 기존의 지리적인 경계를 재편하였고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장소들 사이의 교류를 만들고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갔다. 이동의 일상화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물론 물리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생산해내며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근대 산업화로 시작된 교통 기술의 급진적 발달은 증기기관차가 달리던 철도에 고속열차가 달릴 만큼 도약하였다. 교통수단이 진보할수록 장소와 장소 사이의 물리적 거리 또한 더욱 좁혀지고 있다.

4.2.3. 사회-문화적 배경

현대 노마디즘에서의 중요하게 언급되는 유동성이란 공간적으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감정적 이동은 물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사고의 지평선을 열고자 하는 욕구도 포함된다.”¹⁸¹⁾ 현대 노마디즘에서 유동성은 고정된 틀이나 영역을 벗어나 경계를 무너뜨리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의 욕구와 위계나 중심 없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현상을 포함한다. 본 소절에서는 현대 노마디즘 패러다임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1)다원주의, 2)유기론적 세계관, 3)통섭적 시대흐름, 4)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주요 배경으로 꼽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어떠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알아본다. 현대 노마디

『한국방송학보』 제23권 3호, pp.409~448.

181) 군돌라 앵리슈, 2002, 앞의 책, p.42

즘에서 말하는 광의적 이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고정성을 강조하던 기존의 장소 이론들에서 말하는 정체성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현대 노마디즘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 이동으로 생성되고 재구성되는 현대 노마디즘에서의 정체성의 차이에 관한 부분을 다루게 될 5장 장소의 노마디즘 관점에서의 현대적 개념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다. 물리적인 이동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혼란과 상실을 대체할 개념의 배경이 될 것이다. 예

1)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어 그들의 원칙이나 입장과는 다른 소수의 입장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해주는 사상을 말한다. 또한, 사회가 소수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고 움직이기보다는 다양하고 독립적인 개개인과 집단들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된다고 본다. 다원주의는 국가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그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최고 중심이라 여기는 일원론에 반대한다. 다원주의는 사회의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양적 물질 가치보다는 질적인 가치가 우선시되는 삶의 방향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촉진시켰다. 다양성과 관용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이 사상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공동체의 소통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이는 중심이나 위계 없이 열려있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현대 노마디즘의 유동적인 성격에 영향을 준 포스트모더니즘적 양상이다.

다원주의를 뿌리로 둔 다문화주의 역시 현대의 두드러진 사회-문화적 양상이다.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혹은 국가 내에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 공생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정체성과 문화적 이해를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일련의 흐름"¹⁸²⁾으로 정의할 수 있

182) 김남국, "다문화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2005, 『국제정치논총』 45집 4호, p97~

다.

2) 유기론적 세계관

유기론적 세계관은 자주 기계론적 세계관 혹은 결정론적 사고론과 대비되어 설명된다. 결정론적 세계관은 근원적인 법칙을 알고 있으면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일은 예측 가능하다는 견해로 세상을 이루는 물리적인 실재가 질량과 운동이라는 기계적 원리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기계론적 세계관과 큰 의미를 같이한다. 근대 자연과학의 발달과정에서 보편적인 세계관으로 확립한 기계론적 세계관은 현상들 보다는 본질 자체를 상위에 두고 위계적인 질서를 중요시했던 사고의 방식이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데에도 적용되었는데 기계론자들은 사회의 조직이나 구성도 이 법칙 하에 이루어진다고 여기고 삶의 전반, 사고와 감정까지 이 법칙 하에 설명하였다. 훗날 유기론적 세계관이 이를 대체하였다. 유기론적 정신은 위계질서보다는 자유로운 사고와 삶의 방식을 취하며 그 속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질서를 존중하는 노마디즘 패러다임 형성을 뒷받침해주는 거시적 흐름 중 하나이다.

유기론적 세계관은 앞서 언급한 다원론과 병행하여 현대 사회의 노마디즘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3) 소유 개념의 변화

산업 시대가 기계의 힘이 더해진 인간의 노동력으로 상품을 생산했던 시대였다면 20세기 초반부터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던 산업 시대의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만이 재산으로 인정되던 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 가공하는 데 힘을 쏟았다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노마디즘

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정이나 정신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자신 스스로의 만족감을 갖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는다.

네트워크의 시대에도 재산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평생 동안 무언가를 소유하는 장기적 소유보다는 잠시의 접촉을 통한 짧고 다양한 소유를 더 즐긴다. 수평적 접촉과 소통을 통해 유형 혹은 무형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은 물론 그 자산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상의 수많은 주체들과의 관계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잠재적 자산이 되는 것이다.

4) 통섭의 시대

디지털 정보화의 시대에서는 명확하고 확정적인 것에서 모호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비물질적인 것으로, 규범적이고 체계적인 것에서 불규칙적이고 돌발적인 것으로 가치 지향성의 비중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정보화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인류의 삶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이 자연스럽게 제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디지털 혁명은 현대사회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생산자 우위의 시대에서 소비자 우위시대로의 이전이 그것이다. 기술과 사업 사이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제조기술에 대한 정보 또한 공개되어 보편화되는 경우가 많아 싸고 좋게 만들면 팔리는 시대는 이미 종결되었다.¹⁸³⁾ 특히 산업디자인 분야에서는 3d프린팅 기술이 발전하고 보급되면서 디자인 오픈 소스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경계를 허무는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효과나 가치를 동시에 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하였으며 전문화된 각 영역 간의 끊임없는 교류와 결합을 통해 진화하는 통섭의 역량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183) 정상혁, 2008,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상주거 공간계획”,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6

영역과 기능 사이의 명확한 구분보다 컨버전스 형의 생활문화 또한 대두되고 있다. 건축을 비롯한 공간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공간 사용 조직의 가변성에 따른 공간의 가변성, 기능의 다목적성,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한 신속한 적응성 등에 가치를 두게 되었다.

5)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개념은 사회학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였는데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 (Max Weber)에 의해 대두되었다. 이는 단순히 생활양식이라기보다는 개인 혹은 집단의 행동, 태도, 그리고 행동의 기준이 되는 사고의 양식, 가치체계까지를 반영하는 삶의 지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엔젤 (Engel)은 라이프 스타일이란 개인이 문화, 사회 집단, 가족 등의 영향을 받아 습득한 가치체계나 개성의 파생물이라고 정의하였다. 레이저(Lazer)는 “라이프 스타일이란 사회 전체 또는 일부분의 구성원들이 총체적으로 공유하는 뚜렷이 구분되며 특징적인 생활양식(mode of living)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행동을 나타내는 하나의 거대한 복합적 상징”이라고 말했다. 184)

(1) 여가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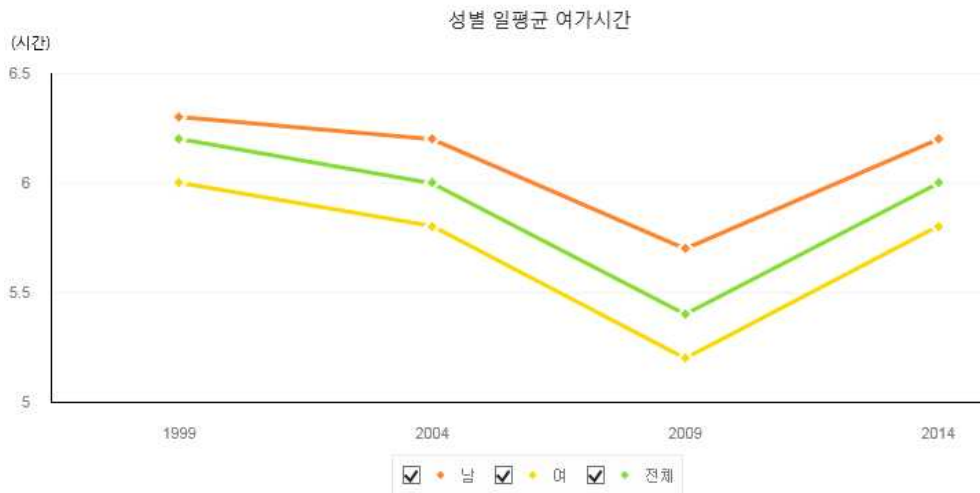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는 불안정했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성공을 위한 목표 지향성 삶의 방식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이나 출세에 대해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시대를 지나 “다양성 허용, 자아존중, 자아실현, 성취감,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삶에서의 즐거움을 추구”¹⁸⁵⁾하는 개인 중심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를 위

184) Lazer, W. 1963, “Life Style concept and marketing”, In S.A. Greyser (Ed.), Toward scientific marketing, Chicago, IL: AMA (김하나, 2010, 재인용, p.14)

185) 김우성 · 허은정, 2007,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의 소비 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제10권 4호, pp.31~53. (김호영 외 4인, 2013, 재인용, p.7)

해 시간과 돈을 소비한다.

여가문화 확산은 생활 전반에서 가치 있는 소비를 지향하여 자기 계발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문화의 확산과도 관계가 있다. 여행이나 레저스포츠, 취미활동을 배우고 즐기는 마니아 층은 고가의 장비 구매에도 소비를 망설이지 않는다. 특히 여가활동에서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는 고용의 안전성보다는 높은 보수와 근무 환경의 자율성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비정규직을 택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유연 근무 시간제가 가능한 일자리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프리랜서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근무형태에 대한 변화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소속된 직장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 여기며 고정된 직장에서의 승진과 성과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찾아 나가던 이전 세대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양상의 이유는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만이 가진 능력으로 인한 다양하고 개인적인 성취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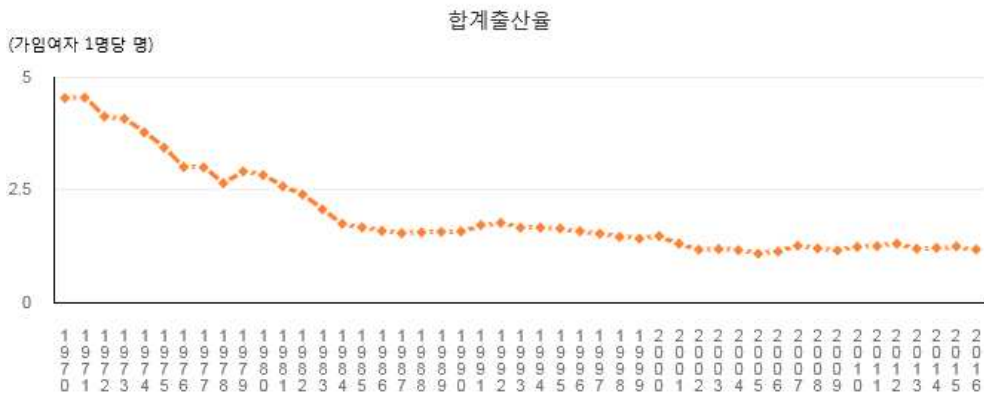
<그림 22> 성별 일평균 여가시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그림 22>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주기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일 평균 여가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해당 그림은 전 조사 기간 동안 남녀 모두 하루 평균 6.5시간미만의 여가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여자는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짧은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5년 주기로 조사된 결과로부터의 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1999년 이후 2004년까지 일별 평균 여가 시간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고 2004년 이후 2009년까지 그 이전보다 급격하게 떨어진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남녀 성별로 놓고 볼 때 여성들의 여가시간이 남성들의 여가시간보다 훨씬 더 줄어든 것을 표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2014년 결과이다. 2014년 평균 여가시간은 남녀 공히 10년 전 수치, 다시 말해서 2004년 수준까지 반등되었다. 이는 현대 사회가 다시 여가를 중시하고 이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준다.

(2) 가족 개념 및 형태의 다양화

군돌라 앵리슈에 의하면 가장이 아내와 자식을 위해 소득 활동을 하는 모델은 결혼과 동시에 와해 불가능한 가족 단위가 발생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실직과 퇴직, 교육 부재, 여성의 생계 능력 부재, 이혼과 재혼 등은 이 모델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개인이나 사회의 결함으로 간주되었다.¹⁸⁶⁾ 그러나 현재는 한국사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다문화가정의 증가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 양상, 이혼 증가와 결혼 지양 분위기 등으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 형태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의식이나 개념에도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 사회는 가족 중심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던 시대와 달리 개인 중심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로의 변화 양상이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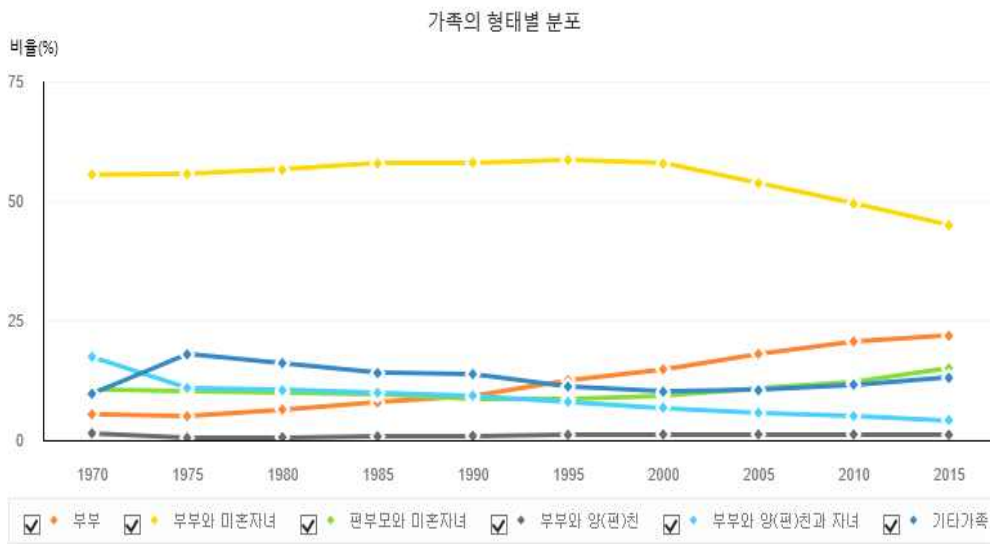
<그림 23> 합계출산율

출처: 통계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23>는 1970년대 이후 2016년까지 46년간의 가임여성 1명당 평균

¹⁸⁶⁾ 군돌라 앵리슈, 2002, 앞의 책, pp.193~194

출산율을 보여준 그래프로 최초 15년간은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그 이후 2000년 정도까지는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최근 15년간은 출산율이 소폭 상승 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경향을 놓고 볼 때는 출산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한국사회가 저출산 사회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고령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그림 24> 가족 형태별 분포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가족의 형태별 분포

<표 18> 가족의 형태별 분포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혈연가구수		5,576	6,367	7,470	8,751	10,167	11,133	11,928	12,490	12,995	13,694
핵가족(%)	부부	5.4	5	6.4	7.8	9.3	12.6	14.8	18	20.6	21.8
	부부와 미혼자녀	55.5	55.6	56.5	57.8	58	58.6	57.8	53.7	49.4	44.9
	편부모와 미혼자녀	10.6	10.1	10	9.7	8.7	8.6	9.4	11	12.3	15
직계가족(%)	부부와 양(편)친	1.4	0.5	0.6	0.8	0.9	1.1	1.2	1.2	1.2	1.1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7.4	10.9	10.4	9.9	9.3	8	6.8	5.7	5	4.2
기타가족(%)		9.7	17.9	16.1	14	13.8	11.2	10.1	10.4	11.6	13

<그림 24>과 <표 18>는 5년 주기로 조사한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이 조사에서는 5가지의 가족 형태와 '기타', 총 6개의 분류에 따른 분포를 보여준다. 결과를 보면 1970년 이후 45년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 형태는 '부부와 미혼자녀'이며 이 비중은 대략 50% 정도에 달하고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는 '부부와 양(편)친'으로 대략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타'를 제외한 3가지 가족 형태, 다시 말해 '부부' 그리고 '편부부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는 지난 45년간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이 중에서 괄목한 만한 변화를 보이는 가족 형태는 '부부'로, 1970년 조사 당시 하위권 5.4%에 머무르던 '부부'의 비율은 2015년 조사당시 21.8%까지 상승되었으며 '부부와 미혼자녀'에 다음으로 가장 흔한 가족 형태가 되었다. 반대로 1970년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던 가족 형태인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7.4%)는 2015년 현재 4.2%로 줄어들어 하위권에 머무르게 되었다.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는 시대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3) 노동 형태의 다양화

세계적인 노동형태의 다양화 양상으로 계약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이 증가

하고 있다. 특히 협업을 통해 무언가를 창조하는 직업군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이 진행되는 일이 빈번한데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¹⁸⁷⁾와 기업이 파트너십 형태로 계약을 맺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고정인건비 부담이 있고 탄력적인 인재활용에도 비효율적이라 판단한 정규직 채용보다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그에 맞는 역량을 가진 개인과의 협업에서 더 높은 효율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자의 입장에서든 고용의 안전성을 담보로 모든 개인 시간을 희생해야 하는 정규직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근무조건,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흥미도 등에서의 자율성 확보를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 때문이다.

고정적 업무시간이라는 개념은 현대 사회로 가까울수록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Flexible Time), 일하는 곳으로 물리적인 이동 없이 자신의 집에서 업무를 보는 재택근무, 물리적인 근무지의 제한이 없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 오피스(Mobile Office), 비즈니스센터 등에서 단기간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여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며 업무를 볼 수 있는 버추얼 오피스(Virtual Office)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앞으로는 한곳에 소속되어 고정된 장소로의 출근을 전제로 하는 방법의 근무 형태는 점차 쇠퇴하고 비고정적인 다양한 노동 형태가 더욱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무형태의 변화로 업무 공간과 주거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은 물론, 제 3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형태로 업무를 보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업무 공간의 영역

¹⁸⁷⁾ “14~16세기에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며 전쟁을 치르던 전사들이 있었다. 특정인을 위해 일하고 돈을 받거나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 전투에 나가던 이들을 일컬어 ‘콘도티에리’라고 불렀다. 영국인들은 이들을 ‘프리랜서’라 일컬었는데, 자유의사에 따라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이다. 프리랜서는 특정 권력자에게 속하지 않고 한 전투가 끝나면 다른 전투를 하기 위해 전쟁터를 중형무기로 활약 하였다는 것이다. 용감하고 전투적인 이들은 ‘문제 해결사’로서 사회적인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한다.” 출처: 군돌라 앵리슈, 2002, 앞의 책, p.121

적인 면에서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4.3. 현대 노마디즘 이해

현대 노마디즘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포용할 만한 광의와 특성을 가진 개념이다. 이는 앞선 소절 4.1.에서 12가지의 메가 트렌드들 중 7가지 키워드가 현대 노마디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결과로도 알 수 있고, 본 소절에서 분석한 저명한 사회학자, 미래학자, 경제학자의 저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본 소절은 노마디즘을 주장했던 학자들의 저서를 통해 철학적 사유로서의 노마디즘, 사회-문화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을 파악하였다. 그 후에 이를 다음 소절인 4.4.에서 현대의 공간 사용 양상에 투영하는 방법으로 사유방식과 현상으로 존재하는 노마디즘을 공간적으로 해석하여 개념화하기 위한 노마디즘 해석체계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자는 노마디즘을 논하는 학자들의 저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노마디즘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예시들을 ①시간 time, ②공간(또는 영역)boundary 그리고 시간과 영역을 살아가는 ③개체 being 의 사고와 행태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 세 가지 구분을 현대 노마디즘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내용 구분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 절의 핵심은 철학 사유로서의 노마디즘, 사회-문화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을 분석해 노마디즘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현대 공간 사용 양상에 투영시켜 노마디즘에서 추출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는 데 있다.

4.3.1. 철학적 사유로서의 노마디즘

이번 소절에서는 현대 공간 의식의 큰 흐름인 관계적 공간 개념 복원의 철학적 근거가 되었고 노마드의 의미를 처음 사용하여 현대 철학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한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이론이 철학적 사유방식의

로서 어떻게 전개되어 현대 사회에 맞게 해석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는 본 논문의 다음 소절 4.3.2.에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을 살펴보기 이전에, 현상 해석의 근본이 되는 철학적 사유의 현대적 해석을 먼저 파악하려는 의도이다.

이번 소절은 철학자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의 『천개의 고원』을 이 책의 해설서라 불리는 이진경의 『노마디즘-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의 도움을 받아 분석하였다. 또한, 이 저서를 바탕으로 노마디즘을 인문·사회학적으로 해석한 다수의 논문들도 함께 참고하였다.

1) 점과 선의 사유방식_고정됨에서의 해방

들뢰즈에게 있어 노마디즘은 특정한 가치나 삶의 방식에 얽매이는 하나의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 그 고정된 자아를 극복하고 새롭고 다른 자아로 나아가는 끝없는 정체성의 탐색을 말한다.

새로운 자아와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해 들뢰즈에게 중요한 것은 “~로 존재하기 (être)가 아니라 ~로 되기(devenir)” 다.¹⁸⁸⁾ ‘~로 존재하기’가 일생 과정에서 하나의 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로 되기’는 그 점들을 이어주는 선으로 표현될 수 있다. 노마드는 하나의 점에 머물지 않는다. 항상 선상에서의 이동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그렇기에 언제나 정해지지 않은 방향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에 스스로를 열어놓으려고 한다.¹⁸⁹⁾ 그러나 단순히 두 점을 연결한 것을 선으로 본다면 그것은 시작점에서 종착점으로 이동하기 위한 닫힌 선일 뿐이다. 그러나 반면 점들을 통과하는 선이 있으며 그 선에 따라 점들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진경에 따르면 사막을 여행하는 유목민들은 점을 통과하는 선을 그리지

188) 들뢰즈/ 가타리 G. Deleuze / F. Guattari, 2001, 『천개의 고원』 *Mille plateaux*, 김재인 역, 서울: 새물결, pp. 443-451(최향섭, 2008, 재인용, p.174)

189) 최향섭, 2008, 앞의 책, p.174

만 오아시스라는 도착점을 위한 이동이 아니다. 결국, 어떤 오아시스도 목적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쳐 지나가는 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그 선의 경로 또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출장을 떠나는 회사원처럼 이동하는 사람에겐 목적지가 목표가 되어 중요하지만, 여행하는 사람에겐 통과하고 있는 선 자체가 중요하다. 여행자에게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것이 중요한 체험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산을 타는 사람도 산을 정복하여 깃발을 꽂는다는 것을 목표로 생각한다면 정상이라는 점에 산행의 경로를 종속시킬 것이다. 하지만 산을 타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경관이 좀 더 아름답고 좋은 길을 택해서 가면서 걷는 길과 만나는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진경은 또 점을 통한 사유는 각각의 점이 먼저 결정되고 되도록 짧은 직선이 되게 선을 그리지만 선을 통한 사유는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든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선을 그리며 그것이 통과하는 점은 선의 궤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했다.¹⁹⁰⁾

<표 19> 점과 선의 사유 비교

	점의 사유	선의 사유
개념	정주	이동
선의 속성	시점과 종점을 잇는 닫힌 선 생성	점을 거쳐 통과하는 탈주의 선/ 유연한 선 생성
경계의 성격	경계의 구획	경계의 확장
공간적 성격	흠이 패인 (닫힌) 공간	매끈한 (열린) 공간

틀뢰즈의 점과 선의 사유는 후에 언급할 사건과 배치의 사유와도 깊은 연관

¹⁹⁰⁾ 이진경, 2002, 노마디즘: 천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서울: 휴머니스트, pp.596-599

이 있을 뿐 아니라 정주와 유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유다. 정주민은 멈추기 위해 이동하고 유목민은 이동하기 위해 잠시 멈춘다.

들뢰즈는 정주민의 공간이 중심을 시작으로 변방으로 뻗어나가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울타리가 둘러져 흠이 팬 공간 (espace strié)이라면, 유목민의 공간은 중심과 주변의 구분 없이 여러 방향으로 확산되어 이어지는 매끈한 공간 (espace lisse)으로 이야기한다. 정주민의 공간이 벽과 담 그리고 이 담들을 연결하는 도로들에 의해 흠이 패이는 것과 달리, 매끈한 유목민적 공간은 경계가 생성되지 않고 이동해가며 나타나는 선에 의해서만 구분된다.¹⁹¹⁾

¹⁹¹⁾ 조윤경, 2006, 앞의 책, p.340

<표 20> 정주와 유목 개념 비교

	정주	유목
사전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곳에 자리잡고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처를 정하지 않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 / 지속 / 머무름/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정적 / 우발적 / 유동 / 가변
거주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 • 존재=거주=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과 집 사이 / 집 밖 • 거주=유목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되고 닫힌 구조 • 뿌리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이 / 열리고 교통하는 체계 • 새로운 무엇이 벌어지고 생성되는 움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 /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의 공간 / 여행 / 타자의 장소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 • 홈 패인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많은 점을 잇는 선들의 교차 • 매끄러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즘적 구조

2) 사건과 배치_새로운 자아 정체성 생성

(1) 사건(événement)의 개념

사건은 들뢰즈의 철학적 사유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이다. 사건(événement)이란 이전의 상태와 다른 생성이나 동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됨’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고정된 존재인 ‘~임’ 의 측면인 사물의 상태(état de chose)와 구분할 수 있다. 사건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자

아를 찾아가는 노마드적인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유이다.

이범석은 들뢰즈의 책에서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은유하여 언급한 부분을 다시 인용한다. 이상한 나라에 들어온 앨리스는 ‘먹으시오’라고 적힌 케이크를 먹고 난 뒤 몸이 커지게 된다. 앨리스는 당황한 나머지 울음을 터뜨리다가, 함께 있던 토끼가 두고 간 부채로 부채질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몸이 다시 작아진다. 그런데 몸이 작아진 뒤 자신이 흘렸던 눈물의 바다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커진다’와 ‘작아진다’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멈추어 있는 상태가 아닌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¹⁹²⁾ 이 은유를 통해 들뢰즈의 사유 중 사건의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건은 어떤 상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상태에 관계하여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의 생성이란 고정된 정주가 아닌 기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다.

(2) 계열화 (mise en série)

사건과 배치의 사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 계열(série)이다. 하나의 사물은 이웃 항들과 연결하고 접속하여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계열화(mise en série)라 한다. 사건은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하고 사건화 하는 선을 통해 정의된다. 그러므로 계열이란 바로 사건화의 선이 그려지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진경의 해석에 의하면 계열화란 “둘 이상의 사실 내지 사물이 접속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사물들 사이에 특정한 의미 내지 표면효과를 야기하는 이웃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는 영화 『모던타임즈』를 통한 비유로 계열화를 설명했다. 영화에서 주인공 찰리는 길가에서 트럭에서 떨어진 붉은 깃발을 주워들

¹⁹²⁾ 질 들뢰즈, 1999, 『의미의 논리』 *Logique du Sens*, 이정우 역, 서울: 한길사 참고 (이범석, 2012, 재인용, pp.47~48)

고 그것이 트럭에서 떨어졌음을 알려 돌려주려고 트럭을 따라 뛰어가지만, 트럭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가버린다. 대신 그의 뒤로 옆 골목에서 나온 시위대가 연결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경찰은 시위대 맨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며 걸어가던 찰리를 발견하고 공산주의자라고 여겨 체포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계열화와 연관지어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붉은 깃발은 하나의 사물이며 찰리가 그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런 사물 또는 사실은 어떤 것과 접속 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한다. 깃발이 트럭과 연결(접속)되면 그것은 ‘주의!’를 의미하는 붉은 색의 깃발이 되지만 또 다른 사물 또는 사실인 시위대와 접속되면서는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깃발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동일한 사물이 무엇과 접속되는가에 따라 다른 의미(sens)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동일한 사실이 무엇과 이웃하게 되는가 혹은 어떤 관계를 이루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사건이 되는 것이다. 193)

(3) 배치 (agen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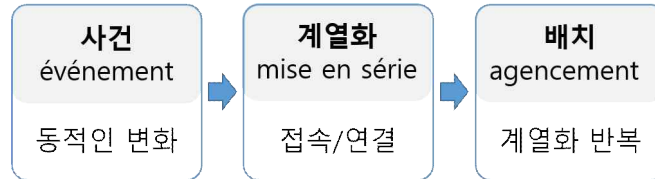
들뢰즈는 사건은 반복적인 계열화인 배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하며 사건과 계열화와 배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들뢰즈의 배치에 대한 사유는 활동이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의 반복적인 계열화, 혹은 그것을 낳는 생산적인 능력이나 의지의 반복적 계열화를 의미한다.¹⁹⁴⁾

고정된 하나의 자아 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정체성을 끊임없이 생성해 복수로 존재하는 자아를 만들어 내는 노마디즘에서 하나의 자아(앞선 예시들에서 사물 혹은 사실로 표현했다)가 다른 자아로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배치이다. 어떤 배치에 놓이느냐에 따라 A는 B가 될 수도, C나 D나 E...가 될

193) 이진경, 2002, 앞의 책, pp.593-595

194) 차은주, 2007, "디지털 공간에 나타난 노마드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0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5> 사건에서 배치까지의 단계

3) 리즘(rizhome)_위계 없는 네트워크

(1) 리즘의 개념

들뢰즈의 점과 선의 사유, 사건과 배치 같은 사유들은 리즘이라는 구조로 설명된다.

리즘은 원래 식물학 용어로 뿌리줄기 혹은 근경(根莖)이라고도 한다. 대나무의 뿌리줄기와 같이 식물의 줄기가 변해서 뿌리처럼 일정한 방향 없이 땅속으로 뻗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나무는 나무의 몸통에 해당하는 굵은 줄기를 기준으로 그곳에서 가지들이 뻗어 나오고 그 가지들이 또다시 무수히 많은 잔가지들을 뻗는다. 하지만 리즘은 나무에 해당하는 큰 중심을 갖지 않는다. 이질적인 많은 선들이 확산적으로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며 뻗어 나가는 리즘은 고정된 하나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층화된 (hierachical) 수목 모델과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개의 고원』에서 리즘 개념을 수목형(arborescence)과 대비시켜 설명하였다.

고길섭은 리즘을 지하철 노선도¹⁹⁵⁾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195) 지하철 노선도와 철도노선도는 각각 위상학적 특성과 지형학적 특성을 가진 지도라고 설명할 수

전국으로 뻗어나가 있는 철도 노선은 수목모델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중심점 없이 복잡하게 얹혀있는 지하철 노선도는 리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¹⁹⁶⁾

(2) 리즘의 6가지 원리

① 제 1원리: 접속의 원리

들뢰즈가 리즘은 어떤 점과도 접속 될 수 있고 접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¹⁹⁷⁾ 접속의 원리는 특정한 외연을 부가한다는 뜻이다. 리즘은 어떤 부분과도 결합이 가능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나 접속한 것들이 어느 하나의 점으로 귀결 되지 않으며 배타적 이항도 작동시키지 않는다.

② 제 2원리: 다(多)질성의 원리

비위계성을 가진 리즘은 동질적인 부분은 물론 이질적인 것에 대한 접속 또한 가능하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이질성이 결합해 새로운 또 다른 이질성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③ 제 3원리: 다양체의 원리

있다. 위상학적 지도인 지하철 노선도는 스케일이나 절대적인 위치표시가 아닌 각 정거장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는지만을 보여준다. 이는 상대적 공간 개념, 나아가서는 상대적 공간 개념의 확장이라 할 수 있는 관계적 공간 개념을 보여주는 쉬운 예다. 노마디즘의 리즘은 위상학적 위치 관계로 설명되는 데 이는 상대적 공간 개념이 확장된 관계적 공간 개념과도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형학적 지도인 철도 노선도는 대상물의 절대적인 위치를 중요시할 뿐 아니라 기준이 되는 중앙역이라는 중심 위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대적 위치 관계는 장소론에서 말하는 장소적 특성 중 중심성과 고정성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196) 고길섭, 1998, 『소수 문학들의 정치학』, 서울: 문화과학사, p.60

197) 들뢰즈/ 가타리 G. Deleuze / F. Guattari, 2001, 『천개의 고원』 *Mille plateaux*, 김재인 역, 서울: 새물결, p.13

들뢰즈는 그의 저서에서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의 중심적인 힘이나 성격에 동일화되지 않고, 있는 그 자체 그대로의 의미를 갖는 것을 진정한 다양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전체의 의미마저 변화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다.

④ 제 4원리: 비의미적 단절의 원리

지층화, 영토화, 조직화, 귀속화 되는 리즘은 탈영토화 또한 포함한다. 리즘은 탈영토화 하는 선들을 따라 끝없이 도주하는데 분할선들이 하나의 도주선에서 폭발할 때마다 리즘에서는 단절이 생긴다. 그러나 이 도주선 역시 리즘의 일부다.¹⁹⁸⁾ 리즘의 다양체는 비의미적인(비기표적인) 단절의 원리를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의미적’과 ‘비의미적’을 각각 절단과 단절로 설명하여 대비할 수 있다. 절단이 기존의 의미에서 갈래가 나누어지는 것이라면 단절은 주어진 의미화에서 벗어나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다. 리즘의 비의미적인(비기표적인) 단절은 어떤 근원적인 의미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연관 짓지 않고 새롭게 떼어내 다른 것으로 만드는 특성이 있다.¹⁹⁹⁾ 이에 리즘 구조에서는 이 비의미적 단절의 원리로 인해 한 부분이 손상되더라도 끊임없이 재생 가능한데 이때의 재생은 손상된 부분과 같은 것의 재생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성격의 재생을 의미한다.

⑤ 제 5원리: 지도그리기와 ⑥ 제 6원리: 전사술

지도란 우리가 그것을 참고하여 경로와 진행을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다이어그램이다. 그러하기에 지도에 반드시 길의 형상과 지표면의 정확한 재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들뢰즈는 리즘은 모상이 아니라 지도²⁰⁰⁾라고 이야기한다. 정

198) 들뢰즈/가타리 Gilles. Deleuze F. Guattari, 2001, 『천개의 고원』 *Mille plateaux* (1980), 김재인 역, 서울: 새물결 (이범석, 2012, 재인용, pp.54~55)

199) 차은주, 2007, 앞의 책, p.32

확한 묘사나 모상이라 하더라도 경로 탐색을 위한 행동 다이어그램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도라기보다 그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다.

4.3.2.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

관계적 공간의 시대는 철학과 과학의 입장이 중심이 되어 개념과 의식이 정립되었던 절대적 공간 시대와 상대적 공간 시대와 달리 인문 사회학적 현상과 양상들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관계항들의 생성과 그것들의 끊임없는 결합과 해체로 공간이 형성된다. 이에 본 소절에는 노마디즘의 근본이 되는 철학적 사유로서의 노마디즘에 이어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을 살펴본다.

1) 탈본질주의, 탈경계

절대적인 본질의 추구나 고정된 사상과 가치체계를 거부하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서 보인다. 사람들은 소속감이나 안정성을 추구하며 경계 안에 머무르기 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을 향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확장 시킴으로써 새로운 영역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를 대표하는 양상으로 직업과 업무에 따라 이동하는 잡노마드(job nomad)를 들 수 있다. 잡노마드는 군돌라 앵리슈의 저서를 통해 알려진 개념으로 세계 여기저기를 물리적 혹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시공간에 제약 없이 이동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추구하는 환경에 맞는 직업을 구하는 유목민이라는 뜻이다. 군돌라 앵리슈는 그의 저서에서 현 시대 젊은이들은 정체성을 모국어나 조국과 동일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정해진 길을 가는 안정적인 삶 보다는 움직임과 변화를 통해 익숙한 관습의 장을 떠나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는 모습으로 정체성 발견을 꾀한다²⁰¹⁾고 언급했다. 사람들은 이를 위해 고정된 규칙과

200) 여기서의 지도는 절대적 위치 표시를 말하는 지형학적 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1) 군돌라 앵리슈, 2002, 앞의 책, pp.183~184

관계를 무너뜨린다. 정주적인 삶의 자세로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무르며 승진을 위해 노력하며 직업적인 안정을 얻는 것이 아닌 개인이 다양한 능력을 키우고 그 능력에 대한 안정감을 갖는다. 기업들도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그들이 가진 문화에 가치와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잡노마드가 가능한 것이다.²⁰²⁾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경계 내부에서 오는 안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경계를 무너뜨리며 개인의 능력에 자율성을 더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새롭게 확장해 나간다.

2) 탈중심, 비위계의 네트워크

디지털세대들은 “문화적으로 발산(diverging)”하는 특성을 지녔다. 디지털 세대는 통념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왔던 비주류의 문화도 자신의 취향에 맞다면 그것을 중시한다. 제한된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이 세대는 작은 분과(segment)들을 이루며 중심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는 주류와의 거리를 좁히려고 경쟁적으로 노력하면서 결과적으로 중심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 주류와 비슷한 문화적 취향에 도달하기를 바랐던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성향이라 볼 수 있다.²⁰³⁾

현재 청년 세대는 공히 전 세계가 정보혁명을 시작했던 시기에 태어나 현재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사회활동을 하고 있거나 혹은 사회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돈 탭스콧(Don Tapscott)²⁰⁴⁾은 “넷세대 혹은 N세대란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

202) 군돌라 앵리슈, 2002, 같은 책, p.11

203) 이호영 외 4인, 2013, “정책연구 13-49 : 디지털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비교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3권 49호, p.xxiii

204) 미래학자이자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가이다. N세대라는 말은 돈 탭스콧이 1997년 쓴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원제: Growing up digital)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이기도 하며 매크로위키노믹,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캐피털, 투명경영,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등의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다.

성인이 된 본격적인 디지털세대를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라고 부르고 있다.²⁰⁵⁾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제한적인 물리적인 삶의 공간 확장하고 있다.

제레미 러프킨은 “네트워크는 복잡한 의사소통 통로, 다각화된 관점, 정보의 병렬 처리, 지속적 피드백, 우물 안 개구리에서 탈피한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참여한 개개인은 서로 위계 없는 새로운 유대를 쌓고 다양한 발상을 흡수하여 또 다른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든다. 이러한 제한된 네트워크상의 개인은 초경쟁 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많이 갖게 된다. ²⁰⁶⁾

3) 소유개념 변화

산업 시대가 기계의 힘이 더해진 인간의 노동력으로 상품을 생산했던 시대였고 20세기 초반부터의 시대에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던 산업 시대의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만이 재산으로 인정되던 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 가공하는 데 힘을 쏟았다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되는 노마디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정이나 정신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자신 스스로의 만족감을 갖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는다.

현대 노마디즘의 시대에도 재산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중요하지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는 평생 동안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잠시의 접속을 통한 짧고 다양한 소유를 더 즐긴다. 수평적 접속과 소통을 통해 유형 혹은 무형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므로 유·무형의 자산 그 자체는 물

205) 이호영 외 4인, 2013, “정책연구 13-49 : 디지털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비교 연구”,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정책연구』 2013권 49호, p.xiii

206) 제레미 러프킨 Jeremy Rifkin , 2001, 『소유의 종말』 *The age of access* (2000), 이희재 역, 서울: 민음사, p.39

론 그 자산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상의 수많은 주체들과의 관계 자체가 또 다른 자산이 되는 것이다.

물질의 소유에서 접속에 의한 관계의 소유로 사회와 경제 전반의 무게 중심이 옮겨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공간의 개념이나 사용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소유하지 않고 시간 공유의 방법으로 원하는 때에 접속하는 노마디즘적 일시 소유 방식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생활세계에서의 공간에 대한 소유 또한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공간 사용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다음 절인 4.4. 현대 공간 사용 양상과 노마디즘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4) 새로운 자아의 정체성 탐색

21세기는 고정된 사상, 체계, 질서를 보다는 비고정적이며 역동적인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욕망과 삶의 흐름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노마디즘은 과거 중요시되었던 고정된 의식의 자아나 본질로서의 정체성을 비판하고 이보다는 끊임없는 변화와 변형의 과정을 긍정하는 역동적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²⁰⁷⁾ 현대인들은 더 이상 국가, 혈연, 지연 학연관계들의 그물망에 얽매어 정해지는 ‘나’의 정체성을 거부한다. 고정되어 벗어날 수 없는 정해진 관계의 사람들보다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소집단의 문화나 함께 공유하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만들어지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체성을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는 전통적인 장소 개념에서 자신이 속한 고정된 지역과 국가 혹은 동일성을 가지는 문화권이나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와 거기서 얻어지는 소속감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체성을 중요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²⁰⁸⁾

207) 최영주, 2010, “노마디즘 수용상황 분석과 이해”, 『프랑스학연구』 52집, pp.393-394

208) 조윤경, 2006, 앞의 책, p.376

물리적 이동은 물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이동은 다른 영역, 다른 사람과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 문화적인 관계를 재구성하게 되는 정체성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현대 노마드들의 이런 물리적 정신적 이동은 문화적 정체성 및 주체의 혼성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혼성성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고 찾아가는 것을 선호한다.

“이제는 특정 영토로 정체성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함께 하는 문화나 이데올로기 혹은 신을 통해 정체성이 정해진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다음 목적지인 항구를 향하면서 도 바람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항로를 변경하는 것과 흡사하다.” 209)

5) 접속의 시대

접속은 자크 아탈리가 그의 저서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에서 언급한 유목민의 여섯 가지 덕목 중 다섯 번째로 지적하는 덕목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유목민은 항상 부족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가까운 오아시스와도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전송수단을 늘 몸에 휴대하고 다닌다” 라는 그의 언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접속은 현대 디지털 노마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다. 현대인이 늘 네트워크상에 접속해있고 휴대폰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항상 네트워크상에 접속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접속을 통해서 정보를 찾고, 새로운 사람을 접하고 또 다른 공동체 문화와 관계망을 형성해나가므로²¹⁰⁾ 접속은 노마드의 필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래학자 제레미 러프킨은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에서 네트워크 경제

209) 자크 아탈리 Jacques Attali, 1999, 『21세기 사전』 *Dictionnaire du XXIe siècle* (1998), 편혜원 역,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p. 232

210) 조윤경, 2006, 앞의 책, p.337

의 탄생, 제품의 점진적인 탈물질화, 물질적 자본의 비중 감소, 무형의 자산 부상, 물품의 순수한 서비스로의 변신, 생산 관점에서 마케팅 관점에서의 사업 중심축 이동, 관계와 경험의 상품화 등은 사람들이 서서히 시장과 물적 재산 교환의 시대를 벗어나 접속의 시대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²¹¹⁾하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4.4. 노마디즘 관점에서의 현대 공간

4.4.1. 노마디즘과 관계적 공간 개념

앞서 2장에서 절대적, 상대적 공간에서 관계적 공간으로의 공간 인식의 전환이라는 공간 개념 변화의 큰 흐름을 살펴보았었다. 절대적 공간, 상대적 공간은 물리학과 철학 발전의 지대한 영향으로 구분 되어진 공간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 공간 개념을 전통적인 장소론에서 말하는 장소의 개념이 발생된 배경을 이루는 주요 공간범주로 보고 있다.²¹²⁾ 관계적 공간 개념은 지구화²¹³⁾

211) 제레미 러프킨 Jeremy Rifkin , 2001, 『소유의 종말』 *The age of access* (2000), 이희재 역, 서울: 민음사, p.169

212) 상대적 공간 개념이 전통적 장소론 정립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장소론에서 절대적 공간 개념의 영향이 완벽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구축공간과 그 공간을 경험하는 인간과의 상호작용과 관계, 즉 경험으로 생성되는 의미가 장소를 형성한다고 정의한 장소론에서 구축공간과 경험자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 공간 개념이 기반이 된 부분이다. 그러나 이 정의에서는 이미 물리적 구축공간을 인간의 경험이 일어나는 용기와 같은 개념으로 전제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절대적 공간 개념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213)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 시간이 압축되어 세계가 일체화되어 가는 것, 또는 그러한 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걸쳐 하나의 개념으로서 사회학, 경제학, (국제)정치학, 문화인류학 등 많은 학문분야에서 사용되었다. 그 배경에는 정치적으로 말하면 냉전의 종결로 세계의 이데올로기, 군사, 경제 등에서의 분열이 종식되었으며, 또한 그 이전부터 일어나고 있던 정보·통신·운수기술의 급속한 진보로 물질, 금전, 사람, 정보가 국경을 초월하여 왕래함으로써 지구가 일체화(unity 또는 globality 라는 말이 사용된다)되는 현상이 점차 현재화하였다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이후 시공간의 압축에 의한 새로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행위와 사건들이 어떠한 새로운 배경과 공간에서 벌어지는가와 이런 새로운 공간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묻기 시작하면서 정립된 공간의 개념²¹⁴⁾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선 두 공간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대 사회의 비고정적 특성과 그에 따른 공간 현상과 양상들이 관계적 공간이라는 큰 공간 개념의 범위를 바탕에 두고 분석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현실 세계에서 공간 개념은 결코 발생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각각의 개념을 시대별로 분리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²¹⁵⁾ 각각의 공간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념화 되고 인식되지만, 어느 하나 소멸되지 않고 늘 공존해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다양한 준거(관계항)들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시공간 개념²¹⁶⁾은 전통적 장소론의 장소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준 공간 범주 개념이었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항들의 생성과 그것들의 결합과 해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대의 노마디즘 시대에는 상대적 공간 개념보다 확장된 공간 개념을 필요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간 개념을 통해 비로소 이 시대에 맞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시대에는 절대적, 상대적 공간 범주를 모두 포함하나 노마디즘

214) 이현재, 2008, 앞의 책, p.234

215) 이현재에 따르면 하비의 관계적 공간 개념은 “행위자의 위치 관계적 공간을 병존하는 사회적 관계들뿐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 감정, 복합적 기억, 상상력, 창조력이 응축되어 있는 힘의 지점으로 보고”있는데 관계적 공간 개념에도 여전히 상대적 공간 개념을 대표하는 장소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었던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들이 언급되며 공존한다. 관계적 공간 개념은 전통적인 장소론의 비고정적 특성에는 상충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전통적 장소론에서 중요시했던 장소를 이루는 주관적 요소 즉 무의식, 감정 기억, 상상력, 창조력 등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

216) “비용거리, 시간거리, 수단거리 등을 차별화함으로써 상대적 위치를 표현하는 전혀 상이한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출처: 데이비드 하비, 2010, 앞의 책, p.195 (이현재, 같은 책, 재인용, p.23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공간 개념이 구축공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그 공간을 경험하는 경험자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다른 장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소론의 배경이 되는 주요 공간범주라고 보고 있다.

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현시대의 비고정적 특성에 관한 부분은 관계적 공간 개념이라는 새로운 공간 범주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절대적, 상대적, 관계적 공간 개념에 대한 관점은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데이비드 하비는 “공간을 동시에 세 가지(절대적, 상대적, 관계적-이현재주) 모두 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보며 관계적 공간 개념이 모든 공간 분석의 유일한 답이 아님을 밝혔다.²¹⁷⁾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노마디즘 시대의 공간디자이너는 공간, 시간,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의 범주와 개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사회적 삶을 분석하기 위해 20세기 사회이론가들이 공간의 범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듯이²¹⁸⁾ 공간 구성을 위해 사람의 행태와 삶을 분석하고 이를 위해 사회-문화적 요소를 공간 구성과 관계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공간디자이너들 또한 기존의 공간 범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과 양상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근본 개념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소절의 관계적 공간 개념에 대한 재 언급은 현 노마디즘 시대의 공간을 근본적인 공간 범위와 개념 자체에 대한 의문이나 이의제기 없이 상대적 공간 개념 혹은 여전히 일상적 사고방식에서 발견되며 가장 친밀한 절대적 공간 개념에 끼워 맞추려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다.

“공간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안 만들어지는 중이고, 상이한 관계들의 설
새 없는 움직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지므로 공간의 잠재력은 가두어지지 않으며,
그 활기참은 절대로 진압되지 않는다. 물론 일정 시간 동안 공간이 안정화될 수
는 있지만,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관계적이고 생태적이며 이질적인 공간
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그것은 공간에 대한 ‘지형학적’ 인식으로부터 ‘위상학

217) 데이비드 하비, 2010, 앞의 책, p.200 (이현재, 같은 책, 재인용, pp.237~238)

218) 이현재, 같은 책, p.230

적' 인식으로의 전환에서 비롯된다. 곧, 질서정연한 지표면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복잡다단한 관계 묶음으로, 구조주의 지리학에서 포스트구조주의 지리학으로의 전환 말이다." 219)

4.4.2. 노마디즘 관점에서의 현대 공간 사용 양상

1) 제 3의 공간 (The Third Place) 사용 확대와 컨버전스화

디지털 혁명에 따른 인터넷 네트워킹은 사람들의 삶에서 시간적 제약은 물론 물리적 공간의 벽도 해체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기술-정보적 배경으로 이 시대의 패러다임은 고정된 것에서 비 고정된 것으로, 명확한 하나보다는 모호하지만 복합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가치추구에서 정신적인 가치추구로, 중앙 집중식에서 수평적 확산과 네트워킹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노마디즘의 패러다임으로 종합하여 이야기할 수 있으며 생활세계 속 공간 사용에도 이러한 양상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19세기에 들어 이미 자리를 잡게 된 제1의 공간(The First Place)은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주거의 공간 개념을 의미한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미학적 아름다움을 가미한 업무환경이 근무 효율을 높인다는 사실에 근거해 일터인 업무공간이 제1의 공간이 주거 공간 외에 또 다른 거주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제2의 공간(The second space) 개념이 등장했다.²²⁰⁾

제3의 공간(The Third Place)²²¹⁾은 1980년대 이전에는 예컨대 인위적인

219) Doel, M., 2007, *Post-Structuralist Geography: A Guide to Relational Space* by Jonathan Murdoch. Annals for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7, pp.809~810 (팀 크레스웰, 2015, 재인용, p.311)

220) 문근이, 2014, "제 3의 공간으로서 카페의 공간 연출 전략"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9

221) 김수근은 1971년 서울신문에서 '제3의 공간'은 조선시대에 이미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 전통의 문방(文房)과 정자(亭子)가 대표적인 '제3의 공간'이었다고 말했다. 즉, 안채가 거주를 위한 공

연출이 없는 비엔나의 커피 하우스, 이탈리아의 도시 광장(piazza), 모퉁이의 상점 등이었다. 그러다 1980년대 들어 감각적 체험을 강조하는 체험 마케팅이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도 확산되었다. 대중적인 장소도 내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부각 되었다.²²²⁾ 미국에서는 1999년 사회학자 레이 올덴버그(Ray Oldenburg)가 저서 『The Great good place』에서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스타벅스의 하워드 슴츠(Howard Schultz)나 심리학자 크리스티안 미쿤다(Christian Mikunda)에 의해 제3의 공간의 개념이 확산되었다. 마케팅적 관점에서 상업 공간에 적용시킨 제3의 공간 개념은 대중의 인식 속에 빠르게 확산되었다.²²³⁾

간이라면 문방 공간은 창조 공간으로 글 짓는 공간이요,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요, 사색을 하던 공간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대두되고 중요시될 공간이 창조행위를 위한 공간인데, 조선시대에 창조 공간의 성격을 지닌 문방이 주거 속에 마련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출처: 김수근, 2012,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 서울: 공간사, p.163. (문근이, 2014, 재인용, p.6)

²²²⁾ 크리스티안 미쿤다 Christian Mikunda, 『제3의 공간』, 2005, 최기철 외 1인 역, 서울: 미래의 창, pp.14-15

²²³⁾ 문근이, 2014, 앞의 책, p.6

<표 21> 제 3의 공간 분류

출처: 김민주 외 1인, 2007, 『앞으로 3년 대한민국 트렌드』, 서울: 한스미디어, p.47 재구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오프라인 공간	독서 공간	서점, 만화방, 도서관, 북카페
	문화 공간	갤러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만남 공간 먹는 공간	식당, 카페, 맥주집, 와인바
	유흥 공간	노래방, 게임방, PC방, 보드게임방, 만화방, 당구장, 기원
	회합 공간	클럽, 경로당, 노인정, 공원
	운동 공간	피트니스 센터, 요가원, 헬스클럽, 골프장, 수영장, 산책로
	휴식 공간	찜질방, 사우나, 목욕탕, 산소방, 맛사지숍, 네일숍, 화장실
	종교 공간	교회, 성당, 절, 기도원 등
	복합 공간	몰, 백화점, 호텔
온라인 공간	반개방형 공간	블로그, 웹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클라우드 서비스
	폐쇄형 공간	이메일, 메신저, 톡앱, 화상채팅앱

현대에 와서는 모든 공간에서 영역과 기능의 컨버전스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장 활발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제3의 공간이다.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제 3의 공간들이 다양하게 등장

하고 있고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으로 카페 공간과 숙박공간을 예로 들었다.

(1) 카페 공간의 사용

카페(café)는 프랑스어로 커피, 커피를 마시는 곳을 뜻한다. 유럽에서 17세기에 문을 연 카페는 사교의 장이었는데 음악, 미술, 문학, 사상과 철학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의 토론으로 많은 담론들을 생산하는 장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카페는 해방 직후까지는 문화 예술인의 공간이자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었으며, 특정 계층과 남성 중심의 공간이었다. 1970년대 들어 다방이라는 명칭은 커피숍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커피 자체의 맛과 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커피전문점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서 커피전문점은 제3의 공간으로의 변신이 시도되었는데 이때 점차적으로 사회·문화적 공간으로서 익숙해지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제3의 공간’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²²⁴⁾ 카페는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물론 카페 공간에서 공부나 일을 하고 혼자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카페에서 열리는 전시를 보거나 음악 공연이나 문화행사에 참여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대인의 일상 속 하나가 되었다.

스타벅스의 하워드 슴츠(Howard Schultz)는 제3의 공간 개념을 카페에 적용시키며 제3의 공간의 새로운 이용 양상을 생산해내는데 기여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하워드 슴츠는 직장이나 집에 대한 생각을 잊고, 쉬며 서로 평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중립적인 생활 속의 출구 - 비공식적 공공장소로서의 제3의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3의 공간이 없다면, 도시의 필수 요소인 인간 접촉의 다양성과 상호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이러한 것들이 박탈될 때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하워드 슴츠는 제3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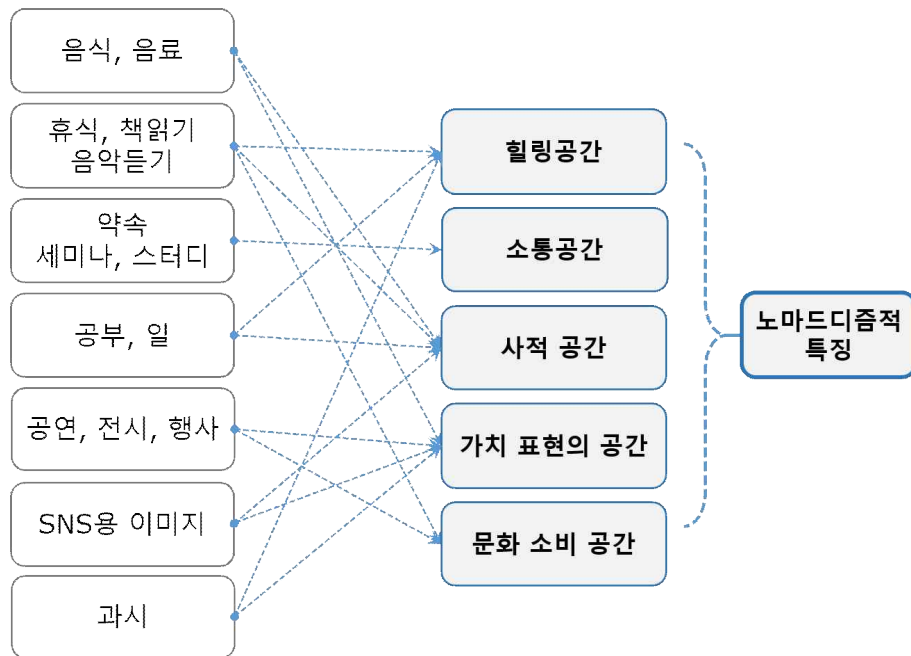
²²⁴⁾ 하정미, 2012, “한국 카페의 공간 생산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10

공간으로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첫째, 로맨스 - 세계 각국의 다양한 맛을 즐기며,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을, 둘째, 저렴한 사치 - 직업과 상관없이 같은 가격으로 커피를 즐기, 셋째, 오아시스 -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 갖는 편안한 휴식, 넷째, 사회적 교류를 들었다.²²⁵⁾

현재의 사람들은 직접적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음료를 마시기 위한 차원을 넘어 카페를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한다. 문근이는 그의 논문에서 제 3공간으로서 카페의 특징을 일곱 가지로 도출하였는데 그것은 힐링공간, 소통의 공간, 개인화된 공간, 가치 표현의 공간, 문화 소비의 공간, 노마드 공간, 하이브리드 공간이다.²²⁶⁾ 다음 <그림 26> 에서는 카페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이용 목적에 따른 카페 공간 사용으로 도식화하였는데 문근이의 일곱 가지 카페의 특성 중 현대 노마디즘적 특성을 보인다고 판단되는 힐링공간, 소통의 공간, 개인화된 공간(사적공간), 가치 표현의 공간, 문화 소비의 공간의 다섯 가지를 차용하였다.

225) 멩명관, 2005, 『스타벅스 100호점의 숨겨진 비밀』, 서울: 비전코리아, pp.167-169 (문근이, 2014, 재인용, p.11)

226) 문근이, 2014, 앞의 책, pp.22~27



<그림 26> 이용 목적에 따른 카페 공간 사용

출처: 문근이, 2014, "제 3의 공간으로서 카페의 공간 연출 전략"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22~27에서 언급한 카페의 7가지 특성 중 노마디즘적 특징을 보이는 5가지를 차용함

사람들은 카페에서 음식과 음료를 먹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세미나나 스터디 등의 모임을 갖고 일이나 공부를 하러 카페에 들르기도 한다. 또 SNS상에서 알려진 카페에서 SNS용 사진을 찍어 공유하며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며 카페에서 열리는 전시나 공연 등의 단기적 경험을 즐기기도 한다. 사용자들은 이처럼 카페라는 하나의 장소에서 각자의 다양한 이용 목적에 맞는 행위들을 한다.

(2) 호텔 공간의 사용

이제 호텔은 더 이상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불가피하게 들러야 하는, 잠을 자는 장소가 아니다. 같은 도심 내에 있더라도 일상을 보내는 집이라는 공간

을 떠나 새로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런 요구에 따른 호텔 패키지 상품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짧은 시간이라도 호텔 객실이라는 비일상적 장소를 빌어 비일상적인 경험을 하는데 다양한 이벤트들을 만들어 여러 사람과 밤새 파티를 즐기기도 하고 마치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여행을 온 듯이 혼자만의 휴식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호텔이라는 공간은 이제 누구나 도심 속 여행자가 되어 찾아갈 수 있는 쉼터이자 특별한 경험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비일상적 이벤트 공간이다. 교통의 발달로 물리적인 이동을 즐기는 이들의 숙박이 주 기능이었던 호텔 공간은 또다시 반복될 일상의 활력을 위해 정서적인 이동을 원하는 노마드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해 주는 비일상적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2) 공적 공간²²⁷⁾과 사적 공간의 변화

현대 사회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들과의 접속을 통해 물리적인 공적 공간을 개인의 업무를 보는 사적 영역으로 변화시킨다. 이는 작업 공간과 생활공간 혹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엄격하게 분리하던 근대 도시 속 공간 사용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사용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도시의 공적 공간인 광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적인 대화를 문자나 톡으로 주고받는다면 물리적으로 몸이 서 있는 공간에서 나는 내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 나와 주변 환경을 분리시키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주어진 역할과 기능에 따라 공간을 명확히 구획하고 구획된 공간마다 사용 목적을 부여해 목적에 따른 각종 기기를 채워 넣고 공간을 명명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공간은 전통적인 공적 공간에 노마디즘의 일시적 접속이 더해짐으로써 공간 사용의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디지털 혁

227) “공적 공간이란 도시의 시설이나 공간 중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공공 또는 사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도로, 버스, 지하철, 정류장, 공원 등 공공적 성격의 공간은 물론 카페, 식당, 병원, 도서관, 쇼핑몰 등 대중에게 개방된 기업적 공간을 포함한다.” 황주성 외 1인, 2005,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도시 공적 공간의 변화”, 한국공간환경학회 Vol.24, p92

명을 배경으로 하는 노마디즘의 탈경계 현상을 잘 보여주는 공간적 양상이다. 가정과 직장이 아닌 통신의 사각지대였던 공적 공간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네트워크에 의해서 공간 외에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적 공간이 혼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공적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또 다른 예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이다. 그 대표적인 공간 사용 예가 호피스(hoffice²²⁸⁾)이다. 호피스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공간 사용 개념으로 개인이 SNS에 자신의 집을 함께 일할 장소로 설정해 글을 작성하면 그 커뮤니티에 접속한 사람들 중에 임시로 일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 서로 친분이 없던 사람들이 그 날만큼은 함께 그 집에 모여 각자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일이나 공부 등을 각자의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알려진 이 호피스 시스템은 한 개인이 필요에 의해 집이라는 사적 영역을 공적화 해 개방하고 각각의 주체들이 필요에 의해 신속하게 연결되어 다시 소집단을 형성한다. 호피스는 개인의 공간을 집단의 공간으로 확장하는 탈영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공간 사용 양상이다. 이는 공간을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경계 지었던 시대를 넘어 경계가 모호한 탈경계적 특성을 보이는 노마디즘의 공간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공간의 즉흥적/우연적/일시적인 사용

소유의 개념이 변화하면서 장소에 대한 개념 또한 변하고 있다. 교통과 디지털 통신의 발달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데 이는 물리적 만남에서 시간적 만남으로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시간 공유의 개념은 물리적인 공간 사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제레미 러프킨은 “지리와 공간적 동일성을 늘 바탕에 두고 있었던 인간의

228) 출처:

<https://www.boston.com/jobs/jobs-news/2015/02/06/hoffice-a-swedish-idea-to-turn-your-home-into-a-shared-office-space>

귀소 본능은 단기적 시간 경험으로 생활공간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의식에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 공유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꾸어놓고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휴가를 위한 별장이나 제2의 주택을 직접 구입하지 않는다.²²⁹⁾ 이러한 현상은 영구적으로 혹은 장기간 동안 공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부담 없이 공유하고 싶은 시간에 접속하여 원하는 시간에만 필요 공간을 점유하는 방법이 쉽고 다양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여가문화의 확산으로 물리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여행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즐기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거나 도심 내에 머무르지만 집이라는 일상 공간과는 다른 공간에서의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또한 증가 추세인데 이런 사람들은 특정 공간을 소유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보다는 즉흥적이고 일시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택한다.

예를 들어 콘도미니엄은 공간의 일정 비율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콘도미니엄의 시간 공유는 1년 중 일정 기간 동안만 그곳을 사용할 수 있는 접속권²³⁰⁾을 구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콘도미니엄보다 더욱 즉흥적이고 짧은 접속권 구입의 경우가 있다. 2015년 8월 기준 전세계 190개국, 34,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150만 개 이상의 객실(방), 1,400개 이상의 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이용객수는 4,0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에어비앤비(Airbnb)가 그것이다.²³¹⁾

에어비앤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학생들이 비싼 집세를 보전하기 위해 간단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집의 한 부분을 빌려 준 데서 시작했다. 이후 에어베드 & 블랙퍼스트란 회사를 설립하여 지금의 에어비앤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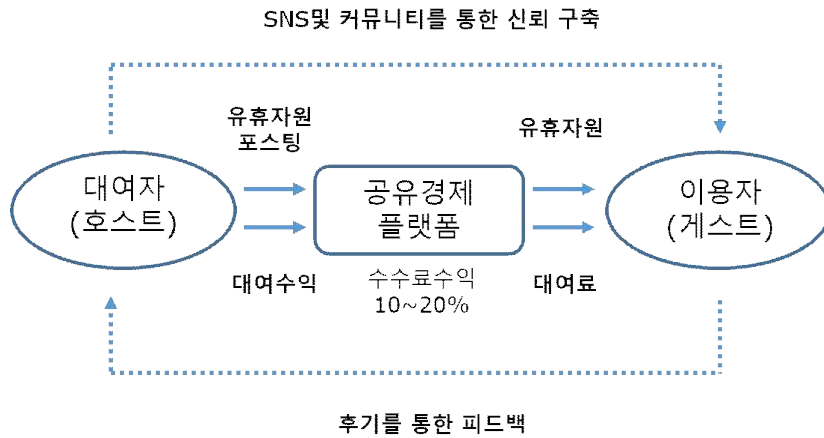
229) 제레미 러프킨 Jeremy Rifkin , 2001, 『소유의 종말』 *The age of access* (2000), 이희재 역, 서울: 민음사, p.188

230) ‘접속권’ 은 제레미 러프킨 Jeremy Rifkin , 2001, 『소유의 종말』 *The age of access* (2000), 이희재 역, 서울: 민음사. 에서 사용한 단어임을 밝힌다.

231) 송순영, 2015, "에어비앤비(Airbnb) 사례를 통해 본 공유경제 관련 법 제정 현황 분석", 소비자정책동향 제64호, p.22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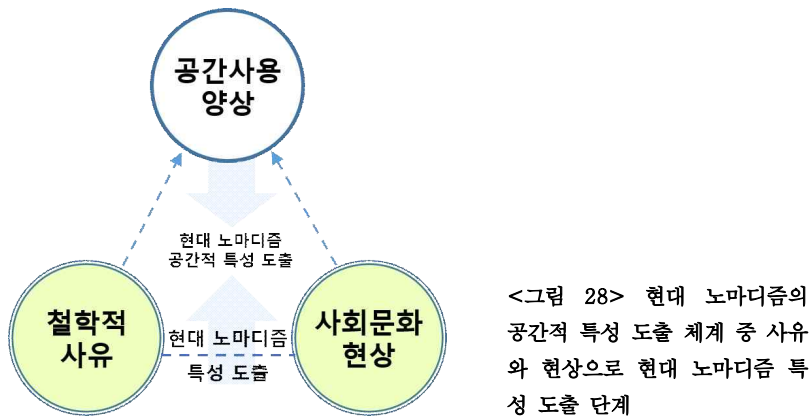
에어비앤비는 집이나 방을 빌려주기를 원하는 호스트라 불리는 대여자, 집이나 방을 빌려 쓰기를 원하는 게스트라 불리는 이용자를 연결하여 숙박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이다. 그 과정은 먼저 객실 대여자인 호스트가 대여 가격을 결정하고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대여할 장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진 등을 게시하여 등록한다. 게스트가 될 이용자는 호스트들이 등록한 장소의 설명과 사진 등을 참고해 등록된 객실들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예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호스트의 승인 후 결제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후 호스트와 게스트가 서로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게 되는 데 중요한 것은 인터넷 네트워킹을 통해 작성된 사용 후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에어비앤비 웹사이트는 물론 SNS에 남겨진 후기를 통해 어떤 호스트와 집이 신뢰를 얻고 있느냐를 알 수 있으며 호스트의 입장에서 에어비앤비를 이미 이용한 게스트 중 어떤 게스트가 좋지 않은 평판을 얻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 27>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모델

출처: 송순영, 2015, "에어비앤비(Airbnb) 사례를 통해 본 공유경제 관련 법 제정
현황 분석", 소비자정책동향 제64호, p.23

4.5. 소결



소절 4.3에서는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비고정성이라는 특성을 노마디즘을 통해 바라보고 먼저 철학적 사유로서의 노마디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을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저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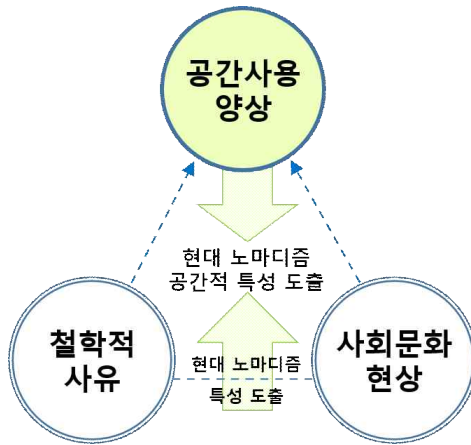
노마디즘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①시간 time, ②공간(또는 영역)boundary 그리고 시간과 영역을 살아가는 ③개체 being 의 사고와 행태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 세 가지 구분을 현대 노마디즘의 특성 도출을 위한 내용 구분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내용 구분 기준으로 저서의 중심 내용들을 추출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기준별 특징들을 통해 현대 노마디즘의 특성을 구체화하였다. <표22>는 철학적 사유로서의 노마디즘과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을 학자들의 저서를 통해 분석하고 그 주요 내용에서 키워드를 추출한 후 도출해낸 노마디즘의 특성을 보여준다.

<표 22> 노마디즘의 특성 도출

배경		관점	내용 구분		
			being	boundary	time
교통의 발달 • 디지털 혁명 • 다원주의 • 유기론적 세계관 • 통섭의 시대 • 라이프스 타임변화 의 흐름에 따른 현대 사회 비교정적 특성		철학적 사유 로서의 노마디즘	리즘 : 다양성 수용 개방적 네트워크	선의 사유 : 고정성에서의 해방 비정주적 이합집산	사건의 배치 : 불규칙한 접속의 계열화와 배치 새로운 자아 생성
		사회-문화적 현상 으로서의 노마디즘	탈중심, 비위계의 네트워크	탈본질주의 탈경계	소유 개념 변화 새로운 자아 탐색 접속의 시대
			새로운 정체성 형성		
	노마디즘의 특성		혼성성	탈영역성	접속성

소절 4.4. 에서는 앞서 철학적 사유와 사회문화적 현상을 통해 도출된 현대

노마디즘 특성을 공간 사용 양상에 투영해 최종적으로 현대 노마디즘 공간 특성을 도출하였는데 이는 사유와 현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현대의 비교정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공간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그 내용은 <표23>과 같다.



<그림 29> 현대 노마디즘의 공간적 특성 도출 체계
현대 노마디즘 특성 도출 단계

<표 23> 노마디즘의 공간적 특성 도출

배경		관점	내용 구분		
			being	boundary	time
교통의 발달 · 디지털 혁명 · 다원주의 · 유기론적 세계관 · 통섭의 시대 · 라이프스 타일변화 의 흐름에 따른 현대 사회 비고정적 특성		철학적 사유로서의 노마디즘	리즘 : 다양성 수용 개방적 네트워크	선의 사유 : 고정성에서의 해방 비정주적 이합집산	사건의 배치 : 불규칙한 접속의 계열화와 배치 새로운 자아 생성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	탈중심, 비위계의 네트워크	탈본질주의 탈경계	소유 개념 변화 새로운 자아 탐색 접속의 시대
			새로운 정체성 형성		
		노마디즘의 특성	혼성성	탈영역성	접속성
		↓			
		노마디즘 관점으로서의 공간사용 양상	제 3의 공간의 통섭적 사용 확대	공적/사적 업무/생활 여성/남성 등의 기능적 공간 구획의 변화	즉흥적, 우연적 일시적 공간 사용 시간 변화에 따른 공간 사용
		노마디즘의 공간적 특성	목적의 혼성성	기능의 탈영역성	접속의 일시성

5. 노마디즘 관점에서의 장소 해석

5.1. 노마디즘 관점으로 본 공간의 비교정성 개념으로의 장소론의 한계

5.1.1. 현대 노마디즘의 특성과 전통적 장소의 고정적 특성 비교

5.2. 노마디즘의 공간적 해석

5.2.1.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 도출 종합

5.3.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 요건 제안

- 1) user_목적의 혼성성(mixed objectives)
- 2) boundary_기능의 탈영역성(non-boundary functions)
- 3) time_접속의 일시성(temporary connections)

5. 노마디즘 관점에서의 장소 해석

5.1. 노마디즘 관점으로 본 공간의 비고정성 개념으로의 장소론의 한계

현대 사회에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이 생활세계의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고 있고 인지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새로운 체계를 만들며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공간이 기존의 공간구획 체계에 의해서 여전히 규정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을 띠게 계획된다. 또한, 1970년대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정립되고 건축가에게 적극 수용된 전통적 장소의 특성들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공간디자이너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공간 계획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의 공간은 상업공간으로 분류되는 제 3공간 사용 확대와 컨버전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 모호, 접속적이고 즉흥적인 공간 사용,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 사용 등의 비고정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장소 개념의 특성들 중 고정성이라는 특성과 상충하며 그 한계를 보인다.

본 절에서는 앞선 3장에서의 장소론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장소론의 특성들 중 시대 변화에 따라 그 한계를 드러낸 비고정성에 대해 논하여 현대 노마디즘적 관점으로 장소를 재해석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검증한다. 또한, 4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노마디즘적 공간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립하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먼저 의미와 해석이 모호한 현대 공간의 비고정적 특성을 명료하게 조직화하고 체계화했다.

5.1.1. 현대 노마디즘의 특성과 전통적 장소²³²⁾의 고정적 특성 비교

본 소절에서는 현대 노마디즘의 특성들을 도출했던 4장의 내용과 견주어 앞서 3장에서 도출되었던 과거 전통적인 장소론의 특성들을 비교해 장소의 고정적 특성이 갖는 시대적 한계점들을 확인한다.

<표24>는 장소론의 중심성/영역성, 시간/맥락성, 상징성, 정지성, 체험성, 정체성 특성 중 중심성/영역성, 시간/맥락성, 정지성, 정체성이라는 네 가지 특성에서 고정성이라는 공통된 성격을 보인 3장의 분석 결과와 4장에서 도출한 현대 노마디즘의 특성인 탈영역성, 혼성성, 접속성을 비교한 것이다. 전통적인 장소론에서 보이는 장소 개념의 고정적 특성은 과거 장소론 정립 당시의 시대적 공간 의식을 비롯해 정주적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보편적이었던 환경적 배경이 반영된 것으로 장소 특성의 중심성/영역성은 노마디즘 특성 중 비영역성과 혼성성에서, 시간성/맥락성과 정지성은 접속성에서, 정체성은 혼성성에서 각각 상충되어 현 노마디즘 시대의 비교정적 패러다임에서는 한계점으로 나타남을 확인했다.

232) 본 논문에서 연구자가 사용한 ‘전통적인 장소’의 의미는 노마디즘 관점에서의 현대적으로 해석할 장소에 비교되는 과거 장소론에서 언급된 장소를 가리킨다. 이 장소 개념은 1970년대 인본적 지리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어 개념화되고 동시에 건축가들에게 적극 수용되어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 장소에 대한 개념을 말한다. 이는 정주적 사고와 생활 방식의 영향을 받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시간의 층위가 쌓인 뿌리 내림과 소속감, 지역과 환경을 고려한 맥락과 역사, 중심과 경계가 명확한 영역성 등으로 대표되는 고정성이라는 특성이 강조되었던 장소 개념이다.

<표 24> 현대 노마디즘의 특성과 전통적 장소의 고정적 특성 비교

현대 노마디즘 특성	내용	장소의 고정적 특성	내용
비영역성 boundary	• 기능과 영역의 경계가 모호	중심성 영역성 boundary	• 뿌리/기준점/소속감이 중요 • 본연의 영역이 중요
혼성성 being	• 중심이 없는 다중심적 네트워크형	시간성 맥락성 time	• 시간의 층위가 쌓여야 함 • 지역과 주변의 맥락에 맞는 뿌리내림이 있어야 함
접속성 time	• 우연, 즉흥, 일시적인 접속이 가능하며 이를 선호 • 사건적 공간의 사용은 일시적 특성을 갖고 시간에 따라 서로 연결 됨	정지성 time	• 움직임이 멈추고 한 곳에 정지해야 함 • 개발과 변화는 장소를 상실하게 함
혼성성 being	• 동질이 아닌 이질적이고 다양한 것들의 연결/복합	정체성 being	• 하나의 장소를 통한 동질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야 함
비고정성		고정성	

5.2. 노마디즘의 공간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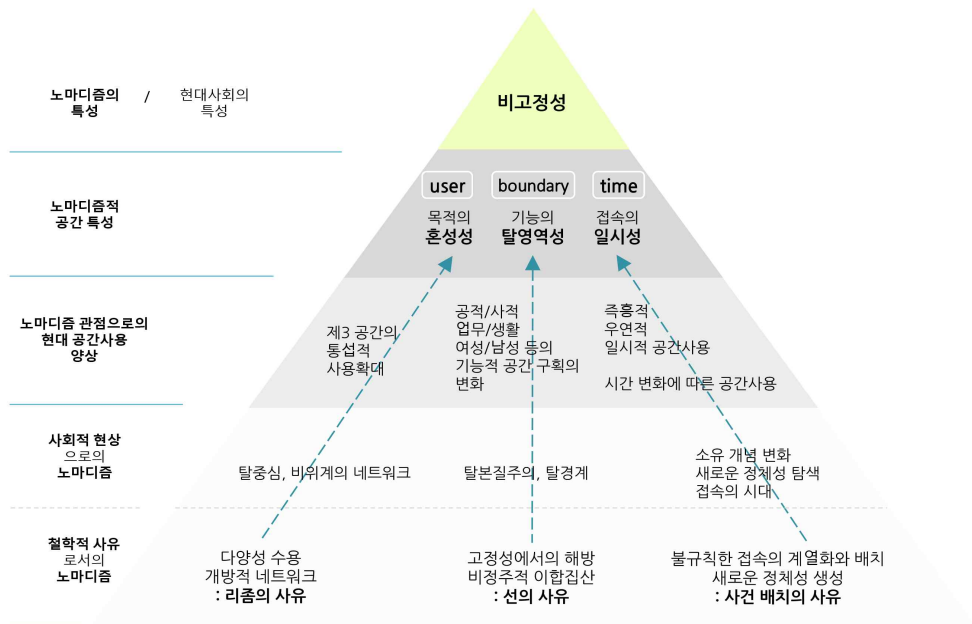
노마디즘은 현대 사회의 비고정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명료하게 조직화하고 체계화 하여 공간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선택한 관점이다. 이 패러다임에서 공간적 해석을 도출하기 위해 4장에서 먼저 노마디즘의 특성 해석체계를 마련하였고 그 해석체계에 따라 도출된 노마디즘의 특성을 현대 사회의 실생활세계 속 공간 사용 양상과 함께 분석하여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을 도출하

였다. 이 절에서는 4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노마디즘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과거 전통적인 장소론에서 말하는 장소 개념이 가진 고정성의 한계를 보완할 현대 사회의 비고정적 특성을 가지는 장소로 재해석한다.

5.2.1.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 도출 과정 종합

<그림30>는 급격한 기술-정보,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현대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비고정성이라는 큰 흐름 속 현대 공간 특성을 노마디즘의 관점을 빌려 구체화하고 조직화 한 과정을 종합하여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사유방식, 현상, 양상으로 존재하는 노마디즘을 공간적으로 해석하여 개념화하기 위해 먼저 노마디즘 해석체계를 수립하고 이 해석체계에 따라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을 도출했다. 먼저 철학 사유로서의 노마디즘, 사회-문화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을 분석해 키워드들을 추출하고 이 키워드들을 분류해 노마디즘의 특성인 혼성성, 탈영역성, 접속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현대 공간 사용 양상에 투영시켜 user, boundary, time의 기준으로 각각 목적의 혼성(mixed objectives), 기능의 탈영역성(non-boundary functions), 접속의 일시성(temporary connections)이라는 세 가지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목적의 혼성성은 공간을 사용하는 개체의 입장에서 사용 개체의 공간 이용 목적과 방식에 나타나는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이며, 기능의 탈영역성은 공간 기능과 영역 구성방식에서 나타나는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 그리고 접속의 일시성은 공간에 주어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공간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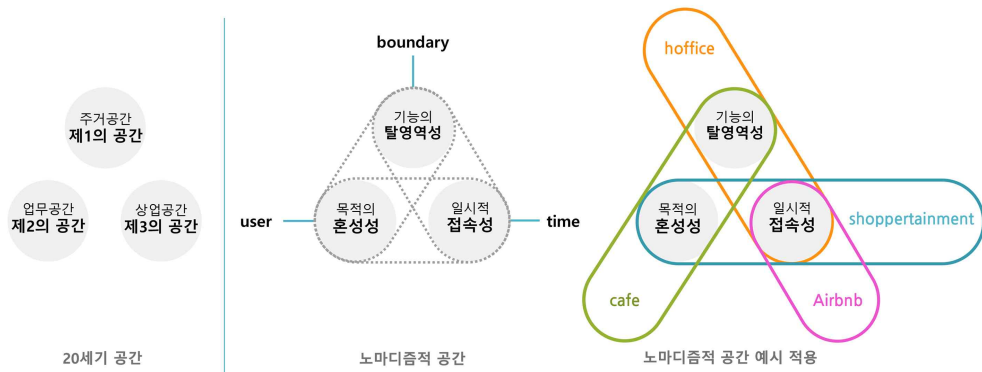


<그림 30> 노마디즘의 공간적 특성 도출 과정 종합

5.3. 노마디즘 공간의 특성 요건 제안

이번 절에서는 노마디즘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특성들을 정리해 노마디즘적 관점으로 현대적 장소를 해석할 때 필요한 비고정적 공간 특성의 요건들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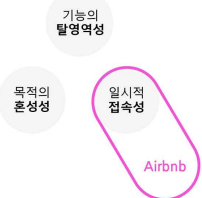

과거 20세기는 공간을 기능에 따라 주거 공간인 제1공간, 업무 공간인 제2공간, 상업 공간인 제3공간으로 구분했다면 노마디즘적 공간은 user_사용자 이용방식, boundary_공간 구성 방식, time_공간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각각 그 기준에 맞는 목적의 혼성성(mixed objectives), 기능의 탈영역성(non-boundary functions), 접속의 일시성(temporary connections)이 필요에 따라 교차 적용되어 결합과 해체를 통해 형성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림 31> 20세기 공간과 노마디즘적 공간

<그림31>은 20세기 공간의 분류와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 요소의 결합 원리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또한, <표25>에서는 노마디즘 공간 특성 요건들의 결합을 통한 공간 구성 방법을 현대 공간 사용 양상들 중 대표적인 예들에 적용해 다이어그램과 함께 설명하였다.

<표 25> 현대 공간 사용 양상에 적용한 노마디즘 공간 특성 요건

공간양상 예시	노마디즘 공간 특성 요건	내용
hof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me+office의 신조어 • 기능적 구분이 뚜렷했던 과거식 공간 경계를 무너뜨림 • 노마디즘적 공간에서는 기존의 공간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격의 공간을 형성해 새로운 장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간의 고유한 기능과 영역 부여는 의미가 없음 • 누구에 의해서라도 즉흥/우연/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특성을 가지며 여기서 일시적 접속성 나타남 • 한 개인이 필요에 의해 집이라는 개인적 영역을 공격화해 개방하고, 다른 각각의 주체들이 필요에 의해 신속하게 연결돼 소집단을 형성하여, 개인의 공간을 집단의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탈영역성 보임
ca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의 공간 이용 목적과 방식에 나타나는 노마디즘 공간의 특성인 목적의 혼성성을 가짐 • 다양한 행위를 하는 공간으로 힐링, 소통, 사적, 가치 표현, 문화 소비 공간이라는 이용 목적의 혼성성을 가짐 • 이런 양상은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포용하는 특징이 있음 • 절대적 질서를 중요시 하는 장소이론에서 혼돈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특성이 노마디즘적 공간에서는 새로운 체계의 질서를 만들어 낸다고 보고 있음
Airb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스트들이 플랫폼에 자신의 빈 방이나 집을 소개하고 게스트들이 이를 즉흥적으로 선택하여 점유하는 방식 • 제한적 사람들에 의한 고정되고 지속적인 점유가 아닌 사건의 공간의 사용은 일시성을 가짐 • 순간적/불규칙적/우연적 선택에 의해 접속된 이런 공간 사용은 미 확정적이며 개방적인 공간프로그램을 수용해야 함
Shopper tai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객인 쇼퍼와 엔터테인먼트를 합한 신공간사용 양상 • 말 그대로 하나의 공간에 쇼핑 공간과 그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공간들이 혼성적으로 존재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그 곳을 이용하는 양상을 보임 • 이는 소비자의 공간 접속 이유를 다양하게 만들어 접속 횟수와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1) User_목적의 혼성성(mixed objectives)

사용자를 주체로 한 노마디즘 공간의 특성인 목적의 혼성성은 전·후의 관계나 필연성 등과 상관없이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포용하고 연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절대적 질서를 중요시하던 장소 이론에서는 혼돈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노마디즘적 공간에서는 이러한 이질적인 것들의 연결과 흐름은 연결 전과는 다른 새로운 체계의 질서를 만들어 낸다고 본다. 또한, 위계를 갖지 않는 연결은 비고정적 노마디즘의 공간에서 복합적 성격을 가지며 구현된다. 디지털 문화의 네트워크는 비위계적 비규칙적인 사고를 지향하는데 이러한 사고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공간 사용에서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혼성적으로 사용할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가 만들어낸 현대 공간 양상들은 과거와는 다른 현대 공간의 공간특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시간적 환경적 맥락과 관계없이 다양한 차이들 각각을 인정하여 하나로 포용하는 노마디즘 공간의 혼성적 특성은 자유로운 접속이 가능한 개방성을 지니며 이를 통해 열린 공간은 무한한 확장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목적의 혼성성은 공간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공간 이용 목적과 방식에 나타나는 노마디즘 공간의 특성이다. 이러한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이 이미 양상으로 나타나는 예로 카페를 들 수 있다. 카페는 집이나 직장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이다. 현재의 사람들은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음료를 위한 차원을 넘어선 공간으로 사용한다. 사람들은 카페에서 음식과 음료를 먹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스터디등의 소모임을 갖는다. 또 SNS상에서 알려진 카페에서 SNS용 사진을 찍어 공유하며 자기 과시의 장소로 사용하거나 카페에서 열리는 전시나 공연 등의 단기적 경험을 즐기기도 한다. 사용자들은 이처럼 카페라는 하나의 장소에서 각자의 이용 목적에 맞는 행위들을 하는데 이는 카페라는 공간이 힐링 공간, 소통 공간, 사적 공간, 가치 표현의 공간, 문화 소비 공간이라는 이용 목적의 혼성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적의 혼성성이라는 특성은 비위계적 비규칙적 사고를 지향하는 공간사용자들이 절대적 공간의 제약이나 질서 없이 개인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그 공간을 이용한다는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은 특성은 공간 사용자 개개인이 지향하는 다양한 문화 차이의 포용과 개인의 필요나 목적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공간 사용을 위한 개방성과 확장성을 가진 현대 장소 만들기의 공간 특성적 지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2) Boundary_기능의 탈영역성(non-boundary functions)

노마디즘에서 하나의 고정된 점을 벗어나는 선은 영역을 모호하게 하며 그 경계를 확장시킨다. 노마디즘의 끊임없는 비정주적 움직임은 내부를 외부로 연결하고 외부가 내부로 유입되어 균질적이고 구획 적이던 공간의 고정적 특징을 허문다. 이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업무공간과 생활공간, 여성 공간과 남성 공간 등 영역적 혹은 기능적으로 구분이 확실했던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노마디즘적 공간은 공간의 기능과 영역에 의해 강제로 분류되어 소속되는 개인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적 주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 개인의 의지에 따라 필요 공간을 형성하는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각각의 주체들이 필요에 의해 서로 신속하게 연결되어 다시 소집단을 형성하며 개인의 공간을 집단의 공간으로 확장시키기도 하는 탈영역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공간들은 비정주적이며 탈영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능의 탈영역성은 공간 기능과 영역 구성방식에서 나타나는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이다. 이 특성은 기능이나 영역으로 구분되던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린 현대 사회 공간 사용 양상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다. 그 예로는 공적 공간 속 사적 공간 혹은 사적 공간 속에 공적 공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개인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물리적 공적 공간 내 개인의 업무를 행하는 사적 공간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사적 공간에서 각

자의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이 모여 공적 혹은 사적 업무를 보는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개념을 뜻한다. 그 대표적인 공간 사용 예가 호피스 hoffice²³³⁾이다. 호피스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공간 사용 개념으로 개인이 커뮤니티에 자신의 집을 함께 일할 장소로 알리면 그 커뮤니티에 접속한 사람들 중에 임시로 일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 서로 친분이 없던 사람들이 그 날 만큼은 함께 그 집에 모여 각자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집에서 혼자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알려진 이 호피스 시스템은 개인이 필요에 의해 집이라는 사적 영역을 공적화 해 개방하고 각각의 주체들이 필요에 의해 신속하게 연결되어 다시 소집단을 형성하며 개인의 공간을 집단의 공간으로 확장하는 탈영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공간 사용 양상이다.

기능의 탈영역성이라는 특성은 노마디즘의 유동적 사고와 비정주적 움직임이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려 영역적 기능적 구분이 모호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능이나 영역의 구분으로 강제적으로 분류되던 개인이 독립적 주체가 되어 필요에 의해서는 기존의 공간에 새로운 성격의 공간을 형성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간에 고유한 기능과 영역 부여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모호해지므로 기능별 영역별 공간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자율적 공간 구성방식을 유도하는 기능의 탈영역성은 현대 장소 만들기의 공간 구성 요건으로 작용 될 것이다.

3) Time_접속의 일시성(temporary connections)

노마디즘의 공간적 측면에서 접속의 일시성은 제한적 사람들에 의한 지속적이거나 규칙적인 공간의 사용이 아닌 어떤 누구에 의해서라도 즉흥적이고 우연적이며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런 사건적 공간의

²³³⁾ 출처:

<https://www.boston.com/jobs/jobs-news/2015/02/06/hoffice-a-swedish-idea-to-turn-your-home-into-a-shared-office-space>

사용은 일시성을 갖는다. 규정된 공간 사용이나 사용자의 순환이 아닌 우연적, 순간적, 불규칙적 선택으로 접속된 공간들은 사건을 계열화하여 배치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 연결됨으로써 들뢰즈가 말한 ‘~이 됨’의 과정 자체로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접속의 일시성은 움직임이 정지해야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를 형성한다는 장소론의 시간성과 정지성이라는 특성에 반대되는 공간적 해석으로, 접속이 발생할 동안 공간에 머무르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점유하여 사용하는 장소, 여기서 발생하는 사건, 사용자의 움직임 등이 상호 작용하여 하나의 공간 사용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접속의 일시성은 공간에 주어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공간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시간 공유의 원리가 적용된 에어비앤비 Airbnb이다.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호스트라 불리는 대여자, 게스트라 불리는 이용자를 연결하여 숙박공유가 이루어진다. 게스트는 객실 대여자인 호스트들이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공간을 온라인을 통해 둘러보고 그중 하나를 골라 예약 후 결제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숙박이 이루어진 후 호스트와 게스트는 서로에 대해 각각 후기를 작성할 수 있다. 이 후기는 인터넷 네트워킹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되는데 이것이 서로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어 게스트가 객실을 선택하는 기준, 혹은 호스트가 게스트를 거부할 기준이 되기도 한다. 각 객실은 그 객실을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이용하는 사람의 활동과 사건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접속의 일시성은 지속적인 공간의 점유나 규칙적인 공간 사용을 위한 공간 프로그램이 아닌 일시적 점유나 가변적인 접속에 의한 경험적 공간 사용이라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고정되고 지속적인 점유가 아닌 즉흥적/가변적/일시적인 머물기를 통한 공간 사용은 사건의 발생과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미확정적이고도 개방적인 공간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현대 장소 만들기의 공간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특성적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6. 결론

6.1. 연구 결과 요약

6.2. 연구의 함의 및 제언

6. 결론

6.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현 시대 사회 전반에서 볼 수 있는 자유롭고 비고정적인 상태에 대한 선호 현상을 노마디즘 관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직화한 특성으로 도출하고 이를 현대 공간 사용 양상에 투영시켜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 요건을 제안한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전통적 장소 개념의 특성들 중 정주적 생활 방식과 사고체계의 영향을 받은 장소의 고정성이라는 한계를 보완하여 노마디즘 시대에 맞는 현대적 장소 만들기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2장에서는 공간과 장소의 정의, 공간이 장소화 되는 과정과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여 공간과 장소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였으며 장소론이 건축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배경을 밝혔다. 고찰의 결과 이원론으로 인간과 공간을 따로 놓고 공간 자체에 집중하던 시대를 넘어서면서 공간을 경험하는 주체인 인간과 그 인간의 경험을 담는 생활세계로서의 관계를 맺은 공간이 1970년대에 장소로 개념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소를 개념화한 것은 과학적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현상학과 실존주의에 토대한 이론을 수용하였던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이론은 상대적 공간 개념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장소 개념은 정주적 생활 방식과 사고가 지배하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시간의 층위가 쌓인 뿌리 내림과 소속감, 지역과 환경을 고려한 맥락과 역사, 중심과 경계가 명확한 영역성 등으로 대표되는 고정성이라는 특성이 강조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장소 개념은 기능주의와 인간소외라는 모더니즘 건축의 한계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보였던 건축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장소성으로 대표되는 건축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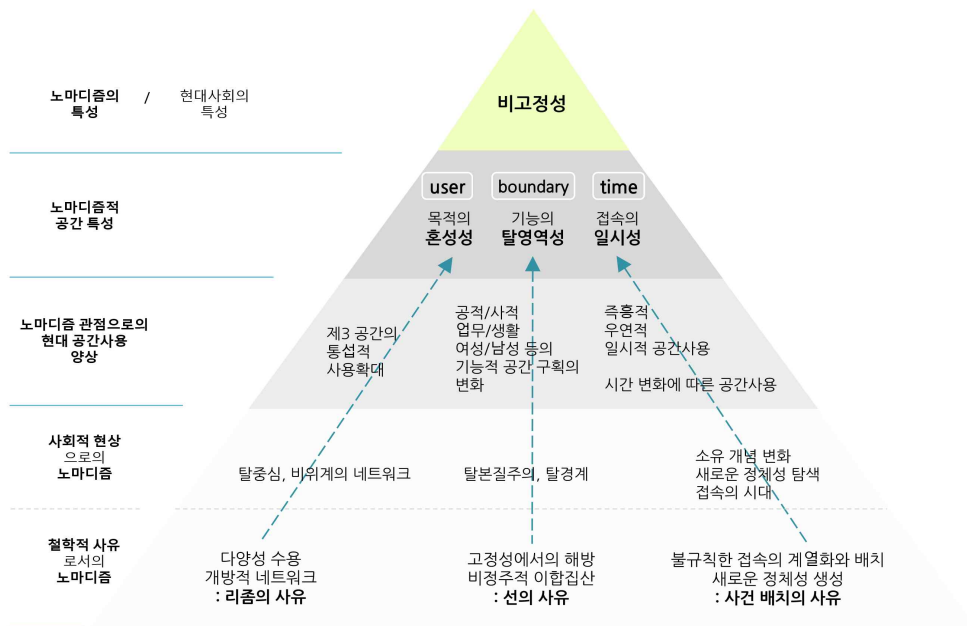
으로 전개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2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다시 한 번 공간 인식과 공간 개념의 범위에 큰 변화가 있었던 배경에 관해 설명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공간 개념과 공간 인식 수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둘째, 3장에서는 장소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화한 인본주의 지리학을 중심으로 장소 이론을 편 학자들의 저서를 통해 그들의 관점과 이론을 분석했다. 이 장의 핵심은 이들의 이론을 통해 그 시대의 장소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특성들 중 비고정적 성격이 현시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는 주장에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학자별 개념을 분석한 결과 장소 이론은 중심성/영역성, 시간성/맥락성, 상징성, 정지성, 체험성, 정체성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이 중 중심성/영역성, 시간성/맥락성, 정지성, 정체성이 고정성이라는 공통 성격을 보인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었다.

셋째, 4장에서는 먼저 현시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KDRI의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였고 현대 노마디즘의 개념과 이러한 패러다임의 거시적 배경의 관계에 관해 정리하였다. 사유방식과 현상으로 존재하는 노마디즘을 공간적으로 해석하여 개념화하기 위해 노마디즘 해석체계를 수립하여 이 해석체계에 따라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을 도출했다. 그 과정은 먼저 철학 사유로서의 노마디즘, 사회-문화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을 분석해 노마디즘의 특성이 혼성성, 탈영역성, 접속성이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를 현대 공간 사용 양상에 투영시켜 목적의 혼성성(mixed objectives), 기능의 탈영역성 (non-boundary functions), 접속의 일시성 (temporary connections)이라는 세 가지 공간적 특성으로 도출하였다.

넷째, 연구의 결과라 볼 수 있는 5장에서는 앞선 3장에서의 전통적 장소 이론의 고정적 성격이 드러나는 특성들과 4장에서의 노마디즘의 특성을 비교해 장소론의 특성들 중 고정성에 대한 시대적 한계를 확인했다. 또한, 4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노마디즘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미와 해석이 모호한 현대 공간의 비고정적 특성을 <그림32>와 같이 조직화하여 체계화했다.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은 공간 사용자, 공간 영역, 공간에 적용되는 시간의 범위로 각각 User_목적의 혼성성(mixed objectives), Boundary_기능의 탈영역성 (non-boundary functions), Time_접속의 일시성 (temporary connections)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림 32> 노마디즘의 공간적 특성 도출 과정 종합

<그림32>은 급격한 기술-정보,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현대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비고정성이라는 큰 흐름 속 현대 공간의 특성을 노마디즘 관점을 빌려 구체화하고 조직화 한 것이다.

사유방식, 현상, 양상으로 존재하는 노마디즘을 공간적으로 해석하여 개념화하기 위해 먼저 노마디즘 해석체계를 수립하였다. 이 해석체계에 따라 노마디

점적 공간의 특성을 도출했다. 그 과정은 먼저 철학 사유로서의 노마디즘, 사회-문화 현상으로서의 노마디즘을 분석해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 키워드들을 분류해 혼성성, 탈영역성, 접속성이라는 노마디즘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현대 공간 사용 양상에 투영시켜 목적의 혼성성(mixed objectives), 기능의 탈영역성(non-boundary functions), 접속의 일시성(temporary connections)이라는 세 가지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목적의 혼성성은 공간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공간 이용 목적과 방식에 나타나는 공간 특성이며, 기능의 탈영역성은 공간 기능과 영역 구성방식에서 나타나는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 그리고 접속의 일시성은 공간에 주어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공간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을 말한다.

<표26>은 노마디즘적 공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 요건을 User_목적의 혼성성(mixed objectives), Boundary_기능의 탈영역성 (non-boundary functions), Time_접속의 일시성(temporary connections)로 구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재 공간 사용 예시²³⁴⁾, 그 공간 특성의 성격, 지표로서의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 제 안한 것이다.

²³⁴⁾ 현대 공간 사용 예시들은 각각의 특성 하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모두의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 더욱 강조되는 특성 부분의 예시로 선택해 분류한 것임을 밝힌다.

<표 26> 노마디즘적 공간의 특성

주체	user	boundary	time
공간 특성	목적의 혼성성 mixed objectives	기능의 탈영역성 non-boundary functions	접속의 일시성 temporary connections
구분	사용자 이용방식	공간 구성방식	공간 프로그램
공간 사용 예시	cafe, 호텔	공적 공간 속 사적 디지털 기기 사용이 형성하는 사적 공간/혹은 반대의 개념인 hoffice (home+office)	Airbnb, hoffice (home+office), bank-cafe temporary market
성격	비위계적/비규칙적 사고를 지향하는 사고방식의 사용자들이 절대적 질서 없이 개인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노마디즘의 유동적 사고와 끊임없는 비정주적 움직임이 영역적/기능적 구분이 확실했던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림	제안된 사람들에 의한 지속적/규칙적 사용이 아닌 일시적 점유나 가변적인 접속 가능, 시간 변화에 따른 유동적 프로그램 가능
활용	개인이 지향하는 다양한 문화 차이들을 포용, 개인의 필요나 목적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공간 사용 이용을 위해 개방성과 확장성을 가짐	독립적 개인적 주체가 필요 영역을 스스로 형성해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짐, 영역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던 경계 배제	고정/지속된 점유가 아닌 즉흥적/가변적/일시적인 머무는 동안의 점유, 사건의 발생/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는 미확정적/개방적 공간프로그램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의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 User_목적의 혼성성(mixed objectives)

디지털 문화의 네트워크는 비위계적 비규범적 사고를 지향하는데 이러한 사고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공간 사용에서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혼성적으로 사용할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구성될 현대 공간은 과거와는 다른 현대 공간의 공간특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목적의 혼성성은 공간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공간 이용 방식에 나타나는 노마디즘 공간의 특성이다. 목적의 혼성성이라는 특성은 제한된이고 제한된 사고를 지향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용자들이 절대적 공간의 제약이나 질서 없이 개인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그 공간을 이용한다는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은 특성은 공간 사용자 개개인이 지향하는 다양한 문화 차이의 포용과 개인의 필요나 목적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공간 사용을 위한 개방성과 확장성을 가진 현대 장소 만들기의 공간 특성적 지표가 될 것이다.

- Boundary_기능의 탈영역성 (non-boundary functions)

노마디즘적 공간은 공간의 기능과 영역에 의해 강제로 분류되어 소속되는 개인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적 주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 개인의 의지에 따라 필요 공간을 형성한다. 하지만 각각의 주체들이 필요에 의해 서로 신속하게 연결되어 다시 소집단을 형성하며 개인의 공간을 집단의 공간으로 확장시키기도 하는 탈영역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공간들은 비정주적이며 탈영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능의 탈영역성은 공간 기능과 영역 구성방식에서 나타나는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이다. 기능의 탈영역성이라는 특성은 노마디즘의 유동적 사고와 비정주적 움직임이 영역적 기능적 구분이 뚜렷했던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능이나 영역의 구분으로 강제로 분류되던 개인이 독립적 주체가 되어 필요에 의해 기존의 공간에 새로운 성격을 더하거나 빼면서 또 다른 공간을 형성시킬 수 있으므로 공간의 고유한 기능과 영역 부

여는 그 의미가 모호해진다. 기능별 영역별 공간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자율적 공간 구성방식을 유도하는 기능의 탈영역성은 현대 장소 만들기의 공간 구성 요건으로 작용 될 것이다.

• Time_접속의 일시성 (temporary connections)

접속의 일시성은 공간에 주어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공간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이다. 노마디즘의 공간적 측면에서 접속의 일시성은 제한적 사람들에 의한 지속적이거나 규칙적인 공간의 사용이 아닌 어떤 누구에 의해서라도 즉흥적이고 우연적이며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특성을 의미한다. 접속의 일시성이라는 노마디즘 공간의 시간적 특성은 지속적인 공간의 점유나 규정된 공간 사용, 사용자의 순환의 효율성을 위한 공간 프로그램이 아닌 일시적 점유나 가변적인 접속에 의한 경험적 공간 사용이라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고정되고 지속적인 점유가 아닌 즉흥적/가변적/일시적인 머물기를 통한 공간 사용은 사건의 발생과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미확정 적이고 도 개방적인 공간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현대 장소 만들기의 공간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특성적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user 사용자 이용방식	목적의 혼성성 mixed objec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계적·비규칙적 사고를 지향하는 개인의 다양한 문화 차이들을 포용, • 개인의 욕구, 필요, 목적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공간 사용 이용을 위해 개방성과 확장 가능성을 가져야 함
boundary 공간 구성방식	기능의 탈영역성 non-boundary fun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공간 구성의 차원을 넘어서야 함 • 독립적, 개인적인 주체가 필요 영역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성 필요 • 영역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던 경계 배제
time 공간 프로그램	접속적 일시성 temporary conne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지속된 점유가 아닌 즉흥적·가변적·일시적으로 머무는 동안의 점유와 가변적인 접속이 가능해야 함 • 사건의 발생과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미확정적·개방적 공간프로그램

<그림 33> 노마디즘 공간의 특성 요건 요약

6.2. 연구의 함의 및 제언

20세기 후반 이후의 급격한 기술-정보,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전반에서 규범적이고 고정적인 사상과 가치체계보다는 비고정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 대한 선호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고정적 패러다임의 영향은 비고정적 성격을 띠는 공간들에 대한 개념 정립에 선행되어 정주적 사고와 삶에 맞춰진 기존의 장소들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 사용 양상들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비고정적 특성을 갖는 현대 사회의 공간은 공간사용자, 공간 자체의 영역, 공간에 적용되는 시간의 범위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질서체계가 요구되어야 함을 인지하는 데서 출발했다.

“장소의 개념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발전·변화하고 소멸되며 다른 장소로 대체되어야 한다.”²³⁵⁾는 최병두의 말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장소 개념의 장소 의미는 수용하면서도 현시대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고정성이라는 특성은 보완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였다.

본 논문은 현시대의 사유체계와 생활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인 광의적 노마디즘을 통해 추상성을 띠고 있는 현대의 비고정적 공간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조직화, 체계화하여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 요건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노마디즘적 공간 특성 요건들은 현대 노마디즘 시대에는 한계로 드러나는 장소의 고정적 특성을 극복하고 비고정적 특성을 보이는 현 시대에 맞는 장소 만들기를 위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²³⁵⁾ 최병두, 2002, 앞의 책, p.259

참 고 문 헌

국내 단행본

- 강학순, 2011, 『존재와 공간 : 하이데거 존재의 토폴로지와 사상의 흐름』, 서울: 한길사
- 고길섭, 1998, 『소수 문학들의 정치학』, 서울: 문화과학사
- 김민주 외 1인, 2007, 『앞으로 3년 대한민국 트렌드』, 서울: 한스미디어
- 도승연 외7인, 2011, 『현대철학과 사회이론의 공간적 선회』, 서울: 라움
- 박창원 외3인, 2012, 『논문작성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서울대학교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KDRI, 2013, 『Future forecasting 2.0_2013 Special report』, 서울: KDRIL
- 이규목, 1992, 『도시와 상징』, 서울: 일지사, pp.30-32
- 이진경, 2002, 『노마디즘: 천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서울: 휴머니스트
- 전종한, 2012, 『인문지리학의 시선』, 서울: 사회평론
- 최병두, 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서울: 삼인_논문2002년과구분
- 최병주 외, 2016, 『인문지리학 개론』, 한국지역지리학회 엮음, 경기도 파주 : 한울아카데미

국내 번역본

- 가스통 바슐라르, Gaston Bachelard, 2003, 『공간의 시학』 (*La Poétique de l'espace*, (1957). 곽광수 역, 서울: 민음사
- 고틀프리트 빌헬름 폰 라이프니츠, 사무엘 클라크 공저 Leibniz, Gottfried Wilhelm Freiherr von & Clarke, Samuel, 2005, 『라이프니츠와 클라크의 편지』, (*A Collection of papers, which passed between the late learned Mr. Leibniz and Dr. Clarke in the years 1715 and 1716 relating to the*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and religion (1717), 배선복 역, 서울 : 철학과현실사

- 구로가와 키쇼 Kurokawa, Kishō , 1985, 『현대 건축의 창조』 , 윤답노 역, 서울: 태림문화사
- 군돌라 앵리슈 G. Englisch, 2002, 『잡노마드 사회』 , *Jobnomaden* (2001), 이미옥 역, 서울: 문예출판사
- 기든스 앤소니 Giddens Anthony, 1995, 『사적 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Macmilan, London (1981), 최병두 역, 서울: 나남
- 데이비드 하비 David Harvey, 2010,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Space of neoliberalization* (2005), 임동근 외2인 역. 서울: 문학과 과학사
- 로우, Setha M. Low ; Erve Chambers [공편], 1994, 『주거·문화·디자인』 , *Housing, culture, and design* (1989), 주거문화연구회 역, 서울 :신광출판사
- 마르쿠스 슈뢰즈, Markus Schroer, 2010, 『공간·장소·경계』 , *Raume, Orte, Grenzen* (2006), 정인모, 배정희 역, 서울: 에코리브르
- 미셸 마페졸리 Michel Maffesoli, 2008, 『노마디즘』 , *Du Nomadisme* (2006), 최원기, 최향섭 역, 서울: 일신사
- 반 드 벤, Van de Ven, 1998, 『건축 공간론』 , *Space in architecture* (1980), 정진원, 고성룡 역, 서울: 기문당
- 사토 후미타아, 2000, 『양자역학으로 본 우주』 , *量子宇宙をのぞく/佐藤文隆* (1991), 김재영 역, 서울: 아카데미 서적
- 쉘츠, C.N.Shulze, 1996, 『장소의 혼』 , *Genius Loci* (1979), 민경호 외 공역, 서울: 태림문화사
- 쉘츠, C.N.Shulze, 2002, 『실존·공간·건축』 ,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1971), 김광현 역, 서울: 태림문화사

- 아모스 라포포트, Rapoport, Amos, 2014, 『주거형태와 문화』, *House form and culture* (1969), 이계목 역, 서울: 열화당
-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Otto Friedrich Bollnow, 2011, 『인간과 공간』, *Human space* (1963), 이기숙 역, 서울: 에코리브르
- 에드워드 렐프, Edward Relph, 2016, 『장소와 장소상실』, *place and placelessness* (1976),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서울: 논형
- 이-푸 투안 Tuan Yi-Fu, 2011, 『공간과 장소』, *Space and Place* (1977), 구동회-심승희 역, 서울: 도서출판 대운
- 자크 아탈리 Jacques Attali, 2005,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L'homme nomade* (2003), 이효숙 역, 서울: 웅진닷컴
- 자크 아탈리 Jacques Attali, 1999, 『21세기 사전』, *Dictionnaire du XXIe siecle* (1998), 편혜원 역,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 제레미 러프킨 Jeremy Rifkin, 2001, 『소유의 종말』, *The age of access* (2000), 이희재 역, 서울: 민음사
-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1999, 『의미의 논리』, *Logique du Sens*, 이정우 역, 서울: 한길사
-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Gilles. Deleuze / F. Guattari, 2001, 『천개의 고원』, *Mille plateaux* (1980), 김재인 역, 서울: 새물결
- 질 밸런타인, Valentine, Gill, 2014,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Social Geographies: Space and Society*, 박경환 역, 서울: 한울
- 크리스티안 미쿤다 Christian Mikunda, 2005, 『제3의 공간』, *Brand Lands, Hot Spots & Cool Spaces*, 최기철, 박성신 역, 서울: 미래의 창
- 팀 크레스웰, Tim Cresswell, 2012, 『장소: 짧은 지리학 개론』, *Place: a short introduction* (2004), 심승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팀 크레스웰, Tim Cresswell, 2015, 『지리사상사』, *Geographic Thought*:

a Critical introduction (2013), 박경환 외 4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국외 단행본

- A.A. Long & D. N. Sedley, 1987, *The Hellenistic Philosophers I*, Cambridge: Cambridge Uni. Press
- Aristotle, 1996, *Physics*, translated by Robin Waterfield,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11b10
- Barbrook, Richard und Cameron, Andy, *Die kalifornische Ideologie* In: Telwpolis vom 5.2.97. <http://www.telepolis.de> 참고
- C. N. Schulz, 1994, *Concept of Dwelling*, New York: Rizzoli
- C. N. Schulz, 2000, *Architecture: Presence, Language, Place*, Skira Library of Architecture
- C. N. Schulz, 1968, *Intentions in Architecture*, The MIT Press
- Einstein, Albert, 1960, “Vorwort”, in: Max Jammer: Des Problem des Raumes, Die Entwicklung der Raumtheorien, Darmstadt, XII–XVII
- Engel, J.F., Blackwell, R.D., 1982, *Consumer Behavior*, 4th edition, The Drydan Press.
- Eugène Minkowski, 1968, *Le temps vécu: études phénoménologiques et psychopathologiques*, Lausanne: Delachaux et Niestlé
- Eugène Minkowski, *Espace, intimité, habitat*, in: Situation
- Gaston Bachelard, 1974, *La Poétique de la rêverie*, Paris: PUF
- Gaston Bachelard, 1945, *La terre et les rêveries de volonté*, Paris: José Corti, Collection : Les Massicotés
- Graf K. von Durckheim, 1932, *Untersuchungen zum gelebten Raum*, Neue Psychologische Studien, 6. Bd. Munchen,

- Habermas,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1,2, Heinenmann, London
- Kevin Lynch, 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ss, MIT Press
- Lazer, W., 1963, *Life Style concept and marketing*, In S.A.Greyser(Ed.), Toward scientific marketing, Chicago, IL; AMA.
- Michel Maffesoli, 2006, *Du Nomadisme*, Paris: La Table Ronde
- Michel Oakeshott, 1933, *Experience and Its Modes*,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 Nairn I, 1965, *The American Landscape*, New York: Random house
- Stephan A. Erickson, *Language and Meaning*, in James M. Edie, *New Essays in Phenomenology*, Chicago: Quadrangle Books
- Yi-Fu Tuan,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p.35

학위논문

- 강인보, 1998, "Christian Norberg-Schulz의 현상학적 건축이론에 근거한 실존적 의미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예진, 2007, "경험디자인을 통한 실내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인지적 접근에 의한 경험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하나, 2010, "베이비붐 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가치 및 소비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근이, 2014, "제 3의 공간으로서 카페의 공간 연출 전략"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형진, 2007, "슐츠의 실존적 공간론을 기반으로 한 현대건축 실내공간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내영, 2011,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장소성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범석, 2012, 현대건축에 드러난 유목적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51
- 정상혁, 2008,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상주거 공간계획”,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차은주, 2007, "디지털 공간에 나타난 노마드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하정미, 2012, “한국 카페의 공간 생산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성희, 2012, “장소의 경험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학술논문

- 강학순, 2007, "불노우의 인간학적 공간론에 있어서 ‘거주’의 의미”, 『존재론 연구』, 한국하이데거학회, 제16집
- 박수일, 1999, “디지털 정보화와 미래사회”, 『경영정보연구』 제9권
- 김남국, 2005, “다문화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집 4호
- 김우성 · 허은정, 2007,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의 소비 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제10권 4호
- 김재철, 2009, "공간과 거주의 현상학- 불노오의 공간 이해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56집
- 류호창, 1996, “실내공간에서의 장소성 구현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회지』 7호
- 이동후, 2009, “사이버 대중으로서의 청년 세대에 대한 고찰: 사회적 소통과

관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3권 3호

- 이승헌, 이동원, 2003, “노베르그-슐츠의 장소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건축사연구』, 제 12권
- 이용재, 윤도근, 1998, “근대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논문집』 14호
- 이현재, 2012, “다양한 공간 개념과 공간 읽기의 가능성-절대적, 상대적, 관계적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23권 4호(통권61호)
- 이호영 외 4인, 2013, “정책연구 13-49 : 디지털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비교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3권 49호
- 임진아, 2014, “화이트헤드의 관계적 공간 개념에 대한 비판적 분석”, 『화이트헤드연구』 제28집, 화이트헤드학회
- 조윤경, 2006, “현대 문화에 있어서 노마디즘과 이동성의 의미 -Attali와 Maffesoli의 의미가 있다”, 『불어불문학연구』 제 66집, Vol.66
- 최병두, 2002,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제 8호, 한국도시연구소
- 최영주, 2010, “노마디즘 수용상황 분석과 이해”, 『프랑스학연구』 52집
- 최항섭, 2008, "노마디즘의 이해: 들뢰즈와 마페 줄 리의 의미가 있다", 『사회와 이론』 통권 제12집
- 한주성, 2015, “네트워크 지리학 서평”, 『대한지리학회지』 제 50권 4호, p.451
- David Harvy, 데이비드 하비,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From space and back again:reflection on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J. Bird.B. Curtis, T. Putman, G. Robertson and L. Tickner(eds),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 Global change,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3, 박영민 역, 1995, 『르페브르의 실천전략과 사회공간』, 한국공간환경

학회 특별기획

- Doel, M., 2007, "Post-Structuralist Geography: A Guide to Relational Space by Jonathan Murdoch". *Annals for th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7
- Lalli, M., "Urban-Related Identity: Theory, Measurement, and Empirical Find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 12

정기 간행물

- 서울대학교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KDRI, "Urtrend.net_2014 Annual report", vol.5, 서울: KDRIL
- 임승빈, 1994, "도시에서의 현상적 체험", 서울: 월간 공간 SPACE

인터넷 사이트

-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참고정보원, 국토용어해설
<http://library.krihs.re.kr/term.do>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527&cid=43667&categoryId=43667>
- 온라인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검색
- <http://www.news.gatech.edu/2013/10/07/where-world-are-young-people-using-internet>
- <https://www.boston.com/jobs/jobs-news/2015/02/06/hoffice-a-swedish-idea-to-turn-your-home-into-a-shared-office-space>

Abstract

A Reinterpretation of Place in the Nomadism Perspective.

Lee Sun-Ju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d the current social preference towards the free and unfixed state through the nomadism viewpoint and identified its specific and systematized characteristics. This paper further applied such characteristics to the contemporary usage of space and presented the requirements for nomadic space.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set future directions and to establish standards for contemporary places in the age of nomadism by complementing the limitations to the fixed nature of places, which have been influenced by the stationary way of life and thinking, among the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traditional theory of place.

The meaning of space is extensive and difficult to define, as the concept itself has went through various changes throughout the ages. After the era of dualism, during which human beings and the space were considered separately and emphasis was put on the space itself, the place was increasingly conceptualized as a lifeworld which encompasses human beings as the subject who experience the space in the 1970s. The concept of place at this era emphasized fixity, represented

by the rootedness of the layers of time and the sense of belonging, the context and history in regards to a region and its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the stationary lifestyle and way of thinking that was dominant in the era. However, after the drastic technological, informational, social and cultural changes after the late twentieth century, people have begun to prefer the unfixed and free state in life in general, rather than living with fixed ideas and value systems. The influence of such unfixed paradigm, which preceded the established the notion of unfixed spaces and spaces, are now being used in new ways, quite differently from the existing places designed for the stationary lifestyle and way of thinking. This paper hypothesized that the space in the unfixed contemporary society demands a new and different order system for the users of space, the area of space itself, and the range of time applied to space. To establish this order system, this researcher first examined the contemporary and unfixed characteristics in the nomadism-based approach and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nomadism as a philosophical thought and socio-cultural phenomenon. This researcher further applied such characteristics to the use of space and interpreted the abstract idea and phenomenon of unfixedness spatially, so as to compile a concise and systematic list of characteristics on the ambiguous concept of the contemporary space.

The findings of this paper were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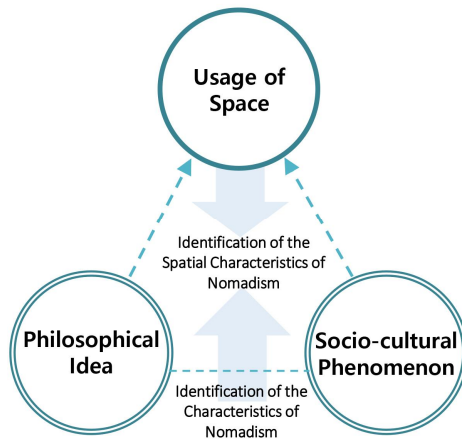
In Chapter 2, this paper focused on the definition of space and place, as well as the process and social background of a space becoming a place. This paper further presented how space and place were considered throughout history through a flow chart and explained how the theory of place was actively accepted in the architectural field.

The humanistic geologists conceptualized place. Humanistic geography, which stemmed from human geography, out of the two main branches of

geography – physical geography and human geography – criticized the quantitative revolution and the logical positivism of the spatial scientific approach. Humanistic geography was developed by the humanistic geologists who were against such research trends. Humanistic geography criticized scientific empiricism and embraced phenomenology and existentialism. It was rooted on the key argument that human beings should be at the center of geography. The concept of place suggested by humanistic geologist was actively accepted by architects who were opposed to the limitation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which had led to functionalism and human alienation. The concept also had a huge influ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architectural paradigm signified by placeness. Place remains to be a topic of research and works in the field of spatial design, including architecture, with the purpose of recovering or creating the sense of placeness.

In Chapter 3, this paper analyzed the viewpoints and theories presented in works by humanistic geographers who established the notion and theory of place. In this chapter,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concept of place in existing theories and posited that among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presented in the theory of place, there have been limitations to the unfixedness of place due to historical changes. The theory of change consists of centrality/territoriality, temporality/contextuality, symbolism, stillness, experientiality, and identity and among such characteristics, fixity could be commonly found in centrality/territoriality, stillness and ident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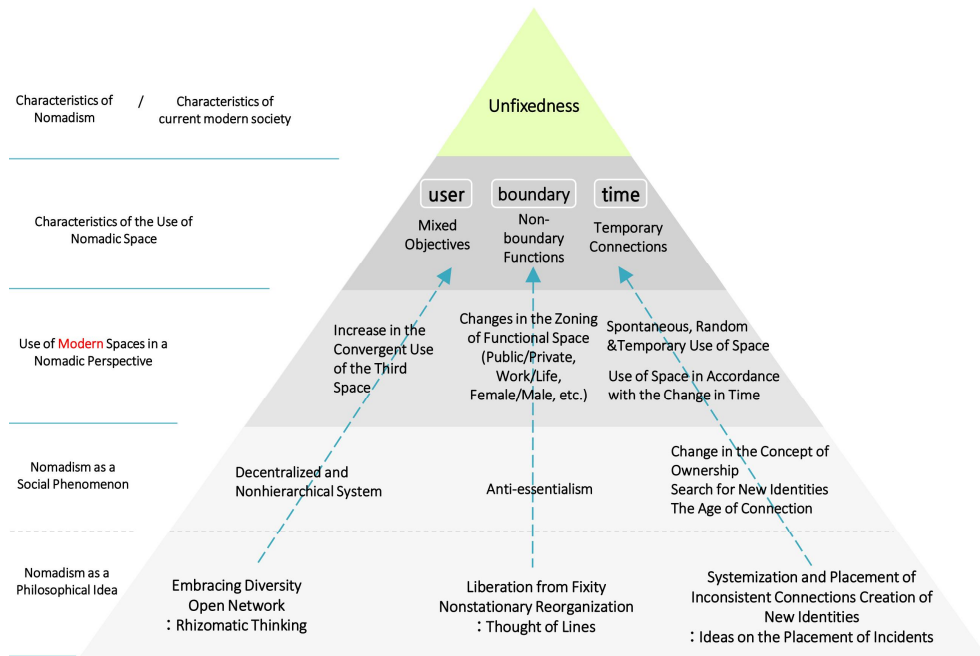
In Chapter 4, a nomadic interpret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o spatially interpret and conceptualize nomadism, which exists as a way of thinking and as a phenomenon. This paper used this interpretation system to fi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nomadic space.



<Figure 1> The Interpretation System for Identifying Spatial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Nomad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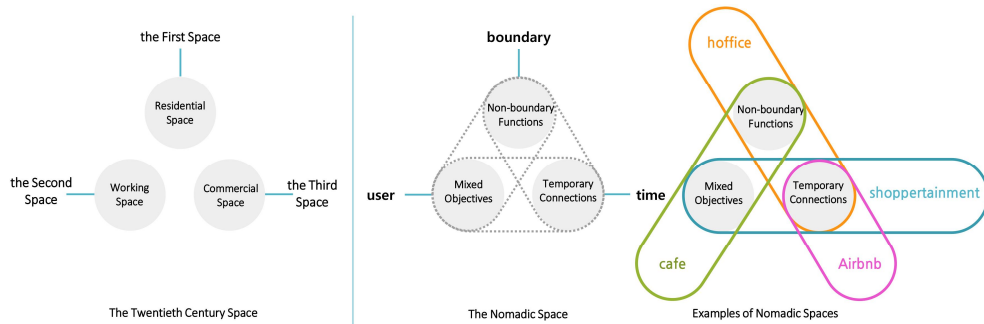
First, this paper analyzed nomadism as a philosophical idea and as a socio-cultural phenomenon and also identified hybridity, the non-boundary characteristic, and connectivity as its characteristics. This paper then applied these characteristics to the actual usage of space and found three spatial characteristics: mixed objectives, non-boundary functions and temporary connections.

In Chapter 5, this paper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eory of place discussed in Chapter 3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madic space discussed in Chapter 4, and confirmed the limitations to the characteristic of fixity throughout history. Moreover, this paper aimed to conduct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the nomadic space based on the findings in Chapter 4 and presented an organized system of the ambiguous and unfixed characteristic of the contemporary space as shown in <Figure 2>.



<Figure 2> Spatial Characteristics of Nomadism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space was divided into the first space as the residential space, the second space as the working space and the third space, which was used as the commercial space, in respect of the function of each space. The nomadic space, on the other hand, would be divided by the user, that is, how the users use the space, boundary, of the composition of the space, and time, that is, of the space programming, and would be an unfixed formation which repeats combination and dis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mixed objectives, non-boundary functions and temporary connections of the purpose of the space.



<Figure 3> The Twentieth Century Space and the Nomadism perspective Space

- User_Mixed Objectives

The concept of mixed objectives is a characteristic found in the purpose and the method of the users of nomadic spaces. The networks in the digital age call for a non-hierarchical and irregular way of thinking, and people also require hybrid spaces which could serve various purposes. To meet such demands, contemporary spaces should have spatial characteristics that differentiate them from the spaces in the past. The mixed objectives of such spaces enable users with non-hierarchical and irregular ways of thinking to follow their individual needs and choices and freely use space without the limitations of space or order. Such characteristic would serve as a key spatial indicator for creating an open and extensive contemporary place, which could embrace various cultural differences among individuals and could freely adapt to the users' needs and objectives.

- Boundary_Non-boundary Functions

The nomadic space forms necessary space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the independently existing individual agents, instead of the demands of individuals who are forcibly classified as and are affiliated to certain spaces by function and area. Moreover, the nomadic space has no boundaries since

individual agents are swiftly connected to each other by need and form small groups, and individual spaces extend themselves to form a space for groups. Such spaces are not stationary and have no boundaries. The lack of boundary in its function is a characteristic of the nomadic space found in the function and composition of the space. The non-boundary function of the nomadic space, as well as the flexible way of thinking and the non-stationary movements of nomadism, should be able to break the existing divide of spaces by function. Since the individual, once forcibly classified by function or classification, became individual agents who add or take out new characteristics to the existing space to form a new space, distinct functions or boundaries to the space have become ambiguous. The non-boundary function of nomadic space, which induces the space to have vague functional boundaries and to be freely organized, would serve as a prerequisite for creating space within contemporary places.

- Time_Temporary Connections

Temporary connections in nomadic space could be defined as a characteristic way of occupying space; nomadic spaces are not occupied continuously or regularly by a limited number of people, but could be used temporarily by anyone in a spontaneous and transitory manner. Such characteristic indicates that the nomadic space is not continuous and regulated nor is it a program for the efficient circulation of users. Rather, it is an experiential space which is temporarily used or occupied for a short period, available through variable connections. The spontaneous, variable and temporary use of space, rather than a fixed and continuous occupation, should accommodate an ever-changing, indefinite and open space program, which could serve as a characteristic spatial indicator when creating contemporary places.

user Method of Use	mixed objec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braces various cultural differences among individuals who pursue non-hierarchical and irregular ways of thinking Should be open and have extensibility for the free use of space, depending on individual needs and objectives
boundary Composition of Space	non-boundary fun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hould be able to overcome the dimension of physical space composition Autonomy needed for individual agents to independently form necessary spaces Disregarding the boundaries which divided the space by areas and functions
time Space Programs	temporary conne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hould be able to be occupied temporarily and spontaneously or be connected in variable ways, instead of being occupied continuously in a fixed manner An undecided and open space program which changes by incidents and user movements

<Figure 4> A Summary of the Characteristics of Nomadism perspective Space

- keyworlds : Contemporary space, nomadism perspective, unfixedness, theory of place, reinterpretation of place
- Student Number: 2014-30419